

2014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청소년기관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체계 구성방안 연구’

2014. 08.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 제 출 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귀하

---

이 보고서를 「청소년기관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체계 구성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 08.

- 연구기관 : (사)한국청소년재단
- 책임연구원 : 조아미 명지대학교 교수
- 연구원 : 이진숙 수원여자대학교 교수  
장여옥 경기대학교 강사  
조미영 명지대학교 강사  
황인국 서대문청소년수련관 관장  
박찬열 흥은청소년문화의 집 관장  
정진희 서대문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
- 보조연구원 : 김은혜 명지대학교 석사과정  
홍신영 명지대학교 석사과정
- 자문위원 : 김종욱 (서울시 의원)  
          당연직 지영림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  
          김영기 (서울시 아동청소년 담당관)  
          이은영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위촉직 김성기 (협성대 교수)  
          김용수 (김앤이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옥식 (밝은청소년 사무총장)  
          윤철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요약문)

# 청소년기관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체계 구성방안 연구

조아미 · 이진숙 · 장여옥 · 조미영 · 황인국 · 박찬열 · 정진희

##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폭력근절을 위해 학교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기관의 연계를 통한 학교폭력 대응체계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 학교폭력 대응체계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2) 청소년관련기관들의 실무자 인터뷰를 통해 지역사회 네트워크 현황을 조사하고, 3) 학교폭력의 현황 및 대책을 위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면담조사를 하고, 4)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체계 구성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 설문조사, 면담조사, 현황 및 사례조사, 전문가 간담회와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연구는 학교폭력 대응 관련 정부대책, 학교폭력 대응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사례조사 및 분석, 학교폭력관련 서울특별시 조례 분석을 하였다. 설문조사는 청소년 1,20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원인 및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면담조사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15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현황 및 사례조사는 지역 청소년 기관들의 실무자 인터뷰를 통해 사업 현황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현황 및 사례 조사를 하였다.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체계 구성과 연구의 주요결과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체계 구성방안이 단기과제와 장기과제로 제시되었다. 단기과제로는 코디네이터의 양성 및 배치, 지역사회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네트워크를 활용한 학교폭력 관련 공동사업 추진 및 지원, 분쟁조정제도의 개선의 네 가지가 도출되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코디네이터의 양성 및 배치

현존하고 있는 네트워크들을 보면 문제없이 구성이 잘되어 있지만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네트워크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일환으로 인적 자원의 제고를 생각해볼 수 있다. 네트워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각 기관과 허브기관의 인적 자원은 그 기관 안에 필요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독립적으로 일을 할 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서로 협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를 중재하는 전문가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의 네트워크에서는 이러한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각 네트워크에 이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코디네이터라는 전문가가 배치될 필요가 있다.

#### ○ 지역사회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본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스트레스가 높아지거나 고민이 생겼을 때 학교 안보다는 학교 밖에서 교육이나 상담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주된 이유는 학교 안에서 교육이나 상담을 받을 때 갖게 되는 낙인감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나 치유프로그램은 대부분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학교폭력이 더 이상 학교 안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 학교 밖에서도 발생하며 더욱이 학교 안에서 발생한 문제가 학교 밖으로까지 연결, 확대되는 상황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이 학교 안으로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학교폭력을 근절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 ○ 네트워크를 활용한 학교폭력 관련 공동사업 추진 및 지원

학교폭력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은 선행연구 및 조사 분석의 결과에 제시된 바이다. 학교폭력 문제를 지역사회 내의 문제로 인식하고 공동의 노력으로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네트워크에 포함된 기관이 함께 하는 공동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네트워크의 경우 공동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각 기관에서 일부씩 분담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 분쟁조정제도의 개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학교의 선생님들이 참여하여 분쟁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학

교폭력 분쟁조정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합리성을 담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인하여 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학교폭력 관련 분쟁조정기능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체계 구성방안의 장기과제로는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 모형, 지역사회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의 원스톱서비스 허브기관,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체계 네트워크의 프로그램,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체계 인력구성,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체계 구성을 위한 조례 제정의 다섯 가지가 제시하였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 모형은 히로이가 제시한 학교폭력을 포함한 위기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자립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의 조건에 기초하여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 네트워크 모형은 허브기관과 1,2,3차 안전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사회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의 원스톱서비스 허브기관에서는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원스톱서비스 허브기관의 역할이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기관은 센터장과 기획팀, 사업개발팀, 아웃리치팀, 인테이크팀, 징검다리팀, 코디네이팅팀, 분쟁조정팀의 7개 팀으로 편성되도록 계획하였다.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체계 네트워크의 프로그램은 기존의 프로그램과 차별화한다.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체계 인력구성과 관련해서는 코디네이터의 필요성과 상담, 복지, 활동 전문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체계 구성을 위한 조례 제정의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학교폭력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폭력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 서울특별시 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조례가 없는 실정이므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내용 .....	4
3. 연구방법 .....	5
4. 연구체계 흐름도 .....	6
II. 학교폭력 대응체계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선행연구 ..	7
1. 학교폭력 대응관련 정부대책 .....	7
2. 학교폭력 대응관련 지역사회 네트워크 국내 사례 .....	10
3. 학교폭력 대응관련 지역사회 네트워크 해외 사례 .....	24
4. 학교폭력관련 서울특별시 조례분석 .....	35
5. 문제점 분석 및 시사점 .....	38
III. 학교폭력 대응관련 지역사회 네트워크 현황조사 .....	44
1. 청소년관련기관 학교폭력 대응관련 사업 현황 .....	44
2. 학교폭력 대응관련 지역사회 네트워크 현황 및 사례 .....	76
3. 문제점 분석 및 시사점 .....	79
IV. 실태조사 분석 .....	81
1. 설문조사 결과 .....	81
2. 면접조사 결과 .....	107
3. 문제점 분석 및 시사점 .....	120

V.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체계 구성방안 및 제언 .....	122
1. 연구내용 요약 .....	122
2.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체계 구성방안 .....	128
가. 단기 과제 :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 .....	128
1) 코디네이터의 양성 및 배치 .....	128
2) 지역사회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129
3) 네트워크를 활용한 학교폭력 관련 공동사업 추진 및 지원 .....	130
4) 분쟁조정제도의 개선 .....	130
나. 장기 과제 :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체계 구성방안 .....	132
1) 지역사회 학교폭력 네트워크 구성 .....	132
가)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 구성의 방향 .....	132
나)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 모형 .....	134
2) 지역사회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의 원스톱서비스 허브기관 .....	138
3)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체계 네트워크의 프로그램 .....	140
4)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체계 인력구성 .....	141
5)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체계 구성을 위한 조례 제정 .....	142
3. 제언 .....	143
참고문헌 .....	145

## 표 목차

〈표 I-1〉 연구의 세부내용 .....	4
〈표 I-2〉 연구방법과 세부내용 .....	5
〈표 II-1〉 「학교폭력근절 7대 실천 정책」의 정책 개요 .....	8
〈표 II-2〉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의 정책 개요 .....	9
〈표 II-3〉 학교폭력관련 네트워크의 장단점 및 시사점 .....	16
〈표 II-4〉 해맑음센터 위탁교육 운영방침 .....	20
〈표 II-5〉 학교폭력 네트워크의 장단점 및 시사점 .....	20
〈표 II-6〉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주요기능 .....	23
〈표 II-7〉 학교폭력관련 기관의 장단점 및 시사점 .....	23
〈표 II-8〉 국외 네트워크의 장단점 및 시사점 .....	34
〈표 II-9〉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의 공통점과 차이점 .....	37
〈표 III-1〉 조사 대상 및 내용 .....	44
〈표 III-2〉 방문 면담 기관 및 면담 대상자 .....	45
〈표 III-3〉 청소년수련관 사업현황 .....	46
〈표 III-4〉 A 청소년문화의집 사업현황 .....	47
〈표 III-5〉 B 청소년문화의집 사업현황 .....	49
〈표 III-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현황 .....	51
〈표 III-7〉 Wee센터 사업현황 .....	53
〈표 III-8〉 청소년자활지원관 사업현황 .....	55
〈표 III-9〉 고용복지지원센터 사업현황 .....	57
〈표 III-10〉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현황 .....	59
〈표 III-11〉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현황 .....	60
〈표 III-12〉 종합사회복지관 사업현황 .....	61
〈표 III-13〉 지역아동센터 사업현황 .....	63
〈표 III-14〉 A대안학교 사업현황 .....	64
〈표 III-15〉 B대안학교 사업현황 .....	66
〈표 III-16〉 자원봉사센터 사업현황 .....	68
〈표 III-17〉 보호관찰소 사업현황 .....	70
〈표 III-18〉 경찰서 사업현황 .....	71
〈표 III-19〉 네트워크 사례 .....	78
〈표 IV-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설문조사) .....	82

〈표 IV-2〉 학교 밖 폭력에 대한 인식 .....	83
〈표 IV-3〉 성별 학교 밖 폭력 인식 차이 .....	84
〈표 IV-4〉 학교급별 학교 밖 폭력 인식 차이 .....	85
〈표 IV-5〉 지역별 학교 밖 학교폭력 인식 차이 .....	86
〈표 IV-6〉 학교 밖 폭력의 원인(중복응답) .....	87
〈표 IV-7〉 학교 밖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중복응답) .....	88
〈표 IV-8〉 학교 밖 폭력 대처를 위한 지역사회 기관 인지도 .....	89
〈표 IV-9〉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 기관의 중요도 .....	91
〈표 IV-10〉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 .....	92
〈표 IV-11〉 학교급에 따른 차이 검증 .....	93
〈표 IV-12〉 거주 지역에 따른 각 기관의 차이 검증 .....	94
〈표 IV-13〉 학교폭력 피해경험 .....	96
〈표 IV-14〉 학교폭력 피해 장소(중복응답) .....	97
〈표 IV-15〉 학교폭력 피해 시간대(중복응답) .....	98
〈표 IV-16〉 학교폭력의 유형(중복응답) .....	99
〈표 IV-17〉 학교 안 폭력이 학교 밖으로 연결된 경험 .....	100
〈표 IV-18〉 학교 밖 폭력의 가해대상 .....	100
〈표 IV-19〉 학교 밖 폭력에 대한 도움 요청 실태 .....	102
〈표 IV-20〉 학교 밖에서 폭력을 당할 때 주변사람들의 태도 .....	104
〈표 IV-21〉 학교폭력 피해 신고 여부 .....	105
〈표 IV-22〉 신고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	105
〈표 IV-23〉 학교 안과 밖의 폭력 피해 비교 .....	106
〈표 IV-24〉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면담조사) .....	107
〈표 IV-25〉 면담조사 분석결과 .....	108
〈표 V-1〉 히로이가 제시한 네트워크 조건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의 관계 .....	133

##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체계 흐름도 .....	6
【그림 II-1】 지역사회 네트워크 ‘컴넷’(ComNet) 체계도 .....	11
【그림 II-2】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모형 .....	12
【그림 II-3】 박효정 외(2006) 학교폭력 지원체제 모형 .....	13
【그림 II-4】 Wee 프로젝트의 체계 .....	14
【그림 II-5】 Wee 센터 운영 .....	15
【그림 II-6】 CYS-Net 체계도 .....	16
【그림 II-7】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학교폭력 지원체제 .....	25
【그림 II-8】 지역사회 차원의 청소년지원모델 .....	27
【그림 IV-1】 학교 밖 폭력에 대한 인식 .....	83
【그림 IV-2】 성별 학교 밖 학교폭력 인식차이 .....	84
【그림 IV-3】 학교급별 학교 밖 폭력 인식 차이 .....	85
【그림 IV-4】 지역별 학교 밖 폭력 인식 차이 .....	86
【그림 IV-5】 학교 밖 폭력 대처를 위한 지역사회 기관 인지도 .....	90
【그림 IV-6】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 기관의 중요도 .....	91
【그림 IV-7】 학교폭력 피해경험 .....	96
【그림 IV-8】 학교폭력 피해 장소 .....	97
【그림 IV-9】 학교폭력 피해 시간대(중복응답) .....	98
【그림 IV-10】 학교폭력의 유형(중복응답) .....	99
【그림 IV-11】 학교 안 폭력이 학교 밖으로 연결된 경험 .....	100
【그림 IV-12】 학교 밖 폭력의 가해대상 .....	101
【그림 IV-13】 학교 밖 폭력 도움요청 가능 여부 .....	103
【그림 IV-14】 학교 밖 폭력 시 도움을 청한 곳 .....	103
【그림 IV-15】 학교 밖 폭력 시 도움이 되었는지의 여부 .....	103
【그림 IV-16】 학교 밖에서 폭력을 당할 때 주변사람들의 태도 .....	104
【그림 IV-17】 학교폭력 피해 신고 여부 .....	105
【그림 IV-18】 학교 안과 밖의 폭력 피해 비교 .....	106
【그림 V-1】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 모형 .....	135
【그림 V-2】 각 구의 학교폭력 대응네트워크, 서울시, 경기도 등 인접 지역간의 연계 .....	136
【그림 V-3】 마포구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 .....	137
【그림 V-4】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의 허브기관 조직 체계 .....	139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90년대 후반에 발생한 일련의 왕따로 인한 청소년의 자살사건부터이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방관자, 동조자 등 이를 둘러싼 청소년들에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권재기, 2011; 신복기, 이성진, 2012; 이정숙, 권영란, 김수진, 2007; 문대근, 이진주, 이종각, 김정민, 문수백, 2013). 특히 학교폭력 피해는 피해자의 우울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10명중 4.5명이 자살을 생각한다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3)의 조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에 까지 학교폭력이 미치는 영향의 파급효과는 크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민간단체와 지자체,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큰 걱정거리일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의 형태가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금명자 외, 2005; 이상구, 2012; 김창균, 임계령, 2010; 임윤지, 김하영, 2013; 배영미, 2012; 조종태, 2013). 이성순, 강민완, 김종열(2012)은 교육부가 파악한 학교폭력 실태를 근거로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은 원인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 대응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관련 정책은 연속성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내 청소년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학교와 부모 그리고 사회가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협조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성순, 강민완, 김종열, 2012).

한편,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계속 대두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교폭력의 양상이 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과거에는 상해나 폭행과 같은 신체 폭력이 많았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이러한 폭력유형보다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과학부(2013)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즉, 금품갈취나 강제심부름과 같이 걸으로 드러나는 폭력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 괴롭힘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는 2011년 1.8%, 2012년 4.7%(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3), 2013년 1차 9.1% 2차 9.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교육과학부, 2013). 이처럼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간으로 연결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장소에 대한 결과에서도 학원이나 pc방, 놀이터, 사이버 공간 등의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17.8%로 높게 나타남으로써 학교폭력이 더 이상 학

교 안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로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교육과학부, 2013). 이것은 학교폭력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학교 밖에서도 발생하고 있고, 학교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혼합형도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을 마련하고 체험·공감 중심의 예방교육 확대와 전문 상담인력의 개입 능력을 높이는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3). 그 일환으로 교육부는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교육부 보도자료, 2014).

그러나 정부의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사업은 아직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여전히 학교폭력과 관련한 정부 정책은 학교 밖 폭력에 대한 정책적 주목도가 낮아 긴급신고 위치전송 서비스, CC-TV 확대 등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즉 지역사회와 연계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의 유관기관의 현황을 조사하고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임시적인 대책이 마련되었을 뿐 학교 밖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종합적 대응 방향과는 아직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간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협조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려는 연구가 일부 수행되어 왔다(윤철경, 2006; 이민희 외, 2003; 한국청소년상담원, 2006). 이들 연구는 주로 기관의 특성을 파악하고 중심이 되는 기관을 선정하고, 각각의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지원체제의 구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다. 그 결과 각각의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가상의 지원체제 모형을 제시하였을 뿐, 그 실효성이나 현장에서의 적용성을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이병환, 2010).

이 후 이민희 외(2006)의 연구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실제적인 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연구들은 대부분 학교폭력근절에 관한 종합대책이 수립되기 이전에 수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더욱이 이전의 연구들은 학교 안과 학교 밖이라는 구분이 없이 학교폭력을 전체로서 이해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기존의 학교폭력관련 정책은 학교 안 폭력에 초점을 맞추고 학교 밖 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다. 학교폭력은 학교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노력이 더해져야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학교는 학교 안에서의 폭력, 지역사회는 학교 밖에서의 폭력에 일차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와 지역사회는 독립적으로 학교폭력에 대응하면서 때로는 학교폭력에

대해 서로 협력한다면 학교폭력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기관의 연계를 통한 학교폭력 대응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이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기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연구가 수행될 것이다.

**첫째, 학교폭력 대응체계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선행연구이다.**

여기에서는 (1)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대책을 제시하고, (2) 학교폭력 대응관련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3) 학교폭력관련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파악하여 (4)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학교폭력 대응관련 지역사회 네트워크 현황조사이다.**

여기에서는 (1) 청소년관련기관 학교폭력 대응관련 사업 현황을 조사하고, (2) 학교폭력 대응관련 지역사회 네트워크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하여, (3)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실태조사 분석이다.**

여기에서는 (1) 학교 폭력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 학교 안 폭력이 학교 밖 폭력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3)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넷째,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체계 구성방안 및 제언이다.**

여기에서는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을 예방 및 근절하고, 지역사회의 학교폭력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구성방안과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학교폭력 대응체계 및 지역네트워크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이다. 둘째는 학교 폭력 실태 및 면담 조사이다. 셋째는 조사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현황 분석이다. 넷째는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 학교 폭력 대응체계 구성방안 제시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

연구내용	세부내용
□ 학교폭력 대응체계 및 지역 네트워크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 학교폭력 대응관련 정부대책 ○ 학교폭력 대응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사례조사 및 분석 ○ 학교폭력관련 서울특별시 조례 분석
□ 지역사회 네트워크 현황 분석	○ 학교폭력 대응관련 지역사회 네트워크 현황 및 사례조사 - 지역 청소년관련기관들의 학교 밖 폭력 관련 사업 현황조사 (학교 폭력관련 사업구조 및 교육프로그램 현황 파악, 학교폭력 전담 인력 및 예산 배치 현황, 연계사업 구조: 학교 및 지역사회) - 학교폭력 대응관련 지역사회 네트워크 현황 파악
□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면담조사	○ 학교폭력의 현황 및 대책에 대한 설문조사, 면접조사
□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체계 구성방안 및 제언	○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체계 구성방안 제시 ○ 제언

<표 1-1> 연구의 세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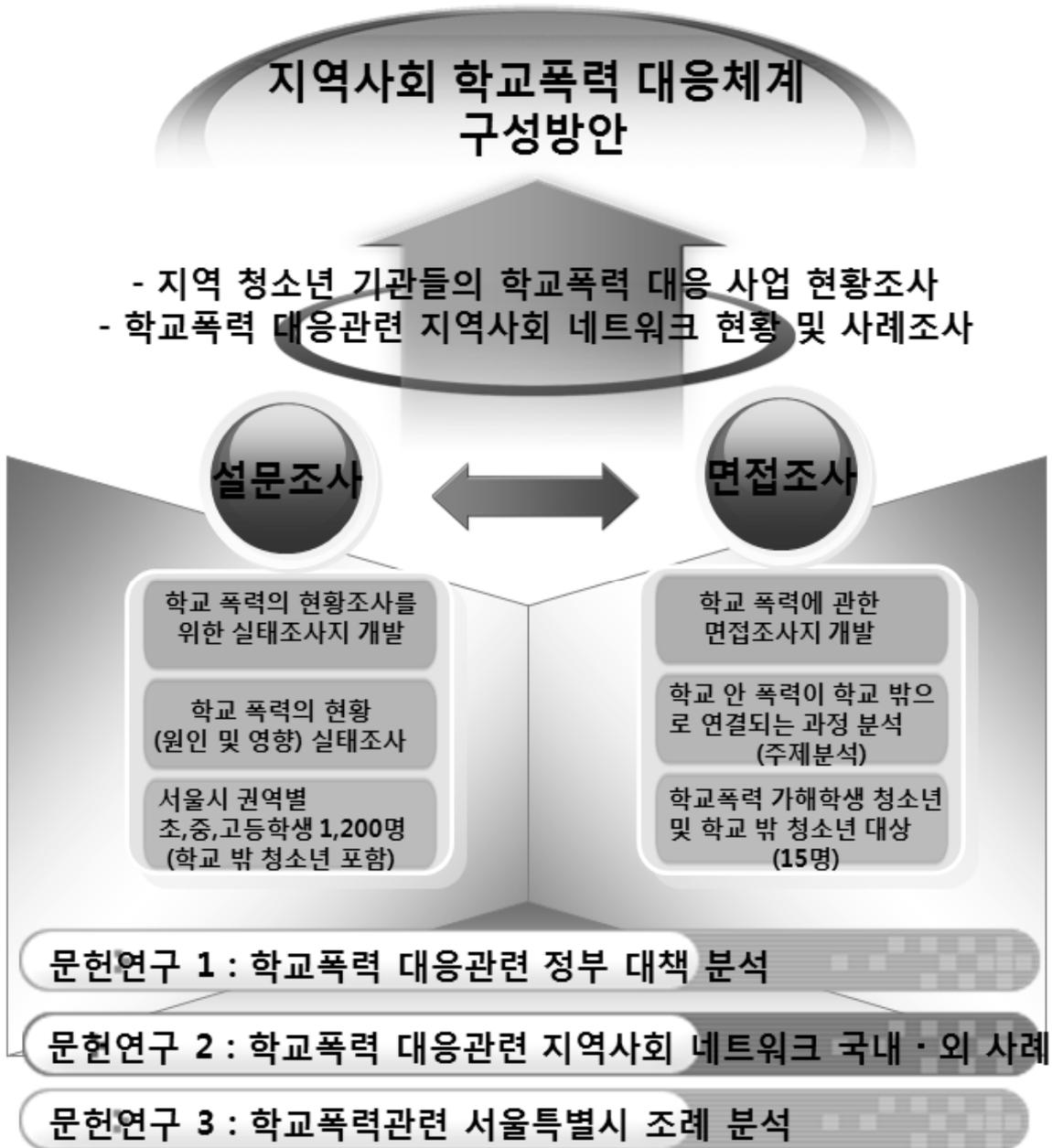
###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문헌연구, 설문조사, 면담조사, 현황 및 사례조사, 전문가 간담회와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1-2>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연구방법	세부내용																									
□ 문헌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 대응관련 정부대책</li> <li>○ 학교폭력 대응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사례조사 및 분석</li> <li>○ 학교폭력관련 서울특별시 조례 분석</li> </ul>																									
□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대상: 청소년 1,200명, 학교 밖 폭력의 현황(원인 및 영향) 조사</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15%;">동북권</th> <th style="width: 15%;">동남권</th> <th style="width: 15%;">서북권</th> <th style="width: 15%;">서남권</th> </tr> </thead> <tbody> <tr> <td>초등학생</td> <td>100명</td> <td>100명</td> <td>100명</td> <td>100명</td> </tr> <tr> <td>중학생</td> <td>100명</td> <td>100명</td> <td>100명</td> <td>100명</td> </tr> <tr> <td>고등학생</td> <td>100명</td> <td>100명</td> <td>100명</td> <td>100명</td> </tr> <tr> <td>계</td> <td>300명</td> <td>300명</td> <td>300명</td> <td>300명</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석방법: SPSS 18.0 활용, 빈도분석, 교차분석,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 등</li> </ul>	구분	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	초등학생	100명	100명	100명	100명	중학생	100명	100명	100명	100명	고등학생	100명	100명	100명	100명	계	300명	300명	300명	300명
구분	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																						
초등학생	100명	100명	100명	100명																						
중학생	100명	100명	100명	100명																						
고등학생	100명	100명	100명	100명																						
계	300명	300명	300명	300명																						
□ 면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대상: 학교폭력 가해학생 15명(학교 밖 청소년 포함)</li> <li>○ 분석방법: 주제분석 방법(학교폭력의 현황 및 대책)</li> </ul>																									
□ 현황 및 사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청소년 기관들의 학교폭력 관련 사업 현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구조, 학교폭력 진담 인력 및 예산 배치 현황, 교육프로그램 현황 파악</li> <li>- 학교 안과의 연계사업 구조,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구조</li> </ul> </li> <li>○ 학교폭력 대응관련 지역사회 네트워크 현황 및 사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담조사: 마포구 내 지역 청소년관련기관의 학교폭력 대응관련 사업 및 인력운영 현황 조사</li> </ul> </li> </ul>																									
□ 전문가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체계 구성에 관한 논의</li> <li>○ 연구의 주요결과 논의</li> </ul>																									

<표 1-2> 연구방법과 세부내용

#### 4. 연구체계 흐름도



【그림 1-1】 연구체계 흐름도

## Ⅱ. 학교폭력 대응체계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선행연구

### 1. 학교폭력 대응관련 정부대책

한국사회에서 1990년대 초부터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시작되었고, 1995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1997년에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이 전개되었고,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학교폭력의 개념을 정의하고, 2005년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러한 국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들의 자살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2년 2월 6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2013년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학교폭력이 4대악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를 위한 대책으로 2013년 7월 23일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이 제안되었다. 이처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정부의 노력이 있어왔다. 여기에서는 최근에 이루어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과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정부의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 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2012년)

2004년 국가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자의 저연령화, 신체 폭력만이 아니라 강제적 심부름과 사이버폭력, 성적 모독 등과 같은 언어적 및 정신적 폭력의 증가로 인해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이끌어내지 못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2).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 교사 및 학부모 모두가 학교폭력을 근절하도록 하는 정책과 제도의 개선이 부족하였으며 학생들의 인성을 교육해서 학생들 간의 배려심과 공감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이 미흡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2).

이처럼 기존의 학교폭력 관련 대책과 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정부는 2012년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목표로 하는 ‘학교폭력근절 7대 실천 정책’을 마련하였다. 이 정책에서는 ①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② 신고 및 조사체계를 개선하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③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④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⑤ 학교·가정·사회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⑥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⑦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학교폭력 대응체계에 대한 전체틀을 재편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과거 대책들을 종합하여 산발적인 정책을 제안하였다는 지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등으로 학교·교육청과 교육부와

의 갈등,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정의 영향에 따른 학교와 학부모간의 갈등 등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학교현장에서 적용되는데 있어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경찰청,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각 부처별로 제시한 대책들이 혼재되거나 중복되어 있어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승현, 2013: 32).

학교폭력근절 7대 실천 정책 (목표: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직접대책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하에 철저히 대응)	근본대책 (학교-가정-사회가 함께 인성교육 실천)
1.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 대처 권한 및 역할 대폭 강화 - 은폐 시 엄중조치로 책무성 확보 2.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 신고체계 일원화 - 조사, 지원기능 체계화 - 가해/피해학생 조치 강화 3.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 학생간의 자율적 갈등해결 - 학교단위 예방교육 체계화	4.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 학부모 교육, 자원봉사 확대 5.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 바른생활습관, 학생생활규칙 준수 등 실천적 인성교육 추진 6.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 민·관 협력체제 강화 - 가정의 교육기능 회복 7.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 요인 대책 - 게임·인터넷 심의·규제 및 예방·치유교육 확대

〈표 II-1〉 「학교폭력근절 7대 실천 정책」의 정책 개요

\* 출처: 관계부처합동(2012).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p. 8.

#### 나.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2013년)

2012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한 후,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이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심각한 피해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고 현장의 낮은 자율성, 형식적 예방교육, 학생상담인력 부족, 피해학생 보호 미흡 등 일부 대책에 대한 개선·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로 2013년 7월 23일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3).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은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① 어울림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학교의 다양한 자율적 예방활동 지원 강화, ② 폭력 유형별·지역별·학교급별 맞춤형 대응 강화, ③ 피해학생에 대한 관리 및 보호와 같은 지원체계를 강화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강화, ④ 학교역량 제고 및 학교폭력 은폐·축소에 대한 관리·감독강화, ⑤ 안전한 학교 환경 및 지역사회의 대응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과 비교하면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이 더 예방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전의 종합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기존 제안된 대책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교현장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번 대책이 학교에서의 절박한 현실에 대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현장 없는’ 현장 중심의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승현, 2013: 32).

비전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목표	학교폭력 및 학생 위험 제로 환경 조성
전략	· 단위학교의 실효성 있는 자율적 예방활동 활성화 · 학교폭력 유형별·지역별 맞춤형 대응강화 · 피해학생 보호는 대폭 강화하고 가해학생은 재발방지 역점
영역(5)	중점과제(20)
1. 학교 현장의 다양한 자율적 예방 활동 지원 강화	① “어울림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예방교육 내실화 ② 학교의 자율적인 예방활동 활성화 ③ 학교의 자율적인 예방활동 적극 지원 및 유도 ④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정 운영 및 대안교육 활성화
2. 폭력 유형별·지역별·학교급별 맞춤형 대응 강화	⑤ 언어문화 개선을 통한 언어폭력 예방 ⑥ 사이버 폭력 신고 및 예방교육 활성화 ⑦ 처벌보다는 관계 회복에 역점을 둔 집단따돌림 해소 ⑧ 성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치유·보호 강화 ⑨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폭력서클 대응 강화 ⑩ 지역별·학교급별 맞춤형 대책 수립·추진
3.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강화	⑪ 학교폭력 조기 진단 및 관리 강화 ⑫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강화 ⑬ 가해학생 선도 및 조치 강화 ⑭ 학생 생활 지도 및 상담 여건 등 조성
4. 학교역량 제고 및 은폐·축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⑮ 학교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 ⑯ 은폐·축소 및 부적절 대처 관리·감독 강화
5. 안전한 학교 환경 및 전 사회적 대응 강화	⑰ 학교폭력 신고 시스템 개선 ⑱ 학교안전 인프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⑲ 지역사회의 예방 및 근절 활동 확산 ⑳ 학교폭력 대책 추진체계 재정비

〈표 II-2〉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의 정책 개요

\* 출처: 관계부처합동(2013).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 p. 7.

## 2. 학교폭력 대응관련 지역사회 네트워크 국내 사례분석

### 가. 학교폭력 네트워크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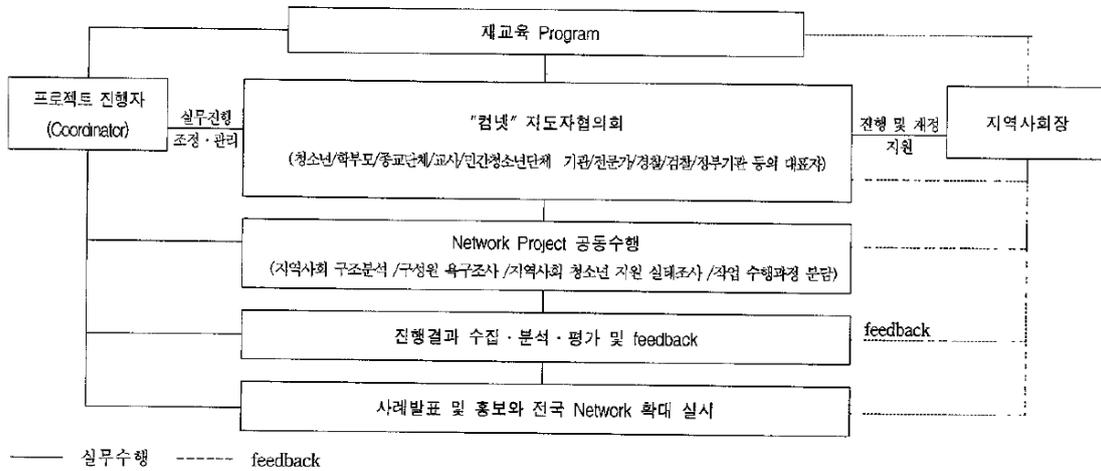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는 한국의 학교폭력에 관한 지역사회 대책 예방, 치료 및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표적인 사례들을 알아보려 한다. 따라서 2003년 방배유스센터에서 실시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델 ‘컴넷’, 2005년에 개발된 청소년기관 중심의 학교폭력지역네트워크 모형과 2006년에 개발된 학교·교육청 중심의 학교폭력 지원모형의 사례, Wee 센터, CYS-net을 분석해보려 한다.

#### 1) 지역사회 네트워크 ‘컴넷’(ComNet)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학교폭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는 연구는 1998년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시작한 「청소년폭력 대책 모델 개발」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독일의 학교폭력 모델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컴넷’(ComNet; Community Network)을 제안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학교폭력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이민희 외, 1998). 이 모델의 구성원은 중심적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컴넷’ 지도자협의회, 네트워크 개발과 네트워크 간 연계를 담당하는 진행자(coordinator)와 ‘컴넷’ 체계를 총괄하여 진행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지역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컴넷’ 지도자협의회는 청소년, 학부모, 종교단체, 교사, 민간 청소년 단체 및 기관, 경찰, 검찰, 정부기관 대표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이민희 외, 2003).

2003년 한국청소년개발원이 방배유스센터와 함께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델인 ‘컴넷’을 실제로 시범 운영한 결과,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인적 및 물적 자원의 한계가 있으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적인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이민희 외, 2003).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된 독일의 ‘컴넷’ 체계도와 ‘방배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비교하면, 인력 구성면에서 ‘방배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청소년, 종교단체, 상담, 법조계 등에서 인력들의 참여가 결여되었다. 또한 ‘컴넷’에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운영자가 정부의 기관에서 상근직으로 고용되지만 ‘방배 지역사회 네트워크’에서는 서초구청으로 그 역할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컴넷’에서는 지역사회의 장(長)의 역할의 중요성과 책무성을 강조하지만 ‘방배 지역사회 네트워크’에서는 서초구청장이 참여하지 않았다(이민희 외, 2003). 이 연구모형은 이론적으로 이상적인 네트워크 모형이라 할 수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한국의 지역사회에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점을 드러내었다(이민희 외,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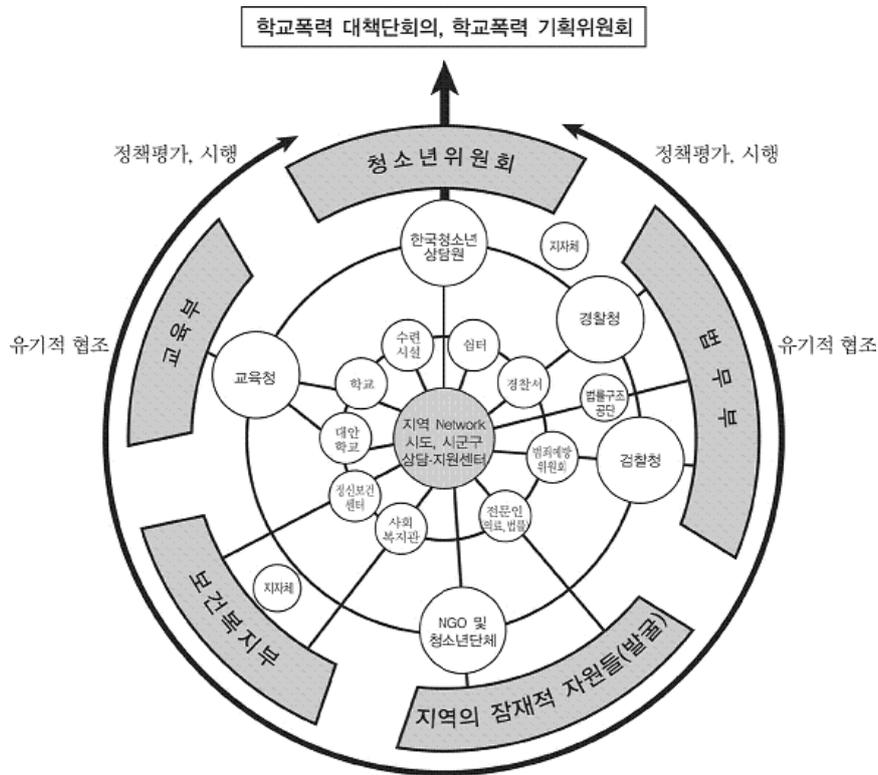


【그림 II-1】 지역사회 네트워크 ‘컴넷’(ComNet) 체계도

\* 출처: 이민희 외(2003).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청소년폭력 대책 연구. p. 201.

## 2) 청소년기관중심의 학교폭력지역네트워크 모형

금명자 외(2005)가 개발한 청소년기관중심의 학교폭력지역네트워크 모형은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사후처리와 교육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 연구 모형은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전문상담가와 기관의 연계를 제안하였다. 시·도, 시·군구 상담·지원센터(당시 가칭)가 허브역할 및 학교폭력의 전체적인 중심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1차 연계망은 경찰청, 학교, 수련시설, 복지관, 정신보건센터, 대안학교, 쉼터, 범죄예방위원회와 전문인(의료 및 법률) 등으로 이루어지며 허브기관과 협력하여 학교폭력 처리에 대한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2차 안전망은 한국청소년상담원, 교육청, 경찰청, 검찰청, 지자체, NGO 및 청소년 단체 등으로 구성되며 1차 안전망과의 수직적인 연계체제를 통해 실제적인 요구들을 지원하였다. 가장 상위의 연계망인 3차 안전망은 청소년 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및 기타 정부부처들로 구성되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실행, 평가 및 시행을 실시함으로써 각 기관들 및 부처들 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연결을 중시하였다(금명자 외, 2005). 하지만, 이 연구 모형의 허브역할을 담당하는 인력이 주로 상담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어서 상담이외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 되었다(이민희 외, 2006). 시·도, 시·군구 상담·지원센터(당시 가칭)는 학교폭력 이외에도 다양한 위기문제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기에 한계점이 있었다.



【그림 II-2】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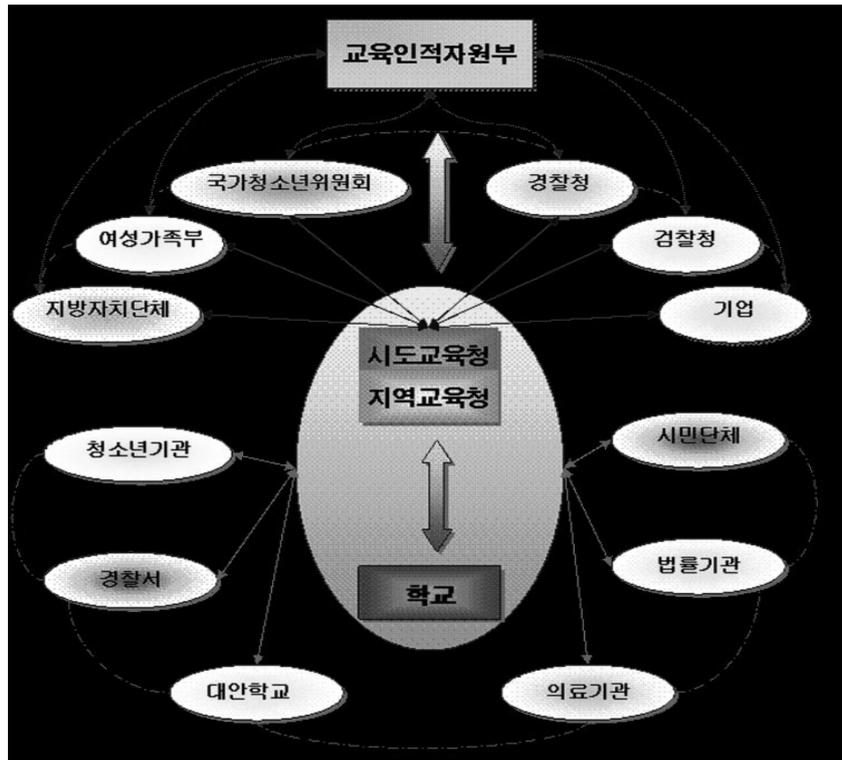
\* 출처: 금명자 외(200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연계체계 구축방안. p. 85.

### 3) 학교폭력 지원체계 모형

박효정 외(2006)에 개발된 학교폭력 지원체계 모형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의 중심기관이 학교·교육청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 모형은 학교 중심의 제1수준 중심 기관과 교육청 중심의 2수준 중심 기관으로 나뉘지며 기관들의 상호 협조를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진다. 제1수준의 중심 기관은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책임을 맡으며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처에 관한 정책과 사업을 수행한다. 제2수준의 중심 기관은 시·도 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 내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책임을 맡으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학교폭력 업무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 연구 모형은 시·도 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 내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면서 시·도 및 교육청 역할의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각 수준별로 운영방안과 대처 및 예방을 달리했다(박효정 외, 2006).

학교폭력 지원체계 모형에 관한 타당화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 연구 모형은 지역별 차이, 학교와 교육청의 학교폭력 지원에 대한 어려움, 학교와 교육청 연계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박효정 외, 2007). 즉, 이 연구 모형의 핵심은 지역적 차원에서의 자원 활용방안과 지역사회 내에서의 긴밀한 연계를 형성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박효정 외(2008)는 지원체제 모형을 제도화 및 확산하기 위해 재정·인적 자원의 지역적 차이를 극복하며 One-Stop지원센터나 CYS-Net과 같은 기존의 체제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림 II-3】 박효정 외(2006) 학교폭력 지원체제 모형

\* 출처: 박효정 외(2006).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연구. p. 213.

#### 4) Wee 센터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기 학생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위기 청소년 및 학교 폭력 가·피해학생을 선도하고 치유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2008년 교육청 차원의 지역사회 지원망을 통해 ‘진단-상담-치료’ 전문 컨설팅 기능 강화로 문제를 예방·해결하는 노력으로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위기 청소년들에게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지원하는 Wee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다(최상근 외, 2011). 현재 2014년 5월 기준 전국 179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Wee 프로젝트의 체계는 3단계 안전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체계를 살펴보면 1차

안전망 단위학교의 Wee 클래스, 2차 안전망 지역교육청의 Wee 센터와 3차 안전망 시·도교육청의 Wee 스쿨이다. Wee 프로젝트는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된 안전망을 구축·운영하여 학업중단, 학교폭력, 학교부적응, 학업중단 등의 위기 학생을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학생안전통합시스템이다(공숙자,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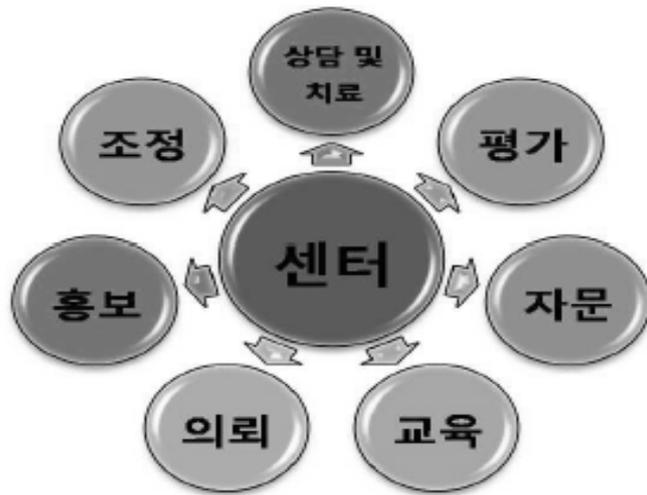


【그림 II-4】 Wee 프로젝트의 체계

\* 출처: 최상근 외(2011). Wee 프로젝트 운영모델 개발 연구. p. 11.

Wee 센터의 주요업무는 상담 및 치료, 자문, 교육, 의뢰, 홍보, 조정으로 구분된다. 그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Wee 센터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례에 대한 평가, 상담, 지원, 치료를 위해 전문가들이 협력하고, Wee 클래스나 교사 등을 대상으로 자문을 제공한다. 일반교사와 Wee 클래스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사회 연계망을 대상으로 센터의 역할과 운영을 소개한다. Wee 센터의 홍보는 교육청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학교장·일반교사·전문상담교사나 진로 및 생활지도담당교사·학부모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학생들 사이의 문제와 학교 간의 문제해결을 위한 갈등조정 및 중재 등을 수행한다(전인식 외, 2011).

Wee 프로젝트는 기존의 생활지도 개념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심리적 및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상담 및 치유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지만 프로그램이 미비한 점과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편차 등의 문제점이 있다(정현주 외, 2012).



【그림 II-5】 Wee 센터 운영

\* 출처: 전인식 외(2011). Wee 프로젝트 매뉴얼 3. p. 5.

#### 5)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CYS-Net(Community Youth Safety-Net)은 지역사회 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이다. CIS-Net은 지역사회의 시민, 청소년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주체가 되어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구조·치료하는데 참여하고 이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는 연계망이다(노성덕 외, 2010).

CYS-Net의 운영기관은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이다. CIS-Net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위기 청소년의 발견·보호를 위해 학교·교육청, 경찰관서, 노동관서, 국·공립 의료기관, 보건소,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지원시설을 연계기관으로 지정하여 기관간의 연계·협력을 강화도록 한다. 학교지원단과 1388청소년지원단을 구성하여 위기청소년의 신속한 발굴과 보호를 돕는다(정현주 외, 2012). 특히, 1388 청소년지원단을 지역사회 내에 사회안전망의 일부분으로 조직하여 위기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388청소년지원단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사회 약국, 병원, pc방, 노래방, 택시회사, 학원, 변호사, 교사, 자원봉사자 등 민간단체 및 개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을 말한다(노성덕 외, 2010).



【그림 II-6】 CYS-Net 체계도

\*출처: 노성덕 외 (2010).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3판). p. 4.

이처럼 CYS-Net의 중요한 특징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연계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거나 학교폭력 해결만을 중점으로 하지 않았다(박효정 외, 2006; 정현주 외, 2012)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CYS-Net의 중추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CYS-Net의 효과적인 작동에 어려움을 드러내었다. 현재 CYS-Net의 경우는 광역시 센터와 시·도 센터의 경우 예산에만 차이를 두고 있고, 시·군·구의 경우에는 예산상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도시의 구분 없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황순길, 2013).

네트워크명	장점	단점	시사점
컴넷 (ComNet)	·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컴넷 지도자협의회의 구성원이 청소년, 학부모, 교사, 청소년 단체 등 다양한 인력으로 구성	·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어려움	·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의 인력구성의 중요성
청소년기관중	· 시·도, 시·군구 상담·지원센터	· 허브역할을 상담전문가	· 구체적 및 명확한 원스톱

<p>심의 학교폭력 지역 네트워크 모형</p>	<p>터: 허브역할과 학교폭력중심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경찰청, 학교 등), 2차(한국청소년상담원, 교육청, 경찰청 등), 3차(청소년 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등)안 전망의 수직적인 연계 형성</li> </ul>	<p>가 하고 있어서 상담이 외 역할의 한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 시·군구 상담·지원센터는 학교폭력과 위기청소년문제를 다루므로 학교폭력 전담기관 역할 수행 어려움</li> </ul>	<p>서비스 허브기관의 역할과 인력구성 필요</p>
<p>학교폭력 지원체계 모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중심의 제1수준(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과 교육청 중심의 2수준(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기관들의 상호 협력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와 교육청: 학교폭력 지원과 두 기간 연계의 어려움, 지역별 차이 존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내에서의 자원 활용과 연계망간의 협력 필요</li> </ul>
<p>Wee 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된 안전망 구축·운영하여 위기 청소년을 통합적으로 예방·지원</li> <li>·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및 정서적 지원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ee 클래스 인력의 전문성 결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적인 지식과 청소년 발달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 상담가 양성 필요</li> </ul>
<p>CYS-ne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통한 연계와 전문적·체계적 상담서비스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담당 전문 인력 배치하지 않음</li> <li>·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 전문가양성</li> <li>· 학교폭력전문가의 처우개선</li> <li>· 연계기관들과의 유기적 협조</li> </ul>

〈표 II-3〉 학교폭력관련 네트워크의 장단점 및 시사점

## 나. 학교폭력 네트워크 사례

### 1) 서울시 청소년폭력예방 호루라기센터

2013년 서울시 특성화사업으로 노원청소년수련관에서 서울시 청소년폭력예방 호루라기센터를 설립하였다. 호루라기센터에서는 청소년폭력예방 애플리케이션 개발(왜토리야), 호루라기학교(대안교실), 문화예술을 활용한 청소년폭력예방교육(뮤지컬과 인형극), 청소년 동아리(YANA와 우비), 학술연구 및 세미나 등 청소년폭력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호루라기학교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상계중학교와 시범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및 잠재적 가해자를 대상으로 체육활동, 몸테라피, 금연교육, 자전거 캠페인, 야영, 학부모 초대, 상담을 실시하여 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서로 간의 협동과 소통을 배우도록 한다. 또래상담동아리 활동인 청소년 동아리 우비는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상담자의 역할을 한다. 'YANA(You Are Not Alone)' 동아리는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는 청소년 및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을 위해 캠페인, 모금활동, 자원봉사활동과 토론의 활동을 한다(노원신문홈페이지, <http://nowon.newsk.com>, 2014.6.20.).

호루라기센터에서 중학생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호루라기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프로그램의 참여가 청소년의 폭력가해 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학교폭력의 허용적 태도와 공격성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학교적응유연성,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피해학생의 프로그램 만족도를 살펴보면, 두 집단의 학생들 모두 가장 유익했던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예방교육'이라고 응답했으며, 가장 힘들었던 프로그램은 '자전거캠페인'이라고 응답하였다. 가해학생의 경우에는 청소년 폭력예방 프로그램의 내용이 대체로 긍정적인 것에 반해 피해학생의 경우는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2013).

## 2) 전라남도교육청 담양고등학교 '지역주민, 학부모, 교직원, 학생이 함께하는 생활지도'

담양고등학교는 지역주민, 학부모, 교직원, 학생 등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순환시스템을 확립하도록 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등하교시 학부모가 생활지도에 참여하도록 하며,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상담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실시, 학생·학부모·교사가 참여한 공청회를 통해서 학교 규칙 제정 및 수정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사·학생·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Hot-line를 구축하여 학교 인근에 위치한 유해환경 순찰 및 생활지도를 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협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사회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과 예방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전라남도교육청, 2012).

## 3) 송파구 '학교폭력예방사업'

2012년 7월부터 송파구의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예방사업이 실시되었다. 이 사업은 학교폭력이 개인이나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총체적 책임이라는 인식 확산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학교폭력 예방사업은 학교폭력 예방 인프라 구축,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 조성 및 인성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울시 최초로 학교·지역사회·기관 전문가들이 함께 학교폭력 예방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송파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최초 조례상 ‘학교폭력 예방센터 설치·운영’을 명문화하였다. 이를 통해 매년 학교폭력에 관한 대책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의무화로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였고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직·간접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와 지역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지역사회 내에 있는 한국체육대학교, KACE, 패트롤맘, 사회복지관, 경찰서 등을 활용하여 협력망을 구축하였다(교육부, 2012)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교폭력 제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예방 프로그램 운영, 졸업식 문화개선 캠페인, 학교폭력 근절 자정결의 대회 및 예방 교육, 학생·학부모가 함께하는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 학부모 알리미 서비스 지원, 가·피해 학생 선도 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화과 소통 매뉴얼’ 제작 배포 등 청소년들에게 건전하고 안전한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인성교육에 관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젝트는 함께 사는 행복한 세상 ‘청소년 바른 인성교육’, 몸튼튼·마음튼튼·공부튼튼 ‘체인지(體·仁·知) 토요학교’ 운영, 한국체육대학교와 함께하는 ‘토요일에 만나는 동아리 친구들’, 행복한 학교·좋은 부모 아카데미, 바른 인성·행복한 사회 ‘인문학 아카데미’, 배려와 나눔의 인성교육, 자원봉사활동, 자신감을 키우는 ‘송파구학습능력키움센터’의 설치·운영 등이다(교육부, 2012).

#### 4) 대전광역시 해맑음센터

해맑음센터는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사)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위탁 운영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문 심리·예술 치유기관이다. 이곳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폭력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대안교육형 중·단기 위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숙형종합지원센터이다. 학교폭력의 피해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이 센터는 조기에 피해자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맞춤형 치유를 통한 자존감 및 학교적응력을 높이며 위기상황 극복 및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해맑음센터 홈페이지, www.uri-i.kr. 2014.6.14).

해맑음센터의 위탁교육은 시·도 교육청 Wee 센터에서 추천서를 심의한 후 위탁교육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한다. 위탁기간은 기본과정을 이수하고 심화과정을 희망할 경우 학생의 적응력 향상도 및 치유 정도에 따라 최대 3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탁학생 보호자는 4차례의 학부모 교육을 받으며 숙박비를 포함한 위탁교육비 전액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 센터의 교육과정은 기본교육활동, 공동체교육활동과 치유활동으로 나뉜다. 기본교육활동은 명상, 세미나, 관계형성, 학습코칭 등의 대안교과와 체험, 창작, 봉사, 동아리활동, 여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체교육활동은 공동체 철학, 생활 철학, 참만남, 해맑음 모임, 개인역할 수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치유활동은

초기진단, 개별상담, 집단상담, 인지행동, 가족상담, 현실요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센터는 대전대학교 아동교육상담학과·예술치료학과, 대전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내의 유관기관들과 업무협약을 구축하고 14개의 시·도 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다(해맑음센터 홈페이지, www.uri-i.kr. 2014.6.14.).

〈표 II-4〉 해맑음센터 위탁교육 운영방침

1단계	2단계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치유 필요성 발생</li> <li>○ 위탁교육 신청 신청서→ 의뢰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천서접수→추천서 심의→위탁교육 대상자 통보</li> <li>○ 위탁교육 대상자 서류 제출(학교생활기록부, 기타 학생 이해자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맑음센터입교→심리·치유프로그램 이수</li> <li>○ 이수증명서제출(학교) →학교생활→추수지도 →가족힐링캠프</li> </ul>

〈표 II-4〉 해맑음센터 위탁교육 운영방침

\* 출처: 해맑음센터. www.uri-i.kr 해맑음센터 소개자료.

네트워크명	장점	단점	시사점
청소년폭력예방 호루라기센터	·다양한 활동 (호루라기학교, 청소년 동아리, 학술연구 등)을 통한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프로그램내용면에서 가해·피해 청소년들의 요구를 대변하지 못함	· 체계적인 학교폭력 프로그램 구성
담양고등학교 생활지도	·지역사회가 Hot-line를 형성하여 유해환경 순찰 및 생활지도실시	· 학부모와 지역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의 어려움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 필요
송파구 학교폭력예방사업	·학교폭력이 총체적인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교육	· 학교폭력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전환의 한계	· 학교폭력해결을 위한 사회구성원들(청소년,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의 인식개선
대전광역시 해맑음센터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족의 상처 치유를 통한 학교폭력 재발 방지	· 각 학교의 모든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한계점	· 학교폭력 가해자·피해자 대상별 대응 프로그램 구성

〈표 II-5〉 학교폭력 네트워크의 장단점 및 시사점

## 다. 학교폭력관련 기관

### 1)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비영리공익법인(NGO)인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1995년 6월 학교폭력 피해로 외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리고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를 목표로 설립되었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5).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주요사업은 교사, 학생, 학부모, 전문가 교육 및 연수를 통한 학교폭력 교육실시와 학교폭력전문가 양성을 위한 민간자격증제도 운영이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홈페이지, [www.jikim.net](http://www.jikim.net), 2014.6.14). 이 재단은 사이버상담, 전화상담, 심리검사 및 학교폭력 피해자 무료면접상담, 내방·중재상담, 피·가해자 특별프로그램 등의 상담치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5). 최근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교육부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서 학교폭력화해·분쟁조정센터로 선정되었다. 학교폭력화해·분쟁조정센터는 화해조정프로그램, 분쟁조정프로그램, 갈등관리·코칭프로그램, 학교폭력예방 컨설팅, 자치위원회 자문, SOS긴급출동, 학교폭력 법률상담, 학교폭력솔루션지원단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홈페이지, [www.jikim.net](http://www.jikim.net), 2014.6.14.).

### 2)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이하 ONE-STOP 지원센터)는 정부에서 2001년 10월부터 소규모로 시범운영해오던 경찰병원 내 성폭력 의료지원센터를 개편하여 2005년 8월 31일 경찰병원에 국내 최초 ‘여성·학교폭력 ONE-STOP 지원센터’를 설치한 것에서 시작되었다(이병환·엄채춘, 2014). ONE-STOP 지원센터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피해자, 성매매 피해여성 등에게 무료로 24시간 의료, 상담, 수사에 필요한 진술 녹화 및 증거 채취, 법률지원, NGO연계 등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이다. 2014년 6월 기준으로 전국에 18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www.safel82.go.kr](http://www.safel82.go.kr), 2014.6.14).

ONE-STOP 지원센터는 117 학교·여성폭력 및 성매매자 긴급지원센터와의 긴밀한 연계를 하고 있다. 이 센터를 통해 전국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 신고 접수를 받고 ONE-STOP 지원센터에서 진술녹화, 피해자 조사, 112·117 및 각 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처리한다. ONE-STOP 지원센터는 법률지원, 의료지원과 상담지원의 업무를 담당한다. 법률지원 은 여성·학교폭력 전문변호사 등 무료법률지원단(50명)이 요일별로 센터에서 순환근무를 하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 소송지원과 범죄피해자 구조금 상담 등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 의료지원센터는 전담 산부인과 전문의와 응급의학과에서

24시간 진료한다. 상담지원은 사회복지사가 상주하여 피해자 안정실에서 조기안정을 도모하며 171센터 홈페이지와 실시간 연계를 통해 사이버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NGO 단체와 청소년 쉼터 등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www.safe182.go.kr](http://www.safe182.go.kr), 2014.6.14.).

### 3)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무부는 2005년 7월 소년원의 개방적인 교육운영체제 전환으로 2006년 12월에 법무부 및 교육인적자원부가 폭력없는 학교만들기 운동에 공동참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7년 7월에 시행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 2에 의해 전국 6개소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개설하였다(이병환·엄재춘, 2014: 210).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대상은 대안교육명령 처분을 받은 청소년, 교육조건부 기소유 예처분을 받는 청소년과 학교에서 학교폭력 등으로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다. 이와 같은 청소년들에게 사회 적응과 재비행 방지를 위한 대안교육, 법교육, 부모교육, 청소년 심리상담, 가족솔루션 캠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센터의 교육운영진은 비행청소년 지도경험이 풍부한 교사와 청소년관련학과·교육학·심리학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등이다(법무부, 2012; 조종태, 2013). 이 센터의 운영성과를 살펴보면, 2011년 교육수료자의 89.9%가 전체적인 교육과정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93.4%가 학업 및 취업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 2012).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과 학교폭력으로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 수의 증가로 청소년비행예방 프로그램의 수료인원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교육대상자의 접수 대기시간이 길어지게 되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학교폭력예방센터를 증설하고 지역적 편중 해소를 위해 미설치 지역에 연차적 설치를 계획하였다(법무부, 2012). 현재 2014년 6월 기준으로 전국 12개의 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주요기능	업무 내용
대안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일반학교 징계학생(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검찰 기소유예 대상자, 법원 대안교육명령자</li> <li>▪ 주요내용: 3일, 1주(35시간) 등 통학방식에 의한 단기 집중형 비행예방교육 (출석일수 인정)</li> <li>▪ 교육유형: 전문교육, 체험교육, 집단상담, 심리검사 등</li> </ul>
상담조사 (비행원인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법원 상담조사 명령 대상자</li> <li>▪ 실시방법: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에 주간에 출석하여 보호처분에 필요한 조사 및 인성교육 실시</li> <li>▪ 주요내용: 비행관련 조사, 비행예방교육</li> </ul>
법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초·중·고 학생, 소외계층 청소년, 교사 등</li> <li>▪ 주요내용: 실생활에 필요한 법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비행 예방, 집단따돌림 예방 교육 등</li> </ul>
청소년 심리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지역사회 소외계층 청소년, 일반 청소년 등</li> <li>▪ 주요내용: 심리검사, 개별·집단상담, 부모상담, 진로지도</li> </ul>
보호자교육 가족솔루션 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대상자·가정 법원 보호자특별교육 명령 대상자·가정, 부모-자녀관계 회복을 원하는 사춘기 자녀 가정</li> <li>▪ 주요내용: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및 1박2일/2박3일 가족캠프 운영</li> </ul>

〈표 II-6〉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주요기능

\* 출처: 조종태(2013).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 p. 156.

기관명	장점	단점	시사점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사이버 상담, 전화상담, 피·가해자 특별프로그램 등 상담치료를 실시하는 비영리재단	·학교폭력 피해자의 적극적 상담의 한계	·가해·피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허브기관 필요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여성 및 학교폭력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및 신속한 피해회복	·담당자들의 상담시간의 장기화 및 과중한 업무	·학교폭력 상담전문가들의 처우 개선 ·학교폭력 유형별 대응 프로그램 필요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특별교육이수처분대상 청소년들에게 법교육, 청소년 심리상담, 가족솔루션 캠프 등 실시	·청소년비행예방 프로그램의 수요증가로 인한 교육대상자들의 접수 대기시간 지연	·청소년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필요

〈표 II-7〉 학교폭력관련 기관의 장단점 및 시사점

### 3. 학교폭력 대응관련 지역사회 네트워크 국외 사례분석

이 절에서는 국외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관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미국, 노르웨이, 독일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법과 지역사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 가. 일본<sup>1)</sup>

2011년 문부과학성(文部科學省)의 「아동학생의 문제행동 등 학생지도상의 제반문제에 관한 조사(児童生徒の問題行動等生徒指導上の諸問題に関する調査)」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폭력행위 발생건수는 약 6만1천으로, 이는 학교폭력실태조사 이래 초·중학교 학교폭력 발생건수로는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또한 이 가운데 초등학교에서의 폭력행위발생건수가 7,115건으로, 이는 전년도에 비해 9.7% 증가한 수치이다. 문부과학성의 「폭력행위없는학교만들기연구회(暴力行爲のない學校づくり研究會)」(2011)의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증가요인으로 학생들의 성장 및 생활환경의 변화, 스트레스의 증가, 감정조절능력 및 의사소통능력의 저하 등을 들고 있다. 지역사회가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 즉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대응과 관련된 일본의 사례를 지역사회 비행청소년 예방 및 지원체계와 유스어드바이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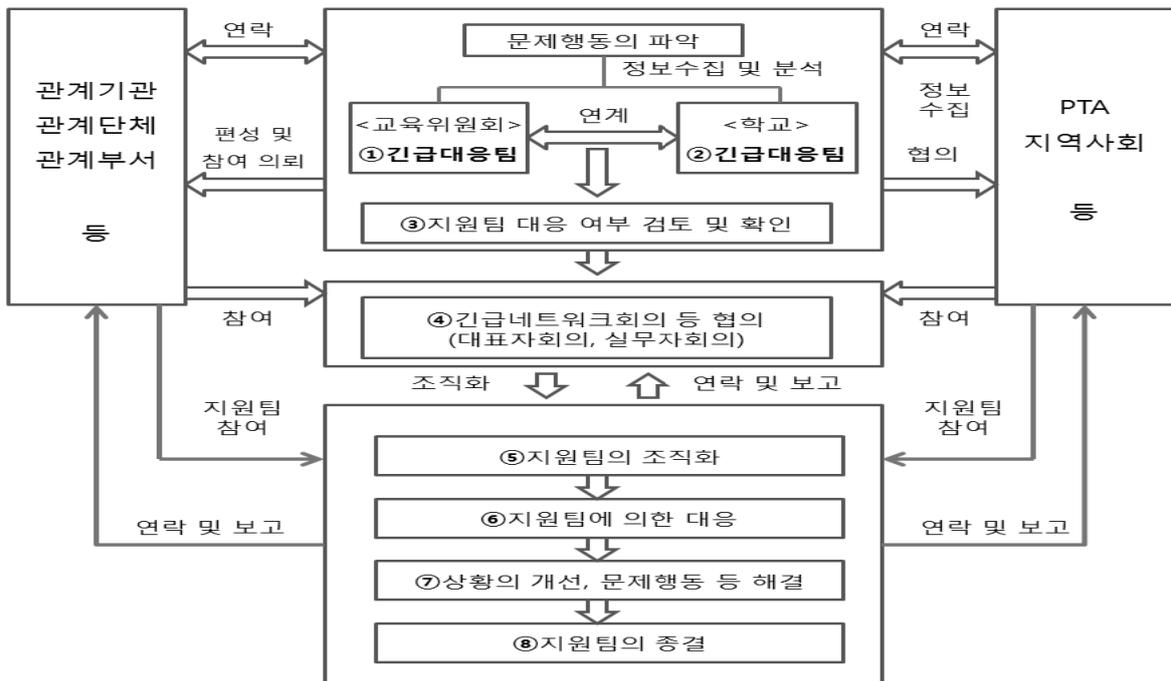
#### 1) 지역사회 비행청소년 예방 및 지원체계

학교폭력 등과 같은 문제행동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책으로 다수의 지역사회에서 학교, PTA, 교육위원회 및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원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림 II-7>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청소년폭력 예방 및 지원체계를 나타낸 모형도라 할 수 있는데, 이 지원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지원팀'이다. 지원팀은 크게 4가지 유형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째, 교육관계기관의 영역에서는 교육위원회, 학교, 교육시설들이 포함되며, 보건 및 의료관계기관에는 보건소, 정신보건복지센터, 병원 등 의료기관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복지관계기관에는 아동상담소, 복지사무소, 복지위원 등이 포함되며, 경찰관계기관에는 경찰서, 소년지원센터, 사법 및 교정관계기관에는 가정재판소, 소년감별소, 보건사회 및 보호관찰소, 인권옹호위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원팀의 주요역할은 각 급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

1) 일본 사례는 강영배교수(대구한의대학교)가 집필하였음.

력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공유, 문제학생의 지도, 보호자에 대한 지원 등이다.

한편, 지원팀은 크게 예방적 및 문제유형별 차원에서 운영된다. 먼저,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교사와 청소년간의 신뢰관계의 구축은 물론, 보호자 또는 지역사회, 관계기관간의 이해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지역사회차원에서는 폭력예방네트워크구축사업에 관련된 지원팀을 편성하여, 학교에서 발생하는 비행을 미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때 지원팀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는데, 첫째, 관계기관연계형 지원팀으로, 이 팀은 학교가 중심이 되어 보호자, 교육위원회, 경찰, 아동상담소, 민생·아동위원 등 관계기관이 연계하여 폭력행위의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둘째, 초·중학교연계형 지원팀으로, 학교교구(區)를 단위로 학구(學區)내의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폭력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편성된 팀이다. 또한 학구내의 유치원, 보육소, 고등학교가 이 팀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자치회연계형 지원팀으로, 학구내의 자치회장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다양한 행사에 청소년(자원봉사자 포함)을 모집하여 참여시킴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이를 통해 학교폭력이 발생하기 어려운 지역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茨城縣教育委員會,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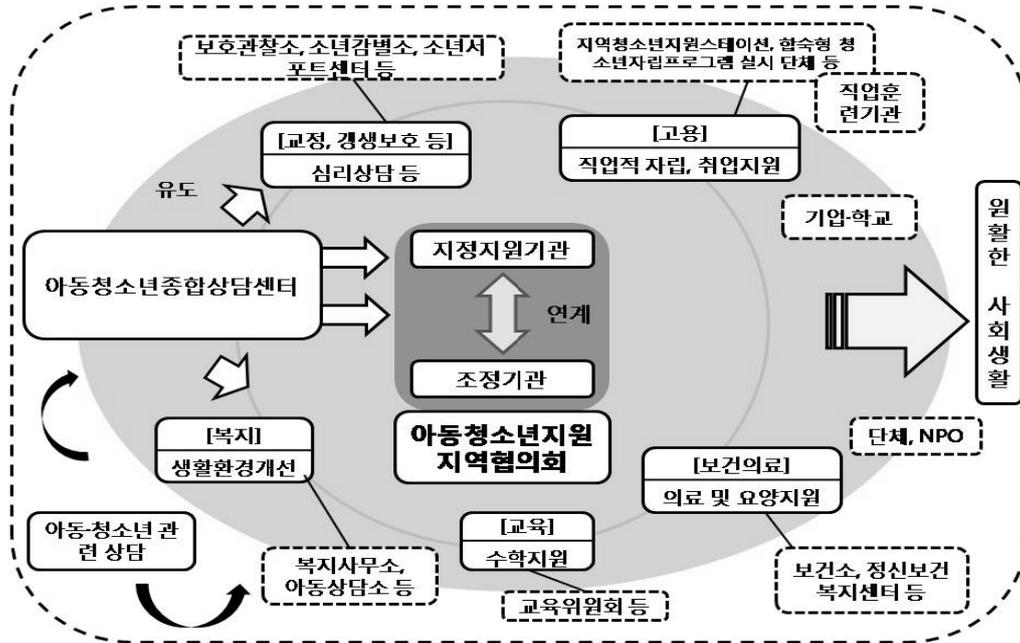
【그림 II-7】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학교폭력 지원체계

다음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의 차원에서 문제행동의 실태에 따라 지원팀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먼저 대형쇼핑센터중심형 지원팀으로, 새롭게 건립된

대형쇼핑센터 근처의 학교에서 지원팀을 편성하여 폭력행위를 포함한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둘째, 지역연합형 지원팀으로, 문제행동을 반복해서 일으키는 청소년이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이사를 한 지역에서도 비행집단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을 초월하여 지원팀을 편성, 운용한다. 셋째, 특별지원학교 연계형 지원팀으로,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특별지원학교의 특별지원교육코디네이터를 구성원으로 포함시켜 지원팀을 편성·운영한다. 넷째, 보호사(保護司)<sup>2)</sup>연계형 지원팀으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폭력행위가 발생한 학교에서는 폭력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와 PTA임원, 보호사로 편성된 지원팀을 운용한다. 다섯째, 개별지원팀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유형에 따라 상이한 구성원으로 편성된 개별지원팀을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 A팀은 폭력행위, 흡연을 반복하는 남자청소년 대응팀, B은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여자청소년 대응팀, C팀은 양육 및 보호시설과 연계한 대응팀, D팀은 등교거부청소년 대응팀 등처럼 문제양상에 적합한 구성원으로 편성된 지원팀을 운영한다(茨城縣教育委員會, 2011).

한편, 일본정부는 청소년문제 가운데 등교거부, 은둔형 외톨이와 같이 사회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학교 교육단계에서의 이지메, 가정불화, 폭력행위 등이 자리잡고 있다는 인식하에 2011년 7월,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크게 아동청소년육성지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체계의 정비와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이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동법 제19조 제1항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사회생활의 영위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 및 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아동·청소년지원지역협의회」를 설치하는데 힘쓰도록 요구하고 있다. 내각부(內閣府)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현재 15개 지역에 아동청소년지원지역협의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2) 보호사는 보호사법(保護司法)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비상근 국가공무원으로, 이들은 주로 범죄 및 비행소년의 갱생과 범죄예방을 위한 계몽 및 선전활동, 범죄 및 비행소년의 취업지원 등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II-8】 지역사회 차원의 청소년지원모델

위의 그림은 학교폭력을 보다 거시적인 맥락에서 지원하기 위해 YA(Youth Advisor)<sup>3)</sup>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중심형 지원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 모델에서는 YA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며, 이들의 학교졸업후의 진로에 관한 부분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모델에서는 청소년센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청소년센터에 소속된 YA는 지역의 청소년센터나, 지방자치단체, 교육관계기관, 복지관계기관, 취업관계기관 등에 배치된 YA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하여 학교폭력에 대하여 입체적인 지원을 도모한다.

## 2) YA(Youth Advisor, 이하 유스어드바이저)

유스어드바이저는 청소년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상담전문가이며, 지원에 필요한 관련분야 및 관계기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개별 청소년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며, 개별적 및 계속적 지원을 수행하는 청소년지도자이기도 하다. 청소년지원네트워크체계상에서 유스어드바이저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창구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분야에 걸친 상담에 대응하며, 지원대상자를 명확하게 사정하며, 적절한 대응이 가능한 상담 및 지원기관을 판단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상담, 지원기관을 소개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개

3) 內閣府(2012)의 자료에 따르면, YA는 현재 교육, 복지, 보건 및 의료, 취업지원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담전문가들로, 총 120시간의 연수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이 부여된다.

별적, 계속적 그리고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1). 유스어드바이저 지원대상은 니트, 은둔형외톨이, 등교거부, 장애, 비행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포함하여 13세에서 34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상황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수행하며, 취학, 취업, 그 전단계로서의 사회참여 등 사회적 자립으로 인도함을 지원 목적으로 한다(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1).

유스어드바이저는 현재 청소년지원과 관련된 분야(취업, 교육, 보건 및 의료, 복지, 비행관계 등)에서 지도자 및 상담원으로 활동 중인 전문가와 현재는 청소년분야에 종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프로그램에 기초한 연수 및 학습을 거쳐 유스어드바이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1). 이 연수 프로그램은 총 120시간으로 하며, 연수대상자가 소속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 항목은 경험연수 등에 따라 별도로 산정한다. 이 프로그램의 세부 개요를 살펴보면 첫째, 청소년지원네트워크의 개요와 유스어드바이저의 역할 및 업무를 이해하는 제도의 개요 및 업무내용 둘째, 소년을 둘러싼 상황 및 청소년이 안고 있는 문제 이해 셋째, 다양한 사회자원-관계분야의 제도 및 기관 등의 개요와 관계기관의 연계 넷째, 청소년지원네트워크상의 각종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을 학습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1).

#### 나. 미국

미국에서 학교폭력은 지난 수년간 연령, 성별, 학년에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으며(김상곤 외, 2013), 1997년 켄터키주 웨스트 파두카 총기 사고에서 2012년 코네티컷에 있는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에 이르기까지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에 발표된 미국 법무부 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12세에서 18세 청소년들 중에서 약 28%가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9%는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서 18%의 청소년들은 다른 청소년들로부터 놀림이나 모욕을 당한 것으로 보고하였다(Bureau of Justice Statistics, 2013). 이로 인하여 미국 사회에서는 학교폭력과 총기사고를 지금 해결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인권법(Civil Right Act)과 교육과 관련한 법률들(No Child Left Behind; Safe and Drug-Free Schools and Communities Acts; Bullying and Gang Reduction for Improved Education Act)에서 학교폭력에 관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주정부 차원에서는 미국의 49

개의 주(몬타나: Montana주 제외)가 학교폭력방지법(Anti-bullying legislation)을 보유하고 있다(김상곤 외, 2013). 학교폭력방지법의 목적은 학생들의 학습, 학교 안전, 학생의 참여 및 학교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학교폭력의 범위를 설명하는 것이다. 학교폭력의 형태, 종류 및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학교폭력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며, 교사, 학교 관리자, 학생, 부모님에게 어떤 학교폭력이든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4). 즉, 학생들의 학업을 방해하고 학교폭력을 일으킬 수 있는 반사회적 행동을 예방하고 개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모든 학교에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함을 느끼고 배움을 실천할 수 있는 학교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김상곤 외, 2013).

미국의 경우는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해 주정부 및 각 지방정부에 따라 정책 및 프로그램이 다르게 시행되고 있으므로 각 주체들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학교폭력 대응체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 1) 주 정부차원

### 가) 미네소타 주

#### ① 학교폭력 탈학습 계획(Unlearning Violence Plan)

미네소타 교육부는 모든 미네소타 주의 아동 및 청소년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학교폭력 탈학습 계획을 만들었다. 이 계획에서 제시한 폭력예방 7가지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이 자신의 장점을 파악하고 장점이나 보호요인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학부모와 교사가 가르쳐야 한다. 둘째, 교과과정에 친사회적이며 폭력을 예방하는 기술들을 통합시켜야 하며, 청소년들이 처한 문제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학생과 교사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카메라 및 금속 탐지기 설치를 통해서 폭력적인 행동을 줄이도록 도모한다. 넷째, 학교·학부모·보호자의 교육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부모나 보호자가 학교와 정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건전하고 긍정적인 학습 분위기와 학교의 환경 및 문화의 조성이다. 여섯째,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서 폭력을 줄이고 친사회적인 행동을 증진시키도록 한다. 일곱째, 문제해결에 대한 수용 가능한 방법들을 강조하는 사회적 규범을 변경하고 확립한다(전경숙·박종효, 2009).

#### ② 비폭력 지역사회 운동(Initiatives for Violence-free Families and Communities in Ramsey County)

이 프로그램은 1991년에 시작되었으며 지역사회 수준의 프로그램으로서 Ramsey

카운티에 있는 가정, 지역사회, 직장 내에서의 폭력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이 운동은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한 후 미리 대처하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폭력예방의 전략을 세우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 프로그램의 주된 관심사는 부모와 자녀의 애착이며 아동학대와 아동방임을 줄이고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인 대책 마련이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활성화팀(education action team)을 구성하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모든 연령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평화와 타인 존중의식을 발달시키기 위해 자원과 폭력방지대책을 개발하는 것이다(전경숙·박종효, 2009).

#### 나) 일리노이 주 「학교안전계획안(Safe at School: An Introduction to Safe School Planning in Illinois)」

일리노이 주는 학교에서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인식하고 1995년 일리노이 주 교육위원회가 학교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일리노이 주 계획안(A State Plan for Assuring Safety and Order in Illinois Schools)을 채택하였다. 이 계획안의 규정은 교육자, 사업 및 지역사회 대표자, 학부모, 법 집행 관리들과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심의를 기반으로 한다. 교육위원회 계획안은 각 학교가 학교안전에 대해 스스로 감사를 실시하여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을 인식하고 학교안전계획안을 개발하는 것이다(전경숙·박종효, 2009). 학교안전계획의 내용은 부모-교사자문위원회(parent-teacher advisory committee)와 학교자문위원회가 학생지도 정책안과 실행 및 학교구성원(학교, 학생, 교직원)들의 안전사항들에 대해서 일 년에 한 번씩 평가하도록 한다. 학생자문(감독)위원회를 구성하여 주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각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훈련지원, 재정지원 및 기술지원을 통해서 학교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한다(전경숙·박종효, 2009).

### 2) 지방 정부차원

#### 가) Boston: 종합 커뮤니티 프로그램

1994년 미국의 법무지원부(Bureau of Justice Assistance)에 의해 설립된 ‘종합 커뮤니티 프로그램(CCP: The Comprehensive Communities Program)’은 국가의 범죄예방과 범죄를 통제하는 사업이다. 보스턴은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도시 중의 하나이다. 이 프로그램은 범죄 감소와 시민의 안전성 확보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중요한 요소라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 이웃, 시민, 지역의 이해 관계자들의 상호 협력을 중요시 하였다. 보스턴 CCP의 구성요소는 전략적 계획과 커뮤니티 구성원의 노력, 청소년 서비스 공급자 네트워크와 감금대안네트워크로 이루어져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경찰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활동전략을 세우고 서로 협력하여 일한다. 청소년 서비스 공급자 네트워크(YSP: Youth Service Provider Network)는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과 그들 가족을 위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 수단이다. 감금대안네트워크(ATIN: Alternatives To Incarceration Network)는 청소년 봉사부, 보호관찰국, 서포크(suffolk)카운티 지방검사 사무소와 보스턴 경찰국으로 이루어져있다. 이것은 청소년 초범자와 비폭력 범죄자들을 구치소에 감금하지 않고 다른 안전한 곳으로 보낸 후 이들을 감시 및 관리하고, 약물남용과 생활지도 카운슬링, 직업교육과 일자리 소개와 폭력예방 프로그램을 거쳐 사회로 복귀시킨다(이민희 외, 2006).

#### 나) 지역사회 학교(Community Schools)

지역사회 학교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서 보스턴 남부지역의 거주자, 학교, 지역사회 기반의 단체, 보건센터, 주민 테스크 포스(task-force), 도시 에이전시, 그리고 법 시행처들이 연합하도록 한다. 이 지역사회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차원의 폭력예방과 안전한 커뮤니티를 형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시킨다. 이 프로그램의 주제는 안전한 하늘(Safe Heaven), 개인지도, 그리고 가족강화 서비스를 포함한다(이민희 외, 2006).

#### 다) Flint: 청소년폭력예방센터

Flint시의 '청소년폭력예방센터(FYVPC: Flint's Youth Violence Prevention Center)'는 청소년폭력예방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와 대학 보건부 파트너들이 협력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발달을 촉진하는 전략들을 개발·실행·감시한다. 이 센터의 목표와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청소년폭력예방 전략개발을 지원하는 기반을 형성한다. 둘째, 대학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지역사회에 기초를 둔 조직과 국가 및 현지 보건부와 관련된 다른 학문 분야의 접근을 증진한다. 셋째, 폭력예방 훈련을 제도화한다. 넷째, 평가 계획과 진행과정을 감시하는 감사시스템을 개발한다(이민희 외, 2006).

이 센터의 운영위원회는 학교, 법, 집행, 건강 치료, 사회 서비스와 지역사회 조직의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센터의 활동을 관리하기 위해 매달 모임을 개최하며 폭력예방사업 및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틀인 종합적인 모형을 만들었다. 이 운영위원회의 파트너들은 C.S.Mott 재단, Flint 지역사회재단, Flint-Genesee주 지역원탁회의, Flint 오디세이 하우스 건강인식센터, Genesee주 보건부, Genesee주 가정법원, Genesee주 가족독립기관, Genesys 건강체계, 산업상호협회, 미시간 지역사회 건강

부, 어머니 수감자자녀 멘토링, Mott 아동건강센터, 공공과 민간의 단체 및 기관들과 미시간 대학의 관련 학부와 관계자들이다(이민희 외, 2006).

## 다. 유럽 사례

### 1) 노르웨이

#### 가) 매니페스토

노르웨이 교육위원회에서는 2005년 초중등교육위원회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포함한 학습 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을 개발하였다. 매니페스토는 중앙정부,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지방자치단체, 학교와 유치원, 청소년 여가활동 단체가 모든 학생과 청소년을 위해 학교폭력 무관용을 원칙으로 상호연계를 통해 공동의 사업과 활동을 추진한다(전경숙·박종효, 2009).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매니페스토의 특징은 첫째, 교육법에서 학생들이 학교폭력, 괴롭힘, 인종차별 등과 같은 부적절한 학교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교사와 학교가 법적으로 책임질 것을 강조한다. 둘째, 학교폭력 무관용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성인들의 책임을 중요시하며 노르웨이 수상, 학부모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연합, 옴부즈맨 등 다양한 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셋째, 매니페스토는 정보 공유와 전달, 사회적 의식 제고 및 재정적 지원 등의 활동을 중점으로 한다(문용린 외, 2008).

#### 나) 올베우스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

노르웨이의 ‘올베우스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OBPP: Olweus Bullying Prevention Program)’은 1983년부터 국가차원의 학교폭력 대응 캠페인을 위해 개발되었다. OBPP의 목표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연루될 기회를 없애고,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며, 공동체 의식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OBPP의 기본 원칙은 학생과 긍정적인 관계 설정과 학생의 질적인 삶의 개입, 금지행동에 대한 제한 설정, 규칙이 무너졌을 때 비폭력적·비적대적으로 행동하기, 긍정적인 롤 모델의 역할 수행이다(김영광, 2013).

OBPP는 학교·학급·개인·지역사회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수준의 요소는 학교폭력 조정위원회(Bullying Prevention Coordinating Committee) 설립과 학교폭력에 관한 학교 규칙 도입과 학부모의 참여이다. 학급수준의 요소는 학교폭력에 관한 학교 지침 알리기와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정기적 학급회의 개최이다. 개인수준의 요소는 학생의 활동 감독과 학교폭력 관련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과 면담이다. 지역사회

회수준의 요소는 학교의 프로그램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파트너십 구축과 지역사회에 반학교폭력 메시지와 성공적 사례 전파이다(김영광, 2013).

## 2) 독일

독일의 학교폭력 정책은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신체적·심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Guender, 2012). 독일에서는 학교폭력에 관한 예방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학교폭력 예방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당국, 교직원, 학교사회복지인력, 지역 내 아동 및 청소년 서비스 실무자, 학부모와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학생들의 대처능력을 증진한다(Schulamts fuer die Stadt Muenster, 2008).

### 가) AgAG의 지역사회 폭력예방

독일에서는 1995년 3월부터 1996년 말까지 지역사회 내 폭력예방과 폭력추방 프로젝트를 전개하였고 1997년에 독일 연방정부의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지원하는 “공격성과 폭력에 대항하는 행동프로그램”인 AgAG프로젝트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하였다. AgAG의 이 보고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운영의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논제들을 다루고 있다. 즉, 폭력대책 참여자들은 지역사회 환경과 생활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책임감과 사회적 지원능력을 확대한다. 지역사회 내의 인적·물적 자원들을 네트워크화하고 협력하도록 하며, 지역사회 내 폭력대처 및 대응에 대한 대중매체의 참여와 여론조성 등이다(이민희 외, 2006).

### 나) 베를린 학교를 위한 비상대책방안

베를린 주 교육부는 학교에서 학교폭력 및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 폭력상황에 대한 정보를 종합한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학교, 청소년 지원, 학교심리학자, 경찰, 보건기관이 지침서 발간에 참여하였다. 지침서에서는 학교폭력에 필요한 지원체계 및 예방, 상담, 지원 프로그램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 지침서는 위험상황에 따라 학교폭력을 3단계로 분류하고 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① 개입 - 종료, ② 돌봄 - 피해자 지원 - 조치방안, ③ 알림, ④ 애프터케어 - 회복지원 - 예방, ⑤ 보충적 정보제공 등이다. 학교폭력 발생 시 필요한 추가적 정보와 처리 절차를 위해 서류작성법과 법 규정 등이 제시되어있다(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홈페이지<http://edpolicy.kedi.re.kr>).

2014. 6.14).

국가명	장점	단점	시사점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 등을 담당하는 청소년센터 존재</li> <li>· 청소년의 경제적 및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전문가인 유스어드바이저 존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스어드바이저의 연수기간과 시간의 적절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의 복합적인 문제를 이해하는 전문가 양성 필요</li> </ul>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리노이 주: 학교가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고 학교안전계획안을 개발하도록 하는 일리노이 주 계획안 채택</li> <li>·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비폭력 지역사회 운동</li> <li>· 폭력과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 커뮤니티 프로그램</li> <li>· 지역사회 및 대학 보건부와 파트너를 형성한 청소년폭력예방센터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활용한 청소년폭력프로그램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화된 프로그램 구축의 한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 대응 체계 구성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li> <li>· 학교폭력 유형·대상별 대응 프로그램 제공</li> </ul>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 무관용 정책을 바탕으로 학교·학급·개인·지역사회의 역할 강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학급·개인·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긍정적 및 적극적 참여의 한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사회적 인력과 자원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실시 필요</li> </ul>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과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지침서 준비(학교폭력관련 지원체계, 예방, 상담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관련 지침서 활용 문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관련 가이드라인 제공</li> </ul>

〈표 II-8〉 국외 네트워크의 장단점 및 시사점

#### 4. 학교폭력관련 서울특별시 조례분석

2004년 1월 29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책 및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제정되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 총 12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보완되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개입 등에 관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다루지고 있다. 특히 이 법에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기능, 운영(제9조, 제10조, 제10조의 2)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학교폭력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차원의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반면 서울특별시의 일부 구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을 근거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교육하여 건전한 학교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의 구차원에서 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서울특별시 조례 분석

현재 서울특별시에에는 시차원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16개(강동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중구, 중랑구)에서는 구차원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가 실행 중이다. 16개 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의 구성은 목적, 학교폭력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학교폭력대책협의회의 설치·구성·기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기능과 역할이 각 구마다 큰 차이가 없었다. 서울시 구차원의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다. 서울특별시 각 구청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고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장과 협의를 통해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구청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각 구에 학교폭력대

책지역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고 하였다.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 치료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과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상호 협력망 구축을 조정하고 자문하도록 하였다.

셋째,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의 내용을 명시하였다.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지역구의회의 의원,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청소년 선도·보호 단체 및 시설 청소년보호활동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람 등과 같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다. 지역협의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횟수는 각 지역구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서울특별시 17개 구의 조례를 분석한 내용은 <표 II-9>와 같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내용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와 중구 조례에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강북구 조례 위원의 임기(제8조)에 명시되어 있다.

둘째, 기본계획수립 또는 집행계획수립은 강동구, 동대문구, 영등포구와 중랑구 조례에 포함되어 있다. 강동구 조례 제5조는 '① 구청장은 매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등의 기본계획의 수립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셋째, 구민의 책무와 실태조사는 서초구, 성북구와 양천구 조례에 포함되어 있다. 서초구 조례에는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은 누구라도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에서 학교폭력이 근절되어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구민의 책무(제5조)에 관한 조례가 명시되어 있다.

넷째, 학교폭력예방센터에 관한 내용은 송파구와 영등포구에 포함되어 있다. 송파구의 조례에는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심리검사, 상담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송파구 학교폭력예방센터(이하 "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예방센터는 송파구 청소년수련관 내에 설치하며, 기존 송파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기능과 병행하여 운영하거나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등의 학교폭력예방센터(제12조)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지역구	공통점	차이점
강동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li> <li>· 학교폭력의 정의</li> <li>· 구청장의 책무</li> <li>· 다른 조례와의 관계</li> <li>·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교육</li> <li>· 학교폭력대책협의회 설치·구성·기능·운영</li> <li>· 시행규칙</li> </ul>	기본계획의 수립, 회의, 비밀준수 의무, 수당
강북구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사업비의 지원, 수당
노원구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사업비의 지원, 수당
도봉구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사업비의 지원, 수당
동대문구		기본계획의 수립, 회의, 비밀 준수 의무, 수당, 회의
마포구		적용범위, 위원장의 직무, 위원 임기 및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업비의 지원, 수당, 회의, 표창
서대문구		위원 임기 및 위촉해지, 사업비의 지원,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비밀 준수 의무, 수당, 표창
서초구		구민의 책무, 실태조사, 비밀 준수 의무, 표창
성동구		집행계획의 수립, 위원의 해촉, 수당, 비밀 준수 의무, 사업비의 지원, 표창
성북구		구민의 책무, 위원장의 직무, 수당, 실태조사, 비밀 준수 의무, 포상, 회의
송파구		위원장의 직무, 간사, 수당, 학교폭력예방센터, 기능, 예방센터의 운영위탁 및 비용
양천구		구민의 책무, 위원장의 임무, 실태조사, 표창, 비밀 준수 의무, 회의
영등포구		기본계획의 수립, 위원장의 직무, 위원 임기 및 위촉 해제, 학교폭력예방센터 설치·운영, 예방센터 기능, 예방센터의 운영위탁 및 비용 등
용산구		위원의 해촉, 사업비의 지원
은평구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수당, 비밀 준수 의무, 사업비의 지원, 표창
중구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수당, 비밀 준수 의무, 사업비의 지원, 표창
중랑구		기본계획의 수립, 위원장의 직무, 회의, 학교폭력 예방 지침

〈표 II-9〉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의 공통점과 차이점

## 5. 문제점 분석 및 시사점

가. 학교폭력 네트워크 모형의 인력구성인원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학교폭력 네트워크 모형인 2003년 방배유스센터에서 실시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형은 독일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컴넷’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방배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인력구성에서 독일과는 다르게 청소년, 종교단체, 법률전문가 등 중요한 구성원들의 참여가 결여되어 있었다(이민희 외, 2003). 또한 Wee 클래스의 경우 학교폭력 및 학교부적응 청소년에 대한 조기발견과 예방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므로 계약직이나 일반교사가 아닌 전문성을 갖춘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청소년의 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최상근·금명자·정진, 2011).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전문가로 일본의 유스어드바이저(Youth Advisor)처럼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춘 전문 상담가 양성이 필요해 보인다. 일본의 유스어드바이저는 청소년의 개별적 특성 및 문제를 정확히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이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유스어드바이저처럼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과정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청소년의 발달과 특성 및 문제점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전문 인력을 양성하거나 기존의 유사기관에서 배출되고 있는 전문 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나. 학교폭력 문제해결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안에서 실시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실시된 네트워크 사례들의 분석은 서울시 노원구 호루라기센터, 서울시 송파구 학교폭력예방사업, 전라남도 담양 고등학교의 생활지도와 대전광역시 해맑음센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 개선과 학교폭력을 학교 안에서만 해결하려 하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예방하고 치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어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송파구의 ‘학교폭력예방사업’은 학교폭력의 감소와 근절은 개인과 학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학교폭력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의 문제를 학교 중심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전반적인 분위기 조성과 학교·지역사회·전문가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해 보인다.

다. 학교폭력 전문가의 처우가 미약한 현실이다.

Wee 센터나 CYS-Net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들은 주로 상담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나친 상담 및 행정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 업무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고,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직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노성덕 외, 2011; 최상근 외, 2011). 따라서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전문가에게는 학교폭력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며, 그 이외의 청소년 활동, 복지와 행정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들을 투입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을 다루는 전문가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수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변화하는 학교폭력의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 연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라. 학교폭력을 다루는데 있어서 다른 연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결여되어 있다.

학교폭력 관련 기관인 CYS-Net은 지역사회와의 연계망은 잘 갖추어져 있으나 학교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Wee 센터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들의 문제를 학교 밖에서 개입함으로써 체계적인 피드백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춘화 외, 2010). 다시 말해서, CYS-Net은 1388청소년지원단과 다른 연계기관과의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때 위기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인데 연계기관간의 역할중복과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기관간의 연계망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Wee 센터의 경우는 학교폭력 및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치료기관 및 병원과의 협력체계를 잘 갖추고 있으나 연계기관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유진, 2011).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Wee 센터와 CYS-Net간의 협력을 통해 위기 및 학교폭력 청소년의 정보 공유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사례 판정과 슈퍼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 간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춘화 외, 2010). 또한 지역사회에 있는 청소년 유사관련기관들 간의 긴밀한 협력과 연계를 통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 학교폭력을 다루는 부처 간의 역할이 중복되어 있다.

여성가족부의 CYS-Net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 내 연계협력체계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여 위기에 처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교육청에서는 위기학생 통합지원체계인 학교안전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서 두 기관의

기능 및 역할이 중복되어 보인다(이유진, 2011). 이처럼 Wee 센터와 CYS-Net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긴급구호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부처 간의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바. 지역사회 내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주로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은 학교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거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수단으로 이루어져왔다.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의 담양고등학교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의 경우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학부모의 생활지도 참여를 권장하며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처럼 지역사회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교폭력 프로그램은 예방이나 치유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추후에는 지역사회 구성원과 지역사회 기관들이 학교폭력을 바라보고 대처하는 자세가 수동적인 측면에서 더욱 적극적인 능동적인 측면으로 바뀔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폭력 지역사회 운동’과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폭력의 사후 조치 및 처방보다는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을 미리 파악하고 예방 및 대처를 강조하는 폭력예방 프로그램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가정에서부터 학교 및 지역사회를 포함해야 하며, 특히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교육 및 역량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노르웨이의 ‘올베우스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의 경우 학교·학급·개인·지역사회 수준에서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였다. 학급수준에서는 정기적으로 학급회의를 개최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생각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있으며, 지역사회 수준에서는 학교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에 반학교폭력 메시지를 전달하고 성공적인 학교폭력 사례를 홍보하고 알림으로써 지역사회의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올베우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청소년·교사·학교·학부모·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실천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사안 처리에 대한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원과 자치위원회 위원장이 학교장의 지도·감독 하에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사안의 처리는 학교의 장이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

다. 학교폭력사안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처리를 위하여 자치위원회를 학교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구성 및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자치위원회를 학교별이 아닌 시·군·구별로 두고 위원 구성 시 판사, 검사, 변호사 2인 이상, 해당학교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1인 이상, 학생생활지도 경력 5년 이상인 교원 2인 이상,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가 2인 이상을 두도록 의무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이중 위원 과반수는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판사, 검사, 변호사나 경찰공무원, 의사자격이 있는 사람도 위촉대상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전문가가 위촉되어 있는 경우가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자치위원회의 전체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지역사회 전문가로 변경하여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사소한 사안까지 학교폭력으로 다루므로 불필요한 갈등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사소하거나 경미한 사안까지 학교폭력으로 다루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자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이 가장 큰 역할인데 대부분의 분쟁해결은 학교 내에서 자체 해결에 의존하고 있다. 원래 조정은 청소년전문가, 경찰, 변호사 등의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사건을 투명하고 원만하게 진행하여 재범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학교를 운영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승진, 교육청의 불이익 등을 이유로 자치위원회를 열지 않으려고 하고, 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결정을 내려도 가해자 부모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치위원회 심의를 열지 않고 있다(박상식, 2013). 따라서 학교폭력전담기구가 접수된 학교폭력사안을 자치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분쟁조정을 시도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운영책이 될 것이다.

차. 서울특별시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서울특별시에는 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이 되어있지 않다. 부천시와 인천시 등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가 제

정되어 있다는 점과 차이가 있다. 부천시의 조례에 따르면, '부천시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동 주민센터에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예방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등과 같이 학교폭력에 대한 시장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명확히 명시하였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도 학교폭력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차원에서의 학교폭력 관련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카. 지역 대책협의회 인적구성원이 학교폭력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서울특별시 17개 구의 지역 대책협의회 구성원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해당 구의회 의원,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 해당 구를 관할하는 경찰공무원,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판사·검사·변호사,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연구 기관에서 일정한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지역구 의원은 그 임기가 일정시기 정해져 있고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이 되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경찰공무원은 업무상 정기적인 자리이동으로 인하여 전문성을 결여할 우려가 크다(권오걸, 2013) 판사·검사·변호사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에 관한 업무를 상시적으로 접하지 않는다면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기구설치 및 구성원을 배치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학교 현장이나 지역현장에서 학교폭력을 직접적으로 다루며 폭넓은 경험을 갖추고 있는 현장중심가와 청소년 관련 학과 및 연구소에서 학교폭력을 연구하고 있는 이론가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청소년학과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를 특채공무원으로 채용하여 학교폭력의 전문성을 갖춘 행정공무원을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타. 지역 대책협의회 구성원들에게 형사사법기관에 대하여 고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의 수위가 주로 선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가해학생이 처벌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지역 대책협의회 구성원들이 상습적, 고질적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형사사법기관에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대책협의회 구성원들이 심각한 가해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의견을 나누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해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역협의회 구성원들이 형사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 학교폭력예방교육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갖추고 있는 해당 구의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의무적 및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안에 일정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대상, 시기, 장소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정한 예산을 확보하여 이런 예방 교육 및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유기적이 협력이 결여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조례 제10조(학교폭력 예방 지킴이 등)에 의하면 '구청장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예방 지킴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다. 이처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역할이나 협력 등에 관한 조례 조항을 서울특별시 각 구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부천시와 창원시의 경우 '시장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동 주민센터에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예방 지킴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제10조)' 또한 '지킴이는 학교주변 및 취약지역 순찰과 예방캠페인 등 각종 학생계도 활동을 할 수 있다(제7조)'고 하였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학교폭력을 목격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학교폭력의 발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역할 강화와 학교폭력 대처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 Ⅲ. 학교폭력 대응관련 지역네트워크 현황조사

#### 1. 청소년관련기관 학교폭력 대응관련 사업 현황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예방 및 사후 조치 지원 등의 대응으로서 마포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들을 조사하였다. 청소년기관을 중심으로 학교폭력과 관련한 기관과 사회봉사 및 심리치료, 진로체험 등의 지원 서비스가 가능한 기관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관을 통하여 청소년기관 및 관련 기관들의 학교 폭력 관련 사업 현황을 조사하였다. 청소년기관 및 관련 기관으로서 조사 대상에 선정된 기관과 조사내용은 <표 Ⅲ-1>과 같다.

#### 가. 조사 대상 및 내용

조사 대상	조사 내용
청소년수련관 A청소년문화의집 B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관련 사업구조</li> <li>○ 학교폭력관련 교육프로그램 현황</li> <li>○ 학교폭력 전담 인력 및 예산 배치 현황</li> <li>○ 연계사업 구조(학교 및 지역사회)</li> <li>○ 학교폭력 대응관련 제공 가능한 서비스</li> <li>○ 학교폭력 대응관련 지원에 대한 발전방안</li> </ul>
Wee센터 청소년자활지원관 고용복지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A대안학교 B대안학교 자원봉사센터 보호관찰소 경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 대응 지원 현황</li> <li>○ 학교폭력 지원가능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해 및 피해 학생 대상</li> <li>- 학부모 대상</li> <li>- 교사 대상</li> </ul> </li> <li>○ 연계 현황</li> <li>○ 학교폭력 대응관련 지원에 대한 발전방안</li> </ul>

<표 Ⅲ-1> 조사 대상 및 내용

## 나. 조사 기관 및 면담 대상

2014년 5월 23일~6월 20일까지 조사 대상 기관을 방문하여 관련 업무 팀장 및 담당자와의 면담이 진행되었다. 면담시간은 각 1시간 정도씩 진행되었으며, 사전 동의 하에 녹취하였다. 이에 대한 자료를 모두 전사하여 학교폭력 관련 현황을 분석하였다. 방문 조사의 면담 대상자는 <표 Ⅲ-2>와 같다.

구 분	기관	면담대상	성별	연령	
청소년 기관	기관1	청소년수련관	부장	여	40대
	기관2	A청소년문화의집	팀장	여	30대
	기관3	B청소년문화의집	팀장	남	30대
	기관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	여	30대
관련 기관	기관5	Wee센터	실장	남	30대
	기관6	청소년자활지원관	담당	여	20대
	기관7	고용복지지원센터	팀장	여	30대
	기관8	건강가정지원센터	담당	여	20대
	기관9	정신건강증진센터	담당	여	20대
	기관10	종합사회복지관	담당	여	30대
	기관11	지역아동센터	담당	여	50대
	기관12	A대안학교	팀장	여	30대
	기관13	B대안학교	담당	여	30대
	기관14	자원봉사센터	담당	여	20대
	기관15	보호관찰소	담당	남	30대
	기관16	경찰서	담당	여	40대

<표 Ⅲ-2> 방문 면담 기관 및 면담 대상자

다. 기관별 조사 내용

1) 청소년수련관

학교폭력 관련 조사	현 황	비 고
사업구조	학교폭력 사업 구조 없음	
교육프로그램	학교폭력관련 교육프로그램 없음	
전담인력 및 예산	학교폭력관련 업무 전담 인력 및 예산 없음	
연계사업 구조 (학교 및 지역사회)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는 없음	학교 C·A 등 다른 사업 진행에 따른 지역사회 내 학교와의 연계는 있음
제공 가능한 서비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학교 폭력 예방 차원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존재함 (카카오톡캠프 등)	카카오톡캠프 : 학급 친구들과, 담임선생님과의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 (학급 내 응집력 강화)
발전방안	‘학교폭력예방센터’등 별도 기관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학교폭력 예방 및 조치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것 필요함	

〈표 Ⅲ-3〉 청소년수련관 사업현황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업 구조 및 관련 프로그램은 없었다. 따라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전담 인력 및 예산도 없었다. 연계사업 구조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과 관련하여 학교와 긴밀한 연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없었다. 그러나 현재 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좋은 학급 만들기 ‘카카오톡캠프’와 같은 프로그램의 경우 학급 친구들과의 소통과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었다.

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하여 대응 방안 및 지역사회 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센터’ 등과 같은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지역사회 내 허브 기관을 두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관련 기관들의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업무의 조정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예방센터 같은 것을 자치구에 하나를 두면 그 기관이 허브역할을 하면서... 왜냐하면 이 기관들은 모두 다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 대상이 우리기관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지, 이 기관에서 해야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대상자들을 구분하는 것부터 해서, 어느 기관에서 치료를 했으면 좋겠는지, 프로그램에 참여시켰으면 하는지... 학교폭력은 그야말로 여러 가지, 몇 백가지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일 뿐 인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실 효과성은 없죠. 그러니까 딱 주도할 수 있는 기관이 있고 그 기관에 예산이 배정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수련관이라든지 대안학교, 이런 곳에 해주면 교육프로그램은 대안학교에서 하고 활동은 수련관에서 해라, 상담·심리 쪽은 이쪽 심리치료는 상담복지센터 쪽에서 해라 그리고 더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신보건센터에서 맡아줘라... 이런 식으로 구체화 할 수 있는 지시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좋은 거죠.

(기관1 부장)

청소년수련관은 기존에 다른 사업으로 지역사회 내 학교와 긴밀한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폭력관련 사업은 아니지만 수련관 내에서 운영하는 '제주도 하이킹 프로그램'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나도 해냈구나.' 라는 성취감을 느낀다고 한다. 성취감을 통하여 다소 위축되어 있거나 모든 것에 귀찮아하는 성향을 나타내는 참가자들의 내부적 변화를 보게 되었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학교폭력의 가해 및 피해 청소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2) A청소년문화의집

학교폭력 관련 조사	현 황	비 고
사업구조	학교폭력 사업 구조 없음	
교육프로그램	캠페인 및 일반적 교육활동,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 기획 (2014시행 예정)	특화사업으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음
전담인력 및 예산	학교폭력관련 업무 전담 인력 및 예산 없음	

연계사업 구조 (학교 및 지역사회)	학교폭력 예방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와 연계하고 있음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운영 시 강사 섭외 등 향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를 계획하고 있음
제공 가능한 서비스	문화의집 내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어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학생들에 대한 상담프로그램 제공 가능	
발전방안	‘학교폭력’ 관련 사업으로 학교에 접근할 경우 꺼려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학교폭력 보다는 사회성 향상 등 다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함	

〈표 Ⅲ-4〉 A청소년문화의집 사업현황

A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학교폭력 사업 구조 및 관련 전담 인력·예산은 없었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을 특화사업으로 하여 캠페인 및 교육활동, 부모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와 연계를 하고 있었다.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과의 연계는 없었으나 향후 학교폭력예방 교육과 관련한 강사 섭외 등 지역사회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었다. 조사한 청소년문화의집에는 상담실을 갖추고 있어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학생들에 대한 상담지원 서비스는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보통 청소년문화의집을 찾아오는 청소년들은 학교폭력의 피해자이더라도 어느 정도 건강한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사례를 처리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청소년운영위원회(이하 청운위)를 운영하고 있는데 청운위를 운영하면서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학생들의 사례를 접하는 경우는 있었다. 자주 접촉이 있는 청운위 담당 지도자가 상담을 전공한 지도자였고 이미 친숙한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이야기가 진행되었다. 이를 발견한 지도자는 해당 학생을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과 함께 상담을 병행하면서 치유 과정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학교폭력이 발생을 했을 때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거예요. 갈등을 해결한다든가 상담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던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게 없죠..... (중략) 청운위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가

해자가 되는 경우까지... 그런데 다행히 청운위를 담당하시는 분이 상담을 전공하신 분이였어요. 그래서 그 분과도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런데 그 상담이라는 것이 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스케줄을 정해서 하는 상담이 아니라 아이가 청소년문화의 집을 자주 방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통해서 활동도 다 하게하고 하면서 아이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중략)... 피해학생이거나 그런 아이들은 능동적이라든가 사람이랑 잘 어울린다고든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익숙한 사람에게 이야기하길 원하고 그것도 어렵사리 꺼낸 이야기인데 그걸 누군가가 또 전달해야 하고 그렇기 보다는... 매일 만나는 선생님과과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기관2 팀장)

A청소년문화의집은 상담실을 운영한다는 기관의 특이성이 있었다.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사후 상담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심층적인 상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연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시한 면접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가해 및 피해 청소년의 경우 친숙하지 않은 전문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들은 낯선 전문가 보다는 신뢰를 형성한 친근한 선생님에게 자신의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또한 피해청소년이 가해청소년으로 된다는 것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 3) B청소년문화의집

학교폭력 관련 조사	현 황	비 고
사업구조	아직 초기 단계이기는 하나 일반예방교육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문화콘텐츠를 접목한 다른 형태의 예방교육을 기획하고 있음 2014년도 학교문화개선 프로젝트 '친한친구 맺기(서약을 통해 찬한 반 선 발)'	지역유관기관과 이슈화하여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의식전환이 될 수 있는 캠페인 등 준비
교육프로그램	학교폭력관련 교육프로그램은 없음	
전담인력 및 예산	학교폭력관련 업무 전담 인력 및 예산	다른 업무와 병행하는

	없음	담당자는 지정되어 있음
연계사업 구조 (학교 및 지역사회)	행복한 학교, 안전한 학교 등의 사업을 통해 연계 준비 지역사회내 다른 청소년문화의집과 연계	향후 마포구청, 마포경찰서 및 공덕지역내 기업 등을 연계하고자 함
제공 가능한 서비스	부모특강 가능 사회봉사 조치가 발생될 경우 봉사활동이 가능한 기관 연계 가능	2014년도 2회 부모특강을 실시함. 본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도움을 청한 사례 있음
발전방안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만 많은 관심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사회 내 기관을 통하여 학교폭력 발생 시 즉시적인 대응 필요함	

〈표 Ⅲ-5〉 B청소년문화의집 사업현황

B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개관 초기로 아직 구체적인 학교폭력 사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담 인력은 아니더라도 학교폭력관련 담당자를 지정하여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한 다양한 측면의 접근을 모색하고 있었다. 일반교육프로그램이 아닌 문화적인 형태의 학교폭력예방 사업을 기획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교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접근을 계획하고 있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으로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치료나 치유 과정은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한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번에 새로 준비한 것은 말씀드린 문화적 콘텐츠, 학교 문화를 개선해 보자 이런 식으로 친한 친구 7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매년 애플데이라든지 뽀뽀로데이처럼 이벤트 데이로 지정하고,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되새김질 하면서 좀 정착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해 보자고 해서 ‘친한 친구’를 기획하고 있고요...(중략)...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에서 치료나 치유의 과정은 건들이기 어려울 것 같고요. 상담사가 상주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문화의집 구성원들이 그런 전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기본적인 상담이나 전문기관에 연계를 할 수 있는 있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예방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략)... 기본적으로 학교폭력은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감추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들어갈 때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세우려고 했었고, 친한 친구'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으로 기획되었는데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전면에 내세우기 보다는 여러 가지 이면적인 요소들 중에 학교폭력을 하나로 잡고 '행복한 학교, 안전한 학교'이런 식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학교에서 받아들이기가 쉽고 참여하기 쉬울 것 같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관3 팀장)

B청소년문화의집은 학교폭력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또한 학교 내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취지의 기획으로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폭력은 문제 발생 시에만 많은 관심을 받는 측면이 있는데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알고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교와의 연계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연계 형태가 달라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 관련 조사	현 황	비 고
사업구조	<p>전체 상담 프로그램 중 일부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업 진행 (개별적이지는 않지만 프로그램 안에 관련 청소년들 일부 참여)</p> <p>예방차원에서 학급단위의 학교폭력예방 또는 사회성향상 프로그램으로 진행 (전체적인 학급 분위기 조성)</p>	<p>2013년 '오미자힐링캠프'의 경우 3분의 1정도가 학교부적응과 학교폭력에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이었음</p> <p>가해 및 피해를 나누기 보다는 방관자를 포함한 전체 학급 단위로 진행함</p>
교육프로그램	<p>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 프로그램)</p> <p>학교폭력 개입 프로그램 (학교폭력예방 품성계발 집단상담 등)</p> <p>학교폭력 관련 치유프로그램 (마포구 위기청소년 힐링여행 사업)</p> <p>학교폭력 관련 교육 사업</p>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강사 양성교육)	
전담인력 및 예산	학교폭력관련 업무 전담 인력 및 예산 없음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진행함
연계사업 구조 (학교 및 지역사회)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있으나 학교폭력과 관련한 연계가 아닌 청소년 지원체계 사업 전체의 연계 속에서 일부 이루어짐	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지관, 청소년문화의 집, 건강가정지원센터, 경찰서 등
제공 가능한 서비스	현재 청소년동반자(YC) 제도를 통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시행 (Wee센터, 학교, 보호관찰소 및 경찰서 등에서 상담 의뢰 시 관련 상담 가능)	가해청소년을 위한 특별수강 프로그램은 특별교육선정기관에서만 가능 (현재 선정기관 아님)
발전방안	사전에 학급 또는 교내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함 적극적 예방이 최고의 대응이 될 것임	

〈표 Ⅲ-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현황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청소년과의 상담업무를 통하여 학교폭력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 상담 전문기관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폭력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더라도 지역사회 내 많은 기관과 연계를 하고 있었다. 또한 청소년동반자(YC) 제도를 통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본 사업을 제외시켰다고 한다. 그 이유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이 강경해지면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조치에 대한 것은 Wee센터가 전면 수용하고 그 외의 흡연 등 기타 다른 문제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을 본 기관에 의뢰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전담 인력 및 예산은 없었고 다른 사업과 병행하여 학교폭력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폭력관련 전담인력 및 예산에 대한 것은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른 지역의 상담센터의 경우 자치구에서 예산을 마련하고 거기에 한 명에 대한 전담인력까지 포함해서 사업비와 함께 상담센터에 보내더라고요. 그 분은 그 업무만 하시는 거죠. 저도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학교폭력이 학교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학부모한테 개입을 하려면 집중되어야 하는 사업이에요. 상담사 입장에서 학교폭력은 또 다르거든요. 법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알아야 하고 그 쪽에 네트워크도 탄탄해야 개입이 용이하고

그리고 중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꼭 이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중략)... 학교에서 해결이 잘 되면 가장 좋은 거예요. 학교에서 잘 진행되면 저희 기관들이 예방차원에서 어떤 필요한 자원과 예방을 도와주는 형태로 가면 가장 좋은 건데. 사건이 벌어졌을 때의 문제가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어쨌든 1차적으로 가장 피부에 와 닿게 먼저 만나는 사람은 부모님 아니면 학교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이들이 굉장히 짧은 다음에 만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미 상황이 악화되고 가해자 피해자 완전 등 돌리고, 피해 아이는 더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에서 그 때서야 저희가 개입해서 들어가는 정도는 저희의 어떤 것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거죠... 어느 한 곳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그런 모든 것들이 지원시스템 안으로, 그 기관들의 역할들이 최대한 살려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 활용하고 그것들이 같이 돌아가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기관4 팀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학교폭력예방사업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학교폭력예방 Good Start프로그램 및 마포구 위기청소년 힐링여행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학교폭력 개입 프로그램으로 학교폭력(예방) 품성계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는 학교폭력 사건의 발생과 관계한다기보다는 학습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간다는 차원에서의 접근이었다. 또한 실제 학교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조치가 발생될 경우 본 기관에 전화해서 바로 아이들을 받아달라는 식으로 요청이 오는데, 이럴 경우 사전 과정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에 대응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면접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상담 과정과 학교폭력 대응은 상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처리에 대한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 5) Wee센터

학교폭력 관련 조사	현 황	비 고
대응 지원 현황	학교, 학부모, 청소년 요청 시 대응 가능 위기 상황의 경우 즉시 개입 (분리, 경찰의 조치, 정신과 상담 등)	학교지원경찰관 연계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교 폭력 사안처리 상담 및 교육)

<p>지원가능 서비스 (학생, 학부모, 교사)</p>	<p>학교폭력 및 부적응 프로그램 진행 피해자 및 가해자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진행함</p> <p>학부모 대상 -엄마표상담학교(정서지원방법 등) 진행 -가해 학부모대상 교육프로그램 진행</p> <p>교사대상 -Wee스쿨, 담임교사 등의 상담실무교육 진행</p>	<p>피해자 : 도덕성 및 가치 관 훈련 프로그램 진행</p> <p>가해자 : 특별이수교육 및 출석정지 프로그램</p> <p>* 자치위원회의 선도 조치 중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는 모두 본 기관에서 진행함</p>
<p>연계 현황</p>	<p>관내 경찰서와 정기적으로 협의회 진행 교육청 및 학교와 연계함</p>	<p>문서 및 전화를 통한 업 무 협의</p>
<p>발전방안</p>	<p>구체적 가족치료 프로그램 진행 필요함 가해 및 피해 대상 적용 프로그램의 개 발과 이에 대한 효과성 검증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인력 및 예산 지원 필요</p>	<p>이벤트성이 아닌 상시적 부모대상 프로그램을 마 련하고 이에 대하여 자유 롭게 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p>

〈표 Ⅲ-7〉 Wee센터 사업현황

Wee센터의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프로그램 제공과 위기 상황에 대한 긴급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가해자 및 피해자 대상에 따른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가해 학부모대상 교육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자치위원회의 선도 조치 사항과 관련하여 특별교육이수는 모두 본 기관에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학교 및 경찰서, 교육청과 긴밀한 연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기관에서 제시한 특별교육이수 학교 폭력 관련 마포지역의 2013년도 통계를 보면, Wee센터 교육 진행 건 기준으로 초등학교 4건, 중학교 30건으로 총 34명(고등학교 없음)이 특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교육이수의 경우 일부는 본 기관에서 일부는 타 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합니다. 연계하는 기준은 학교폭력 사항은 저희가 다 100% 소화를 하는 부분이구요 지역기관으로 보내는 것은 흡연문제, 벌점문제, 출결문제 등... 초반에는 학교폭력사항도 다른 기관에 보내봤더니 그런 곳에서는 주로 집단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타 지역 학생들과 친해져서 새롭게 뭔가를 조직하거나... 더군다나 중학생이 왔는데 고등학생과 함께 교육하게 될 경우 형들이랑 친해져서 자기 일에 형들을 끌어 들여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중략)... 상

답을 진행하다 보면 가정하고 연결된 부분도 많아요. 이혼가정, 편부모 가정, 조부모 가정이라든지, 폭력가정이라든지 또는 경제적으로 빈곤해서 부모님 사랑에 갈구를 하고 있거나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 차원에서 생활비 지원이라든지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Wee센터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기관이라서 부모님의 개인적인 문제에 접근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해서는 부모상담 부분이 연계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기관5 실장)

Wee센터는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등 위기학생에 대한 진단·상담·치유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 수립·시행, 통계관리, 평가 및 개선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등 대상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다만 면접조사내용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부모 상담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 개입은 어렵다는 측면이 있었다. 발전방안에 논의되었던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및 효과성에 대한 연구와 함께 가족 치료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6) 청소년자활지원관

학교폭력 관련 조사	현 황	비 고
대응 지원 현황	학교폭력 대응 지원 관련업무 없음	탈학교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하다보면 학교폭력 관련 청소년인 경우가 있음
지원가능 서비스 (학생, 학부모, 교사)	가해 및 피해 학생들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 측면에서 서비스가 가능함  부모대상 지원 서비스로는 자녀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부모자녀 교육 시행	상담 측면에서 MBTI 측정 가능
연계 현황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대상 발굴 및 사후관리 진행  학교폭력관련은 아니지만 키다리청소년	

	<p>네트워크를 통하여 위기청소년(탈학교, 가출 등)을 발굴하여 지원</p> <p>주민자치센터의 주무관 및 사회복지사를 통하여 사례 발굴 및 개입</p>	
발전방안	<p>학교폭력 예방교육 필요</p> <p>청소년들을 만나는 지도자 및 교사에 대한 관련 청소년의 낙인감 없애주기, 비밀보장 등 필요</p>	

〈표 Ⅲ-8〉 청소년자활지원관 사업현황

청소년자활지원관의 경우 탈학교 학생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자립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따라서 학교폭력 대응에 대한 지원 업무는 없었다. 다만 탈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해 또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되고 이에 대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는 측면이 조사되었다. 또한 가해 및 피해 학생들에 대한 사후 관리 측면에서 진로탐색 등의 서비스는 가능하였다. 동주민센터에서 자활교육을 의뢰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이의 경우 의뢰 받을 때는 알지 못했지만 지원업무를 위한 상담 과정에서 학교폭력 피해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동주민센터를 포함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리고 키다리청소년네트워크를 통하여 다른 기관과 연계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저희 기관에서 학교폭력 쪽 지원은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는 거의 사후, 학교폭력에 의해서 나오게 된 탈학교 양들에 대해 후 지원 정도를 하고 있어요... (중략)... 요즘 같은 경우는 나오는 청소년들도 가해가 많고 해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꺼려해요.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아니고 학교 측에서 학교폭력이 있었다는 거 정도나. 그 정도까지 하고 더 이상은 밝히는 걸 엄청 말하기 싫어하고... (중략)... 일단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엔 기초생활수급권자나 담당 구역에 따라서 상담을 하고 사례 개입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담당 사회복지사나 담당 주무관이 그렇게 해서 안타까운 아이가 있는데 지원을 생각한다. 그래서 이곳에 지원 받을 수 있냐고 오죠.

(기관6 담당)

청소년자활지원관은 마포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역자활센터를 이용하는 참여자의 자녀에 대한 진로 지원 및 자립지원과 함께 탈학교 학생들의 자립

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진로탐색과정, 자립지원과정, 개인역량강화과정, 가족역량강화과정의 프로그램 등 저소득 청소년과 그 가정에게 다양한 자립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었다. 면접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되는 가해 및 피해 청소년들은 자신들을 드러내는 것을 기피하였다. 또한 그런 사항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던 것으로 보인다. 타 기관과의 연계 과정에서 해당 청소년들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7) 고용복지지원센터

학교폭력 관련 조사	현 황	비 고
대응 지원 현황	학교폭력 대응 지원 관련업무 없음  타 기관을 통해 의뢰된 대상에 대해서는 심리·직업검사를 실시하고 본 기관의 사례관리 담당자가 대상자를 관리함 (향후 직업체험 등 인턴십의 기회 제공)	학교폭력관련 지원 업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사회 내 사례 대상이 의뢰될 경우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 지원
지원가능 서비스 (학생, 학부모, 교사)	다른 유관 기관을 통하여 가해 및 피해자 대상 진로교육 등의 요구가 발생될 경우 '비전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원 가능	고등학생 대상 진로아카데미 프로그램 진행 (추후 취업 목표)
연계 현황	밴드 및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와 연계하고 있음 (지역사회협의체의 통합사례분과 참여)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와 연계하여 지원이 필요한 대상 발굴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청소년수련관, 정신보건센터 등  연계업무에 담당자 지정
발전방안	학교폭력의 가해 및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내 지원을 통하여 가족 내 문제 요인 제거로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할 것임 (부의 실업 및 부모의 장애 정도,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	

〈표 III-9〉 고용복지지원센터 사업현황

고용복지센터의 경우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별도의 지원방법이나 사업은 없었다. 다만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에서 본 기관의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요청이 올 경우 그에 대한 서비스는 수행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사례관리 담당자가 지정되어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특정 대상자를 타 기관에 연계할 때 중요한 부분으로 제시되었다. 학교폭력에 국한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역사회 내 연합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발생된 문제에 대해 연계된 여러 기관이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동일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계된 기관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사례회의를 해요. 하나의 사례를 얘기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이 친구들을 여러 가지 도와주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자원이 형성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 케이스를 얘기하면 고민했던 부분들이 그 회의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아 그럼 우리 센터로 와.”혹은“이 친구 정신적인 우울증 치료가 필요한데 그 우울증 치료 어떻게 할까?” 정신보건센터에 있는 담당선생님이 와서 우리 쪽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무료일 수도 있지만 유료의 프로그램이 있다면 “유료의 프로그램은 우리 센터가 후원해 줄게요. 그냥 오세요.”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그 케이스 중에 이 친구가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 고3학년 경우에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 친구는 취업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친구가 어떠한 직업을 하고 싶은지 우리가 심리검사와 직업검사를 하겠다. 그리고 이 꿈에 대해서 만약에 그 친구가 할 의향이 있다면 우리가 교육후원을 연결해 드리겠다. 지역사회 내 학원을 무상으로 연결해 준다던지...

(기관7 팀장)

고용복지지원센터는 취업 지원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취업비전 찾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취업실전 CLASS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미취업자 및 청년·중장년층 구직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사된 바와 같이 ‘비전아카데미’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진로 찾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왕따 또는 학교 부적응 학생의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오는 사례가 있었다. 이의 경우 기관에서는 제과제빵사나 재활용품 매장관리 또는 바리스타 과정들을 경험하게 했는데, 그 안에서 장애와 비장애가 어울리는 환경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청소년들의 가정 배경을 살펴보면 취약한 부분들이 드러난다고 한다. 이러한 취약 부분들이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들의 지원으로 축소 및 제거될

수 있다면 실질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 8) 건강가정지원센터

학교폭력 관련 조사	현 황	비 고
대응 지원 현황	학교폭력 대응 지원 업무는 없음	가정지원 프로그램 운영 시 가족 상담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 피해 사례 등이 발견되기도 함
지원가능 서비스 (학생, 학부모, 교사)	가족상담 서비스 가능 (아이의 원인을 분석하면 가족의 문제가 있고 그 안에 부모자녀 간, 부부간 문제를 해결해야 함)	가족단위(2인 이상) 봉사프로그램 '마음모아가족봉사단' 운영 사회봉사의 경우 부모와 함께 참가한다면 참여 가능
연계 현황	청소년지원연합회와 연계하여 학생 상담이 필요하게 될 경우 관련 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으로 연계함	전화 및 공문으로 연계 월1회 실무자 모임 진행
발전방안	학교폭력 발생 배경에 대한 가정 환경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표 Ⅲ-10〉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현황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학교폭력 대응 지원 업무 및 관련 지원 프로그램은 없었다. 다만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녀와 부모 간 또는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족상담은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참가 부모님을 통해 자녀의 피해 경험이 발견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의 경우 본 기관에서는 아동 상담을 진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의 원인을 분석하다 보면 가족문제가 있고 그러다보면 부모 자녀 간에 아니면 부부간에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 쪽은 가족 상담을 하다보니깐 그런 식으로... 또 저희가 아동을 대상으로 상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녀를 상담하고 싶어 해요. 해서 오시면 대부분 청소년기관 쪽으로 연계 해 드

리고 부모님은 상담을 받으시는데 그 와중에 가족들이 참여해서 상담회기에 포함 되는 경우도 있어요.

(기관8 담당)

건강가족지원센터는 가족문화, 가족교육, 가족상담의 영역에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다. 가족문화 영역에서는 가족 간의 관계개선 측면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학교폭력 발생 배경에 대한 가정적 측면을 고려할 때 가족과의 관계 개선은 예방적 차원에서 새로운 개입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가정 환경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9) 정신건강증진센터

학교폭력 관련 조사	현 황	비 고
대응 지원 현황	학교폭력 대응 지원 업무는 없음	학교폭력 및 생명존중사 상 교육 실시 (정신건강증진교육)
지원가능 서비스 (학생, 학부모, 교사)	피해 학생의 의료비 및 심리검사비 지원 가능 일부 자녀지도에 대한 학부모 교육 실시	학교 및 가정에서 학생 을 의뢰하는 경우 있음
연계 현황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의료기관, 주민 자치센터와 연계 구청의 희망복지지원팀의 사례분과회의 를 통하여 통합사례 관리를 시행함	공문 및 전화를 이용하 여 연계 진행
발전방안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 교 측에서 외부로 노출을 꺼려하는 부 분이 있어 실질적 발전방안에 대한 논 의는 없었음	실제 기관에서의 관여는 1회성에 그치는 경우 많고 정신적 측면에서는 별다른 증상이 보이지 않음

〈표 Ⅲ-11〉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현황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은 Wee센터에서 대체로 수용하고 있  
어 본 기관으로 의뢰가 들어오는 청소년은 극히 드물다고 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

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성을 확신하기 어려워 관련 사례를 접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다만 학교폭력 및 생명존중사상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학교의 의뢰가 발생될 경우 학교로 들어가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학교 및 가정에서 학생에 대한 불안장애 및 기분장애 등에 대한 상담 의뢰가 들어와 진행하게 되는 상담 과정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연계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피해 학생이라고는 하지만, 또 피해학생이면서도 가해자예요. 그 당시에만 그 아이가 피해를 본 거지. 또 어떻게 보면 그 아이가 똑같이 다른 아이를 왕따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보면 저희가 아무리 상담을 하고 병원을 가서 함께 하죠. 그래도 부모님과 아이들의 마음이 확실하지 않은 이상 치료가 끝까지 유지되지는 않고요. 그냥 아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식이에요. 저희 센터에서는 의료비 지원, 심리검사비 지원이 가능해요... (중략)... 저희가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많이 의뢰를 요청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병원에 다닐 만큼 정신적으로 그렇게 문제 있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멘토 선생님이 의뢰에 응해주시면 그 쪽에서 청소년과 밀착되어 잘 상담을 해주세요.

(기관9 담당)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무료로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었다. 최근 청소년들의 품행장애 등 행동에 대한 문제 및 우울 등에 대해 상담 및 치료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기관에서 제시한 2013년도 보건교사 요구도 조사에서는 분노조절장애가 문제행동 우선순위에 제시되었는데 이는 학교폭력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본 기관에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낮아 학교와 연계하는 적극적 예방 교육 및 개입이 다소 어렵다는 부분이 제시되었다. 다만 상담 과정에서 발견된 학교폭력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연계하고 부모의 관리는 본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0) 종합사회복지관

학교폭력 관련 조사	현 황	비 고
------------	-----	-----

대응 지원 현황	학교폭력 대응 지원 업무 없음	
지원가능 서비스 (학생, 학부모, 교사)	3년 전에는 사회봉사 명령 학생들에 대한 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지 금은 하고 있지 않음	청소년과 관련한 업무는 지역사회 내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진행함
연계 현황	청소년지원연합회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고 있음	마포구청 내 사례관리 네트워크에 참여
발전방안	청소년들 가까이에서 청소년들의 이야 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필요 자존감이 상승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표 Ⅲ-12〉 종합사회복지관 사업현황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지역사회 내 복지 업무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 청소년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내 해당 전문기관으로 연계하여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아동 및 청소년, 여성의 사례를 관리하는 서비스팀을 두고 발굴되지 않는 사례를 관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례가 발굴될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를 요청한다고 한다.

우리 선생님들의 경우 아이들과 허물없이 공부를 하다가 일대일 멘토, 멘티를 하다보면 그 선생님들이 제게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그 학생과 따로 상담을 하게 되고요. 심각한 경우에는 저희 전문상담센터 선생님 아니면 저희 지역사회 내 연계된 자원들이 많잖아요. 그 안에서 선생님 소개 받기도 합니다. 지역사회 내 형성된 연계망 속에 전문가 선생님들이 많다보니 학생들을 소개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관10 담당)

종합사회복지관은 행복한 가족사업과 지역사회 역량성장 등 지역주민 대상 복지시설이다. 따라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프로그램 및 지원체계는 없었다. 다만 방과 후 교실, 지역 어린이 통합지원 사업 및 지역 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 사업 안에서 ‘청소년 학습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의 교과교육 지원뿐만 아니라 문화체험 및 진로지도도 운영되고 있었다. 학습멘토링을 통하여 선생님들과 친숙해진 학생들이 편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숨겨있던 문제들이 발견된다고 한다. 이처럼 가까이에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11) 지역아동센터

학교폭력 관련 조사	현 황	비 고
대응 지원 현황	학교폭력 대응 지원 업무는 없음 지역아동센터는 가족의 역할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을 지도하다가 피해 청소년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음	학교폭력 관련 사례 발견 시 기관 내 지도가 아닌 좀 더 발전적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할 경우 학교 및 학부모, 정신건강증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 연락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함
지원가능 서비스 (학생, 학부모, 교사)	센터를 이용하는 학생 중 가해 및 피해 학생들의 상담 가능	학부모 교육 실시(센터 이용 학생 대상 학부모)
연계 현황	청소년지원연합회를 통하여 지역사회 내 기관들과의 정기적 모임 가짐 다양한 봉사동아리와 연계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지원	전화 및 공문을 통하여 진행
발전방안	가정교육 및 가정 지원이 매우 필요한 부분임	

〈표 Ⅲ-13〉 지역아동센터 사업현황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저녁 10시 30분까지 본 기관에 있기 때문에 학교 밖 폭력으로부터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교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 되면서 학교폭력 피해 사실이 발견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다만 여러 가지 개인적 이유로 또는 부모의 의지로 본 기관을 벗어나게 될 경우 더 이상의 지도 및 보호를 할 수 없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실제 학교폭력에 대한 업무는 없었으나 보호를 통한 예방과 학교폭력 피해 발견에 대한 사례가 조사되었다.

가끔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곳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곳에 있는 시간이 많다보니 수업을 하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이야기하

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이 회자가 돼서 옆에서 선생님들이 관심을 깊게 갖다가 조용한 시간에 아이를 불러서 어떻게 했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니? 이렇게 대화하면서 문제에 접근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자기의 이야기를 편하게 털어내고 해결방안도 마련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략)... 다문화가정 아이의 경우 조금만 일로 아이들이랑 부딪치면서 거기에다가 억눌려 왔던 것들이 발산이 되고 폭발하는 것을 봤어요. 전체적으로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됐나 문제가 뭔가 이야기하다보니 근본적인 것은 학교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아파하다가 센터에서 조그만 일이 계기가 돼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역사회 내 연합회를 통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공유해요. 저희도 도움도 청하고 조언도 듣고 하는데 말씀드린 다문화가정의 학생이 작년 복지관의 연극동아리에 들어가서 극 활동을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특별히 드라마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런 걸 흉내 내고 하다 보니 연극동아리에서 잘하게 되고 좋아하는 것을 하니 신나고 자신감도 생겨 아이들과 관계도 좋아진 것 같아요.

(기관11 담당)

지역아동센터는 한 부모 및 조손 가정의 아동, 맞벌이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습지도 및 야간 보호를 제공하고 있었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자원봉사자 지원과 지역사회 내 지원을 받아 기관 내 학생들에게 문화 체험 및 정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본 기관은 청소년지원연합회를 통하여 형성된 연계망을 통하여 다른 기관의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심층 상담 및 협조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으로 연계하여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가해 및 피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발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12) A대안학교

학교폭력 관련 조사	현 황	비 고
대응 지원 현황	학교폭력 대응 지원 업무는 없음	2014년 특화사업으로 학교폭력사업을 준비하고 있음
지원가능 서비스	지원가능 서비스는 없음	대안학교에 오는 청소년

(학생, 학부모, 교사)	다만 학교폭력 피해자가 자퇴할 경우 대안교육 수행 가능	들의 경우 상담 및 멘토링 과정에서 과거 학교폭력 피해로 인하여 학교에 가기 싫어 결국 자퇴하였다는 것을 알게 됨
연계 현황	학교폭력 관련한 연계는 없음 탈학교 학생들 발굴 차원에서 지역사회 내 모든 관공서와 연계하여 공문 발송 및 전화 안내 등을 실시	
발전방안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학교 밖 폭력이 발생 가능한 곳 점검 및 관리 (환경 조성) 필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예방 프로그램 시행 필요	

〈표 Ⅲ-14〉 A대안학교 사업현황

A대안학교의 경우 학교폭력과 관련한 대응 지원이나 지원 가능한 서비스는 없었다. 본 기관은 대안학교 설립 과정이 다른 기관과 달랐다고 한다. 기관이 있고 학생이 모집된 경우가 아닌 기존의 15명 정도의 탈학교 학생들이 있었고,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 대안학교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대안학교의 초기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이 학교 폭력과 관련이 있는 학생들이었고 그 당시에는 가해자 및 피해자가 섞여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학교폭력에 관련되어 학교를 그만두고 대안학교를 찾아오는 학생은 없었다. 그러나 대안학교 내에서 학생들과 매일 만나 가깝게 지내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일대일 멘토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학교폭력 피해로 학교를 그만뒀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한다.

지금 보면 피해학생이 대부분이에요. ‘학교폭력의 피해로 학교를 그만 뒤서 왔어요.’는 아닌데요. 항상 과정이. 여기 선생님은 청소년지도사인데, 대안학교 아이들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갖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을 대하는 스킬로. 아이들을 계속 1:1 멘토링 형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너 학교를 왜 그만뒀니?” 물어보면, 그냥 “학교가기 싫어서요. 뭐 수업듣기 싫어서요.”로 처음 시작했다가, 아이들이 따돌렸고 그런 이유들이 대부분이에요...(중략)... 저희는 아직 그래보지는 않았는데, 아이들이 섞여있을 때를 보면 A라는 아이도 피해경험이 있고 B라는 아이도 피해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A와 B가 같이 있을 때, 누군가는 또 가해자가 되더라고요.... 같은 피해학생이여도 언젠간 누군가가 가해학생이 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기관12 팀장)

A대안학교는 중·고등 통합과정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졸업 후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학력인정은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으로 가능하다. 교육과정은 국어, 사회, 과학 등 기초학급과 문화예술 및 공동체 수업의 조화를 통해 대안적 교육을 실천하고자 한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연계는 없었으나 탈학교 학생 발굴차원에서 지역사회 내 모든 관공서와 공문 발송의 방법을 통해 연계하고 있었다. 다만 학교의 경우 학업 중단 대상이 초기에 발견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상자가 발생되었을 때 대안학교와 연계하는 것에 대하여 학교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에게 대안학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등의 관련 관심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13) B대안학교

학교폭력 관련 조사	현 황	비 고
대응 지원 현황	학교폭력 대응 지원 업무는 없음	
지원가능 서비스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폭력 대응 지원 서비스 없음	
연계 현황	다른 대안학교와 연계하고 있으나 서로의 행사에 참여하는 정도임	
발전방안	학교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의 경우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로 찾기 등을 통하여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지역사회 내 놀이 공간 및 휴 카페 등의 시설을 활용하여 외톨이 청소년들에게 친구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함

〈표 Ⅲ-15〉 B대안학교 사업현황

B대안학교의 경우 학교폭력관련 대응지원 및 지원 가능한 서비스는 없었다. 그리고 연계성에 있어서도 다른 대안학교와 행사 참여 정도의 연계를 하고 있었다. 대안학교라는 특성 자체가 학교폭력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탈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다니던 학교를 벗어나게

될 경우 탈학교 학생이 되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후지원 측면에서 대안학교의 진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대안학교는 학교에 따라서 경제적인 사항이 기반이 되어야 다닐 수 있는 곳도 있어요. 그 문턱을 낮추려면 공공의 자원이 들어와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다닐 수 있는 곳이 다르면 그 금액을 낼 수 있는 사람들만 해당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더 다양하게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여건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관13 담당)

B대안학교는 지역사회 내 사회적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기관들과의 연계는 없었으나 지역사회 내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문화를 형성하는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휴 카페’ 및 지역사회 내 놀이 공간을 통하여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외톨이로 있는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 속에서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 모두 정서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진로 찾기 등을 통하여 스스로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찾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 14) 자원봉사센터

학교폭력 관련 조사	현 황	비 고
대응 지원 현황	2013년 영시니어 봉사활동 진행 영시니어에 대하여 학교폭력관련 상담 교육을 시행하고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학교폭력 교육을 시행함	집단상담 형태로 진행
지원가능 서비스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폭력 관련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지원 서비스는 없음 학교 및 학부모의 사회봉사 의뢰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을 연계시켜 줌	선도 조치에 따른 사회봉사에 대한 의뢰는 있음

연계 현황	<p>학교 및 경찰서, 소방서와 연계를 형성하고 있음</p> <p>봉사기관인 NGO 단체 및 사회복지관 등과 MOU를 체결하여 연계하고 있음 (수요처 등록의 형태로 연계하고 있음)</p> <p>청소년자원봉사자를 만나면서 심층 상담이 필요하게 될 경우 청소년수련관 및 개인상담소로 연계하여 지원함</p>	<p>학교와는 1년에 1회 간담회를 가짐</p> <p>전화 및 공문을 이용하여 진행</p>
발전방안	<p>지역사회 내 청년들의 NGO단체와 연계하여 청년활동가와 함께 하는 힐링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재충전 및 새롭게(refresh)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p>	<p>학교폭력 가해자가 사회봉사이후 변화되는 것이 있는지 검증 필요</p>

〈표 Ⅲ-16〉 자원봉사센터 사업현황

자원봉사센터는 2013년도에 영시니어 봉사활동을 통하여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시행하였다. 학부모 위주로 결성된 봉사자들에게 일정기간 상담교육을 통해 상담 시 필요한 정보 및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한 후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집단상담 방식으로 진행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초기에는 상담을 진행하려는 과정으로 접근하였으나 차츰 반 친구들과 간 서로를 알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고 한다. 자원봉사센터에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사회봉사 조치를 받은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수요처를 연계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다만 이런 사안의 연계에 있어서 적절한 봉사활동수요처를 찾는데 다소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희한테 종종 오고요. 봉사활동 가능한 기관으로 저희가 연결하는데... 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학교폭력 때문에 사회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고등학생을 보내려고 사정사정 했어요. “이 학생이 어떤 아이인지는 모르겠는데 학부모님께서 간곡히 말씀하셔서... 괜찮을까요?” 했는데, 좋다고 하셨어요. 근데 어제 메일이 왔는데, 다음에는 받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의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이 학생이 가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응어리진 게 많아서 본인이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그게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학생이 봉사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이 학생까지 살펴줘야 하는 상황이 와서

힘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말씀해주실 때도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애네 봉사활동을 시켜야 하는데 예를 들면 문제이고, 어떤 성격이고를 다 말해주면 저희 쪽에서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알기 때문에 다 말씀을 안 해 주세요. “그럼 어떤 봉사활동을 희망하세요? 저희는 아동기관, 장애인 분들 그런 시설도 있고, NGO단체도 있고 한데.” 하면 “저희는 그냥 시간 나는 대로.” 왜냐하면 학생들이라 시간 제약도 있어요.

(기관14 담당)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청소년자원봉사의 교육 및 봉사활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왕따 피해 등으로 인하여 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발견하게 되는 사례가 있었다. 담당자가 좀 더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청소년수련관 및 개인 상담소 등에 연계하여 해당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었다.

많이 있죠. 많이 있고 봉사활동 오는 친구들 중에서 정신적으로 조금 그런 아이들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소외된 친구들이 좀 더 많이 와요.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났던 친구들은, 친구들도 분명히 뭔가 갈등이 생기는데 그걸 표출할 방법을 모르니까. 제가 상담했던 친구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고. 아무도 자기를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고. 거기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면 자기가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만큼 성실히 해서 인정받는 친구였고...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해서 연계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두 명 정도, 한 번은 청소년수련관의 상담 선생님이었고 한 번은 영시니어 상담봉사단 교육 받으셨던 분인데 그 분은 개인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기관14 담당)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의 교육과 봉사활동수요처를 발굴하여 봉사자와 연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성인 자원봉사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나 청소년봉사활동에 대한 지역사회 내 요구가 있어 다양한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의 요청으로 학교로 찾아가서 봉사활동 교육을 수행하고 있었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인식되면 압박을 받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편하게 말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사회봉사 이후 나아지는 것이 미미하다면, 사회봉사 조치와 함께 가해 학생들의 마음을 치

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 15) 보호관찰소

학교폭력 관련 조사	현 황	비 고
대응 지원 현황	보호관찰 대상 학생들에게 민간기관 전문가, 변호사 등의 교육 시행	2007년 교육과학기술부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MOU를 맺고 학교폭력에 대하여 공동대응 2010년 고위험대상 멘토링 사업 시행. 이후 특별범죄예방의원 활동 예산 없어짐
지원가능 서비스 (학생, 학부모, 교사)	보호관찰대상자의 부모 및 교사에 대한 상담 지원	보호관찰소는 사후처리 측면이 있음
연계 현황	법원에서 20시간 상담 이수 명령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의뢰 (지역사회 내 전문가 활용)	내부적으로는 특별채용 등을 통하여 전문 인력을 수용하고 있음
발전방안	2007년 멘토링 사업 예산이 없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음 이런 사업들에 대하여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임	

〈표 Ⅲ-17〉 보호관찰소 사업현황

보호관찰소의 경우 일단 보호관찰 대상자가 되어야만 보호관찰소의 지도권에 들어올 수 있었다. 따라서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소년비행 및 범죄에 연루되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대상자에 한하여 다양한 교육과 지도가 시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안에 국한되기보다는 전체적인 보호관찰의 업무 안에서 학교폭력 관련 대응 지원과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의 상담교육이 조치될 경우 효과적인 라포 형성 및 심층적 심리 검사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하고 있었다.

법원으로부터 상담교육 20시간 정도 받은 아이들이 가끔씩 옵니다. 지도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감독한다고 하면 대상자와 상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아이들이 속에 있는 말을 잘 꺼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상담선생님과도 라포 형성도 충분히 잘 형성될 수 있고 MBTI, 애니어그램, 혹은 MMPI 등의 방법을 통해 아이들의 성향도 파악할 수가 있고.

(기관15 담당)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업무와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 조사 및 전자감독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대체로 사후처리 과정에 해당되는 기관이고, 실무적으로도 주 업무는 결정 조치에 따른 이행을 담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예방보다는 재발 방지 측면의 교화개선 및 보호 업무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효과적 사후처리를 위한 지역사회 내 자원 활용의 측면에서 타 기관과의 연계가 형성되고 있었다.

#### 16) 경찰서

학교폭력 관련 조사	현 황	비 고
대응 지원 현황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 시행 지역경찰서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을 두고 관할 학교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지원 및 상담, 사후관리 시행	서울시내 각 지역교육청마다 1명씩 배치하여 관할지역의 SPO 운영 관리 및 지원
지원가능 서비스 (학생, 학부모, 교사)	학생대상 반별 예방 교육 수행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지원) 사랑의 교실 및 문화 활동 등의 선도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교사 및 상담교사에 대한 교육 활동 진행 (지역사회 내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기관에 대한 학교폭력관련 교육 시행)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유대관계 개선에 대한 교육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자존감 상승 교육
연계 현황	Wee센터와 연계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Wee센터가 형성하고 있는 연계망을 활용함	

	해당 지역의 여러 기관들과 MOU를 맺고 연계를 형성하고 있음	
발전방안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시각에 변화가 필요함 감추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미래의 또 다른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음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필요

〈표 Ⅲ-18〉 경찰서 사업현황

경찰서의 경우 학교폭력 대응에 있어 학교지원경찰(스쿨폴리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학생 및 학부모, 교사에 대한 예방교육을 시행하며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가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Wee센터와 연계하고 있었으며, Wee센터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련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었다. 경찰서 내에도 별도의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랑의 교실 및 청소년 문화 활동 등을 통하여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가해 학생의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가정상담도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의 문제를 들어가 보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Wee센터와 연계해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부모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한지 등을 논의하죠...(중략)... 학교폭력 사건에 경찰관이 참여한다고 하면 약간의 긴장 상태가 되어 경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의 문제에 참여할 때 자세를 많이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또 'SPO를 이겨라'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과 팔씨름 등의 경기를 펼쳐 학생들에게 친숙함을 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 또는 선생님에게는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담당경찰관에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가정만의 또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도 자신들의 전적인 잘못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학교는 학교폭력의 문제가 학교의 문제로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폭력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움직여 해결하고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관16 담당)

경찰서에서는 관내 초·중·고 학교마다 학교전담경찰관을 두고 학교폭력 예방 및 사건 조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아직 학교나 학생들에게 경찰관은 낯설고 어려운 존재로 느껴질 수 있으나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담당자들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었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며, 이러한 시각의 변화가 학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라. 학교폭력관련 사업현황 및 발전방안

### 1) 청소년기관의 학교폭력관련 사업현황

청소년기관들의 학교폭력 관련 사업을 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학교폭력만의 사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았다. 청소년수련관에는 관련 프로그램이 없었으나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캠페인 및 예방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에는 전체 상담프로그램 중 일부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학교폭력 예방차원에서 학급단위의 학교폭력예방 또는 사회성향상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학교폭력예방사업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학교폭력예방 Good Start프로그램 및 마포구 위기청소년 힐링여행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학교폭력 전담 인력 및 예산에 대해서는 조사한 모든 기관에서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있지 않았고 예산 또한 없었다.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담당자가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

학교 및 지역사회의 연계 구조에 대해서는 모든 기관에서 학교와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폭력에만 적용된다기보다는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다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연계하고 있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에도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서의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 구조를 갖고 있었다.

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하여 제공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모든 기관이 예방적 측면에서의 사회성 함양 및 학급 내 문화 조성 등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가해 및 피해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사회봉사 조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대응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관련기관의 학교폭력관련 사업 현황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Wee센터 및 경찰서를 제외한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들의 구체적인 대응 지원 사항은 없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청소년 및 학부모, 교사에 대한 서비스도 프로그램화 되지 못하였다. Wee센터의 경우 피해자 및 가해자를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학부모 대상 ‘엄마표상담학교’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경찰서의 경우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통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관련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 외 기관들은 각 기관의 업무 고유성이 있어 학교폭력과의 관련성은 미흡하였다. 그러나 연계적 측면에서는 각각의 기관이 서로 긴밀한 연계를 형성하여 각 기관의 업무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타 기관의 업무 공유성은 각 기관에서 수용할 수 없는 사례를 만났을 경우 해당 전문 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청소년의 학교폭력 상담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를 업무 과정에서 발견할 경우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고용복지지원센터 및 청소년자활지원관의 경우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및 체험과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원을 활용할 경우 학교폭력관련 사후 조치 및 관리 차원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호관찰소의 경우는 조치 결정에 따른 이행 기관이므로 대응 보다는 사후처리적인 측면의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상담이수 명령자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계하여 지역사회 내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경찰서에서는 학교 내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함과 동시에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Wee센터와 연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학교폭력 대응관련 발전방안

청소년기관들의 학교폭력 대응관련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 예방이 최고의 대응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학교폭력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회성 함양 등 다양한 측면의 접근을 통해 지속적인 학교폭력관련 예방 프로그램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상시적으로 학교폭력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학교폭력예방센터’등 별도 기관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관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학교폭력 예방 및 조치를 총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학교폭력 조치와 관련하여 상담 과정과 학교폭력 대응은 상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처리에 대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들의 담당자들은 대체로 가족 문제 대응 및 지원과 관련한 방

안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사례를 접하게 될 경우, 해당 청소년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또는 심층적 개입이 되는 과정에서 가정의 문제 또는 부모와의 관계성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적극적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청소년뿐만 아니라 경제적 또는 심리적 측면의 가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학교 밖 폭력이 발생 가능한 곳을 점검하고 환경 개선 측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예방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지역사회 내에서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자를 만나게 되는 관련 시설의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자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사회봉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소극적이거나 내재되어 있는 스트레스가 표출되어 별도의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 학생들에게 진로 찾기 및 힐링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가해 및 피해 대상 적용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사회봉사명령 조치를 받은 청소년이 조치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덧붙여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인력 및 예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역사회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하여 대체적으로 학교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었다. 학교 안 또는 밖에서 발생된 학교 폭력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내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지금까지 면담조사를 통하여 마포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기관 및 관련 기관들의 학교폭력 관련 사업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청소년관련 기관에서는 예방적 측면의 프로그램을 학교와 연계하여 수행하고 있었다. Wee센터 및 경찰서에서는 예방 및 치유의 프로그램이 수행되고 있었다. 그 외 지역사회 관련 기관들에서는 부분적으로 사례 발견과 보호 및 예방 측면의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고유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었고 전담 인력 또한 없었다. 학교폭력에 대하여 지역사회가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측면에 대하여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하여 사건 발생 시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현재의 시스템을 탈피하고 체계적인 예방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학교폭력 대응관련 지역사회 네트워크 현황 및 사례

마포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대응관련 네트워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역사회

내 청소년기관 및 관련시설들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청소년지원연합회’가 운영되고 있었다. 운영체제 및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네트워크 구성 : 마포구청청소년지원연합회

청소년지원연합회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 및 관련 기관 실무자들과의 공동사업추진, 정보교환 및 업무 교류를 통해 다각적인 청소년 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형성된 네트워크이다. 2014년 청소년지원연합회로 연계되어 있는 기관으로는 마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구립마포청소년문화의집, 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 마포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열린공부방, 서진지역아동센터, 성산종합사회복지관, 구립망원청소년문화센터 그리고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있다. 이 연합회에 연계된 기관은 매년 업무 협약식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나. 네트워크 운영체제

청소년지원연합회 내에 회장, 부회장, 서기를 지정하고 당해 연도 대해서는 회장이 있는 기관이 총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회장이 있는 기관은 1년 담임으로 매해 새롭게 회장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네트워크의 실제 참가자는 팀장이나 관장이 아닌 실제 업무 담당자인 실무자가 참여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정기회의는 월 1회 실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동사업 추진 시 예산은 각 기관에서 분담하여 처리하고 지자체로부터 약간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 다. 추진내용

청소년지원연합회는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의 연계 및 실무자들의 업무 협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형성 초기에는 각 기관별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각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원봉사, 징계·선도, 가출·학대피해, 진로·자립, 문화·여가, 가족·상담, 방과 후 학습, 빈곤층지원으로 나누어 청소년에게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영역화 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내 청소년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고 있었다.

각 기관의 업무를 진행하면서 서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 및 자원 공유 등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역별 전문 강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대상자는 있지만 자신의 기관에서 적정한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협의체로 연계된 다른 기관들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이 서로 공유되고 있었다.

청소년지원연합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의 사업으로는 ‘청소년 알 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있었다. ‘청소년 알 페스티벌’은 청소년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연합 축제를 통하여 지역사회 내 청소년들이 다양하고 건전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문화 주제성을 함양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행사 당일에 야외 공연장 등의 공간에서 8개 영역의 체험 나눔으로 각 기관별 부스를 만들고 그 안에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2013년도의 추진된 내용으로는 스트레스 타파(건강가정지원센터), Healing 푸드(지역아동센터), 바리스타 체험(고용복지지원센터), 한국각테일체험(청소년수련관), 명화액자만들기(사회복지관), 소원팔찌만들기(청소년문화의집) 등의 체험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1,398명이 체험 나눔의 기회를 경험하게 되었다.

#### 라. 네트워크의 과제

청소년지원연합회는 매년 협약을 통하여 신규 기관을 새롭게 구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참여를 하지 않게 되는 기관도 발생된다고 한다. 즉 매년 연합회 참여 기관의 변화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회장이 속한 기관의 인적자원이 부족한 경우 공동의 사업추진에 있어 다소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발생된다고 한다. 실무자들 각자가 맡고 있는 업무 외 추가적인 부가 업무가 발생하는 것에는 다소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마. 학교폭력관련 네트워크 사례

청소년지원연합회에서 추진한 업무 또는 사업 중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례는 없었다. 다만 각 기관별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상담 및 프로그램 지원 등의 기관별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구체적 관련 사례의 내용은 <표 Ⅲ-19>과 같다.

연계 기관	연계 내용
지역아동센터 ↔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의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이용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 연계
정신건강증진센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 연계
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관련 강사 섭외 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수련관	해외탐방 등 활동 프로그램 이용
건강가정지원센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 연계

〈표 Ⅲ-19〉 네트워크 사례

이상으로 마포청소년지원연합회의 운영체제 및 네트워크 상황을 살펴보았다. 청소년지원연합회를 통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각 기관의 고유 업무가 존재하고 있어 실질적인 학교폭력 대응체계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업무 연계 및 자원 교류를 통하여 일부분 학교폭력 관련 사례에 대해 각 사례마다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청소년지원연합회의 특성상 각 기관의 업무로 인하여 회의 참석에 다소 소홀한 기관이 있었으며, 매년 신규기관이 들어오고 기존의 기관이 탈퇴하는 등 연합회 구성에 변화가 발생되어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학교폭력 대응 등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도 신속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향후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체계로서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측면에 대하여 운영 지원 및 업무 조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3. 문제점 분석 및 시사점

본 연구의 조사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및 시사점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학교폭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응을 위해서는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내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들의 학교폭력 관련 사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분 예방과 치유의 프로그램이 수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각 기관마다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른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기관 연계 시 대상자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 고유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었고 전담 인력은 없었다. 학교폭력에 대하여 지역사회가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측면에 대하여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나. 체계적인 예방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대응은 예방일 것이다. 이미 학교폭력이 발생된 이후에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그리고 방관자로서 그 사안을 지켜보는 주변 학생들 또한 모두 피해의 측면에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되기 전 미래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시적인 예방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역사회 내 전문가들의 면담조사 결과 학교폭력에 대하여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만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학생들의 요구와 흥미에 맞고 효과성이 좋은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미래의 학교폭력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가·피해 학생의 가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기관의 연계시스템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의 원인을 살펴보면 개인의 기질에 따른 요인도 있으나 환경적 측면에서의 요인 또한 존재한다. 조사 분석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실제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학생들의 가정적 배경을 살펴보면 열악한 측면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이혼가정 또는 편부가정 그리고 폭력가정인 경우가 있고 경제적으로 빈곤하거나 사랑의 결핍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

나 실제적으로 관련 학생이 아닌 부모의 개인적 문제까지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들의 연계를 구축하여 학생에 대한 조치와 함께 그 가족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 측면의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라.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지원연합회는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사회 내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폭력 대응 및 네트워크 운영 측면에서는 일부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을 통하여 학교폭력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운영 가이드 및 학교폭력 대응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향후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체계로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데 그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IV. 실태조사

### 1. 설문조사 결과분석

본 설문조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1,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그 중 1,186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은 SPSS 18.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t-test 및 일원배치분산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총 1,186명으로 남학생 698명(58.9%), 여학생 488명(41.1%)으로 남학생이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282명(23.8%), 중학생 527명(44.4%), 고등학생 377명(31.8%)이고, 거주 지역<sup>4)</sup>을 서울시 4권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서북권 322명(27.4%), 동북권 248명(21.2%), 서남권 363명(30.9%), 동남권 242명(20.6%)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자신의 학교성적에 대해서는 상위권 206명(17.5%), 중위권 653명(55.6%), 하위권 316명(26.9%)으로 응답하였고, 본인이 인식하는 가정의 경제수준은 상위권 109명(9.2%), 중위권 835명(70.6%), 하위권 239명(20.2%)로 나타났다.

---

4) 서북: 마포, 은평, 서대문, 용산, 종로  
동북: 중구, 성동, 성북, 광진, 동대문, 노원(3구, 4구 포함), 강북  
서남: 양천, 영등포, 신길, 구로  
동남: 강동, 서초, 송파, 강남, 반포

구분		빈도(N)	백분율(%)
성별	남학생	698	58.9
	여학생	488	41.1
합계		1,186	100.0
학교급	초등학생	282	23.8
	중학생	527	44.4
	고등학생	377	31.8
합계		1,186	100.0
거주 지역	서북권	322	27.4
	동북권	248	21.1
	서남권	363	30.9
	동남권	242	20.6
합계		1,175	100.0
본인이 인식하는 학교성적	상위권	206	17.5
	중위권	653	55.6
	하위권	316	26.9
합계		1,175	100.0
본인이 인식하는 경제수준	상위권	109	9.2
	중위권	835	70.6
	하위권	239	20.2
합계		1,183	100.0

〈표 IV-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설문조사)

## 나. 학교 밖 폭력에 관한 인식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등하교길, 학원주변, 사이버공간, SNS, 인터넷, 블로그, 이메일 등 포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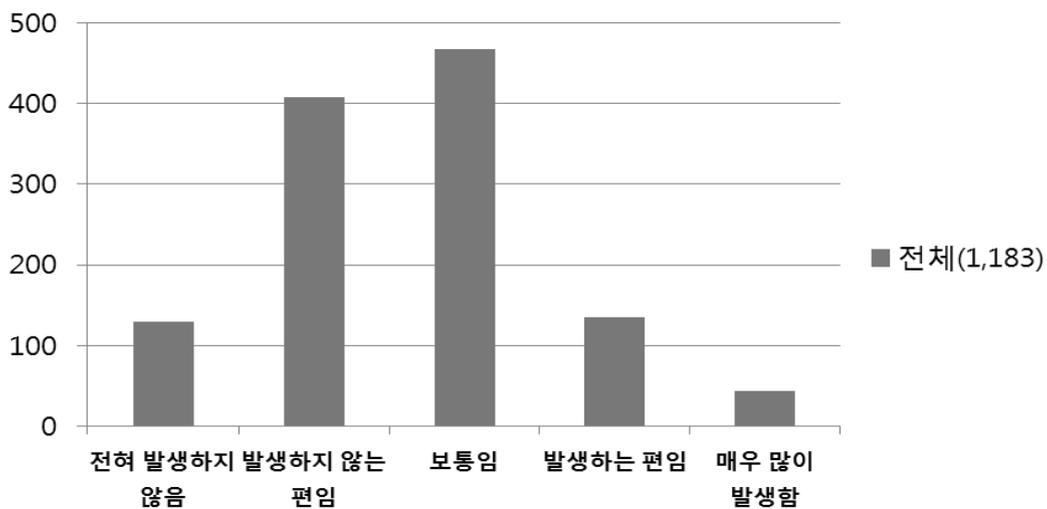
### 1)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 가) 학교 밖 폭력에 대한 인식

학교 밖에서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78명(15.0%)이 학교 밖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다고 응답하였다.

문항	빈도(N)	백분율(%)
전혀 발생하지 않음	130	11.0
발생하지 않는 편임	408	34.5
보통임	467	39.5
발생하는 편임	135	11.4
매우 많이 발생함	43	3.6
계	1,183	100.0

〈표 IV-2〉 학교 밖 폭력에 대한 인식



【그림 IV-1】 학교 밖 폭력에 대한 인식

## 나) 성별 학교 밖 폭력 인식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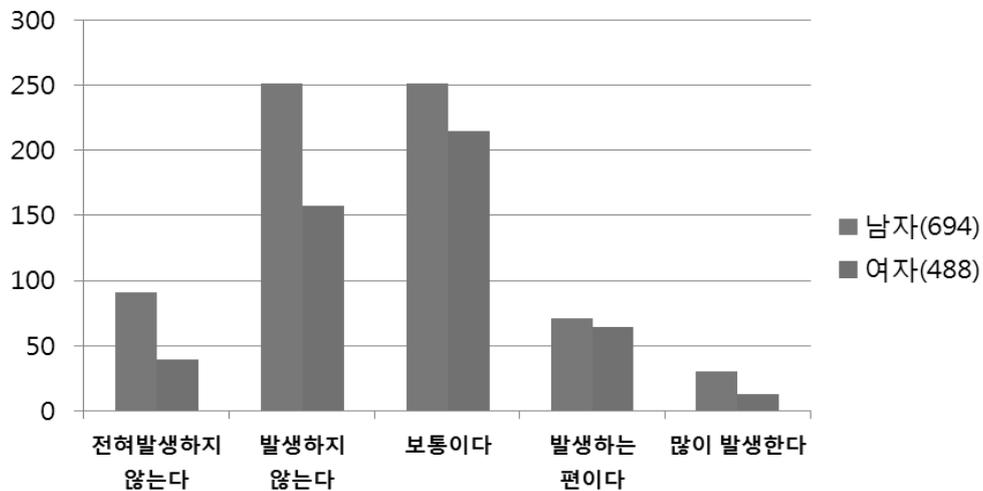
성별 학교 밖 폭력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chi^2$ 검정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응답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는데  $\chi^2$ 통계값은 16.934, 유의확률은 .002로 나타났다.

단위: 명(%)

구분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발생하는 편이다	매우 많이 발생한다	전체
남자	91(13.1)	251(36.2)	251(36.2)	71(10.2)	30(4.3)	694(100.0)
여자	39(8.0)	157(32.2)	215(44.1)	64(13.1)	13(2.7)	488(100.0)
전체	130(11.0)	408(34.5)	466(39.4)	135(11.4)	43(3.6)	1,182(100.0)

$\chi^2 = 16.934$ (df=4, p=.002)

〈표 IV-3〉 성별 학교 밖 폭력 인식 차이



【그림 IV-2】 성별 학교 밖 학교폭력 인식차이

다) 학교급별 학교 밖 폭력 인식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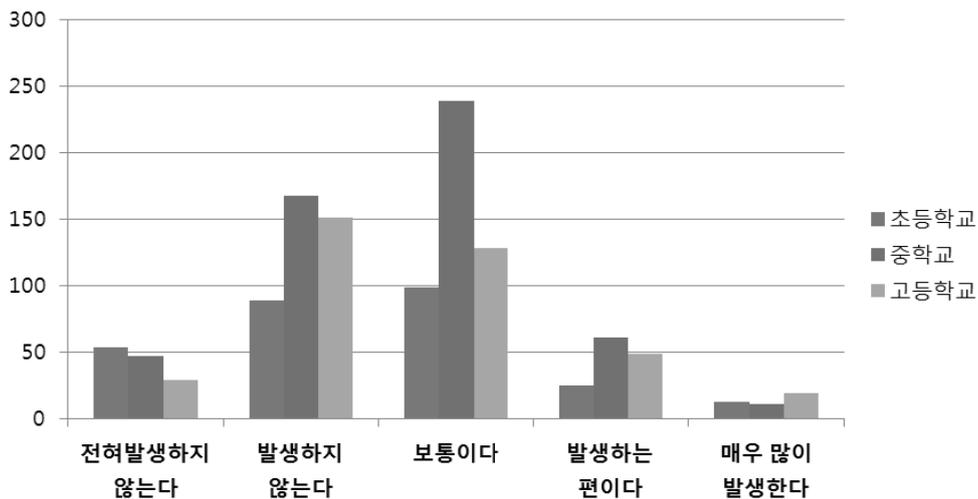
학교급에 따른 학교폭력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chi^2$ 검정을 실시한 결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응답에서 초등학생(51.1%), 고등학생(47.9%), 중학생(40.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는데  $\chi^2$ 통계값은 45.756, 유의확률은 .000로 나타났다.

단위: 명(%)

구분	전혀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발생하는 편이다	매우 많이 발생한다	전체
초등학교	54(19.3)	89(31.8)	99(35.4)	25(8.9)	13(4.6)	280(100.0)
중학교	47(8.9)	168(31.9)	239(45.4)	61(11.6)	11(2.1)	526(100.0)
고등학교	29(7.7)	151(40.2)	128(34.0)	49(13.0)	19(5.1)	376(100.0)
전체	130(11.0)	408(34.5)	466(39.4)	135(11.4)	43(3.6)	1,182(100.0)

$\chi^2=45.756$ ,  $df=8$ ,  $p=.000$

〈표 IV-4〉 학교급별 학교 밖 폭력 인식 차이



【그림 IV-3】 학교급별 학교 밖 폭력 인식 차이

라) 지역별 학교 밖 폭력 인식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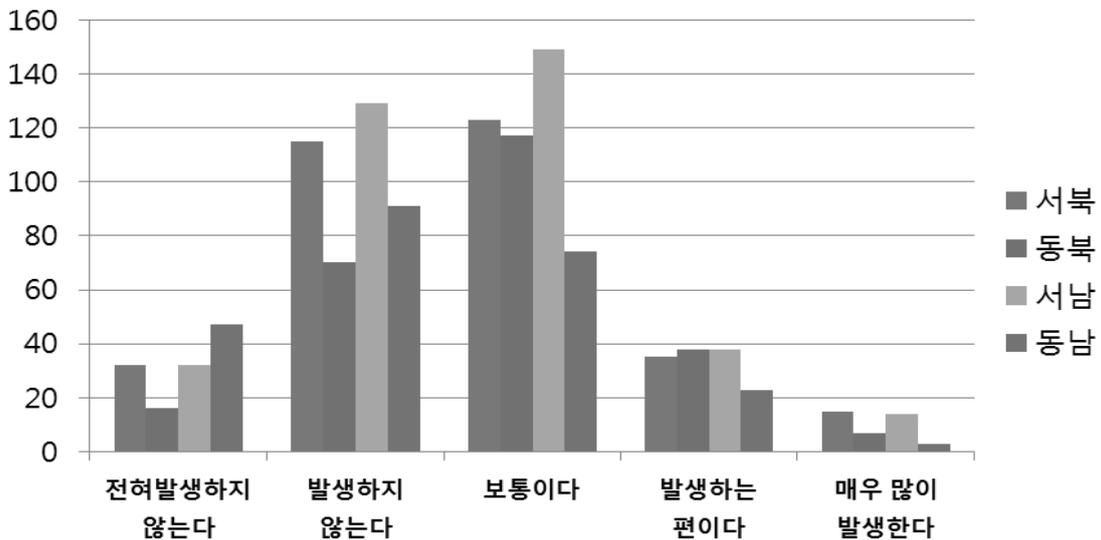
지역에 따른 학교 밖 폭력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chi^2$ 검정을 실시한 결과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응답에서 서남(57.3%), 서북(45.7%), 동남(45.4%), 동북(34.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는데  $\chi^2$ 통계값은 42.011, 유의확률은 .000로 나타났다.

단위: 명(%)

구분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발생하는 편이다	매우 많이 발생한다	전체
서북	32(10.0)	115(35.9)	123(38.4)	35(10.9)	15(4.7)	320(100.0)
동북	16(6.5)	70(28.2)	117(47.2)	38(15.3)	7(2.8)	248(100.0)
서남	32(8.8)	129(35.6)	149(41.2)	38(10.5)	14(3.9)	362(100.0)
동남	47(19.5)	91(37.8)	74(30.7)	23(9.5)	6(2.5)	241(100.0)
전체	127(10.8)	405(34.6)	463(39.5)	134(11.4)	42(3.6)	1,171(100.0)

$\chi^2=42.011$ ,  $df=12$ ,  $p=.000$

〈표 IV-5〉 지역별 학교 밖 학교폭력 인식 차이



【그림 IV-4】 지역별 학교 밖 폭력 인식 차이

## 2) 학교 밖 폭력의 원인 (중복응답)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원인을 살펴본 결과, ‘학교 안에서 발생한 문제가 학교 밖으로 연결되는 것임’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575명(48,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학교 안보다 가해학생들이 폭력을 행하기가 쉬워서’에 응답한 응답자가 391명(32.8%)로 높게 나타났다. 기타응답을 살펴보면 ‘나라가 이 모양이라서’, ‘입시 위주 교육 때문에’, ‘학교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등의 제도적 측면에서 원인을 찾는 진술과 ‘피해자의 극복 의지가 부족해서’, ‘피해자의 잘못이 크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스트레스를 높여서’ 등의 피해자의 특성에서 원인을 기술한 학생들이 있었다.

문항	빈도(N)	백분율(%)
학교 안에서 발생한 문제가 학교 밖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임	575	22.4
학교 밖에서는 가해자를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365	14.2
학교 안보다 폭력에 대한 비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서	323	12.6
학교 밖에서 가해자와 마주칠 기회가 많기 때문에	166	6.5
학교 안보다 가해학생들이 폭력을 행하기 쉬워서	391	15.2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이 많기 때문에	152	5.9
폭력서클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111	4.3
어른들의 무관심 때문에	271	10.6
가해학생의 스트레스 때문에	210	8.2
합계	2,564	100.0

〈표 IV-6〉 학교 밖 폭력의 원인(중복응답)

### 3) 학교 밖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중복응답)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를 질문한 결과, ‘학교 및 학원 주변에 CCTV 설치 운영’이 524명(44.0%),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가 520명(43.7%)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타응답을 살펴보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과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문항	빈도(N)	백분율(%)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360	9.5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지원	353	9.3
긴급 및 위기 지원서비스(출동, 보호) ex)112, 117, 1388 등	411	10.8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	400	10.5
피해학생 등하교시 보호·지원서비스	355	9.3
학교 밖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법률적 지원, 피해자 상담 및 치료 등)	291	7.6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	520	13.7
학교 및 학원주변에 CCTV 설치 운영	524	13.8
학교 밖 폭력 근절을 위한 경찰 및 지역전문가들의 지역순찰	343	9.0
사이버공간에서의 폭력에 대한 대책 필요	250	6.5
합계	3,807	100

〈표 IV-7〉 학교 밖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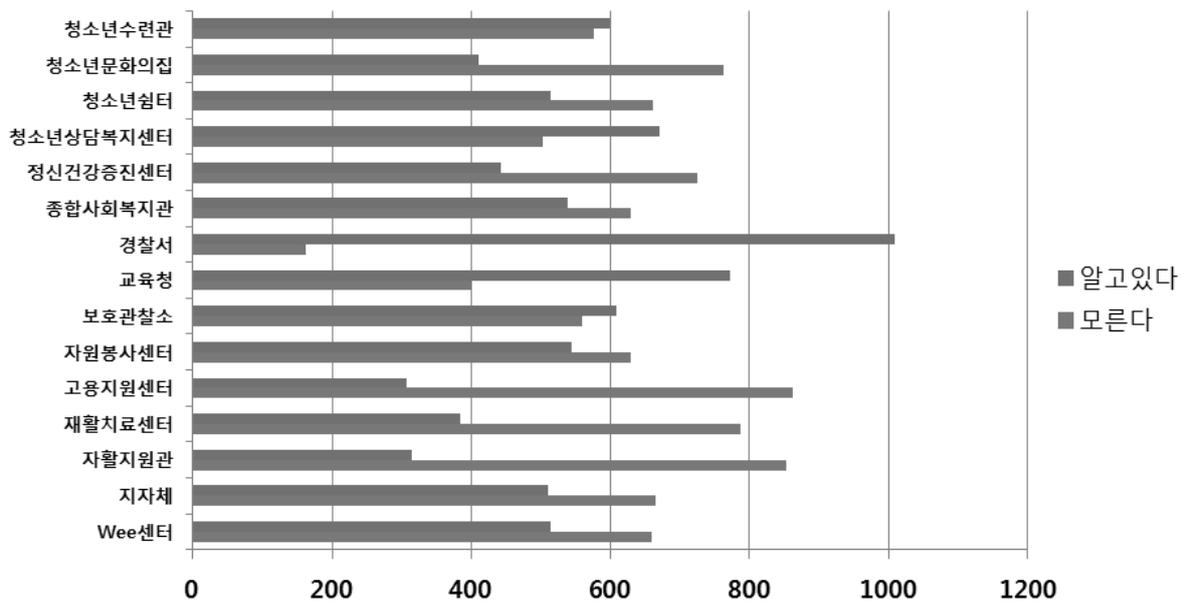
#### 4) 학교 밖 폭력 대처를 위한 지역사회 기관 인지도

다음의 지역사회 내 기관들로부터 학교폭력 대처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지를 질문한 결과, 경찰서가 1,009명(8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교육청이 772명(64.8%)로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약 50%미만의 응답자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구분		빈도(N)	백분율(%)
청소년 수련관	모른다	576	48.4
	알고있다	599	50.3
청소년 문화의집	모른다	763	64.1
	알고있다	411	34.5
청소년 쉼터	모른다	662	55.6
	알고있다	514	43.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모른다	503	42.2
	알고있다	672	56.4
정신건강증진센터	모른다	726	61.0
	알고있다	443	37.2
종합사회복지관	모른다	629	52.8
	알고있다	537	45.1
경찰서	모른다	163	13.7
	알고있다	1,009	84.7
교육청	모른다	400	33.6
	알고있다	772	64.8
보호관찰소	모른다	558	46.9
	알고있다	610	51.2
자원봉사센터	모른다	629	52.8
	알고있다	543	45.6
고용지원센터	모른다	863	72.5

	알고있다	307	25.8
재활치료센터	모른다	787	66.1
	알고있다	384	32.2
자활지원관	모른다	854	71.7
	알고있다	315	26.4
시청·구청 등의 지자체	모른다	665	55.8
	알고있다	509	42.7
Wee센터	모른다	660	55.4
	알고있다	513	43.1
합계		1,191	100.0

〈표 IV-8〉 학교 밖 폭력 대처를 위한 지역사회 기관 인지도



【그림 IV-5】 학교 밖 폭력 대처를 위한 지역사회 기관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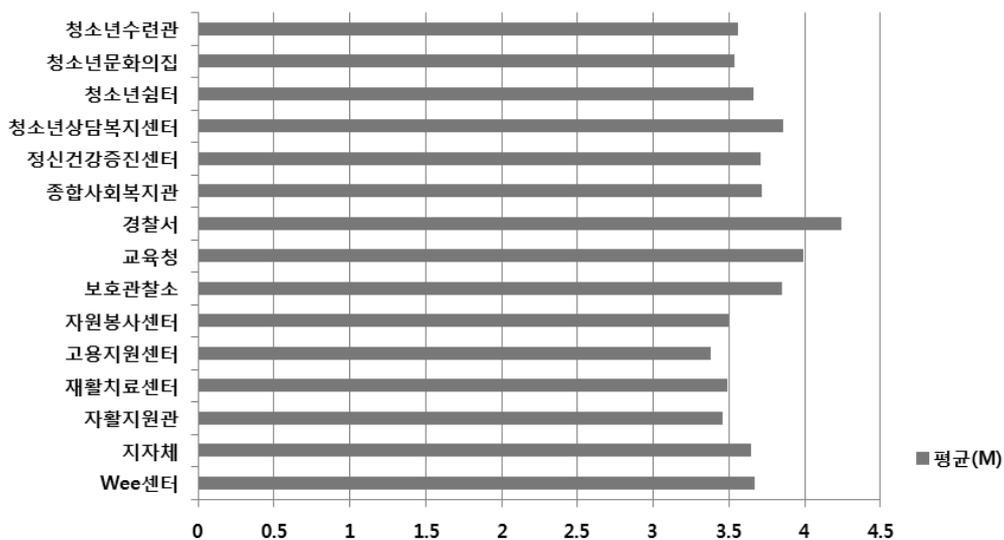
## 5)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 기관의 중요도

### 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 기관의 중요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지역사회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를 질문한 결과, 경찰서가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교육청, 보호관찰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이 높게 나타났다.

구분	평균(M)	표준편차(SD)
청소년 수련관	3.56	1.036
청소년 문화의집	3.54	1.002
청소년 쉼터	3.66	1.04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86	1.034
정신건강증진센터	3.71	1.038
종합사회복지관	3.72	1.814
경찰서	4.24	.942
교육청	3.99	1.058
보호관찰소	3.85	1.034
자원봉사센터	3.50	1.067
고용지원센터	3.38	1.077
재활치료센터	3.49	1.078
자활지원관	3.46	1.046
시청·구청 등의 지자체	3.65	1.074
Wee센터	3.67	1.065
전체	3.60	1.081

〈표 IV-9〉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 기관의 중요도



【그림 IV-6】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 기관의 중요도

나) 성별 지역사회 기관의 중요도 차이

성별에 따라 각 기관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경찰서( $t=-1.619$ ,  $p=.106$ )를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성별	N	M	SD	t	p
청소년 수련관	남학생	483	3.76	.951	-5.846	.000
	여학생	681	3.41			
청소년 문화의집	남학생	483	3.71	1.036	-5.050	.000
	여학생	680	3.49			
청소년 쉼터	남학생	483	3.91	1.058	-7.121	.000
	여학생	680	3.7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남학생	482	4.08	1.079	-6.573	.000
	여학생	680	3.56			
정신건강증진센터	남학생	483	3.91	1.075	-5.841	.000
	여학생	681	3.56			
종합사회복지관	남학생	483	3.86	1.560	-4.101	.000
	여학생	682	4.21			
경찰서	남학생	483	4.30	.874	-1.619	.106
	여학생	681	3.91			
교육청	남학생	483	4.10	1.130	-3.215	.002
	여학생	680	3.72			
보호관찰소	남학생	482	4.04	1.074	-5.475	.000
	여학생	682	3.34			
자원봉사센터	남학생	483	3.73	1.080	-6.301	.000
	여학생	679	3.24			
고용지원센터	남학생	483	3.58	1.116	-5.292	.000
	여학생	679	3.32			
재활치료센터	남학생	480	3.72	1.104	-6.323	.000
	여학생	680	3.32			
자활지원관	남학생	483	3.65	1.077	-5.344	.000
	여학생	681	3.53			
시청·구청 등의 지자체	남학생	483	3.83	1.110	-4.900	.000
	여학생	682	3.53			
Wee센터	남학생	481	3.87	1.086	-5.496	.000
	여학생					

\*\* $p<.01$ , \*\*\* $p<.001$

〈표 IV-10〉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

다) 학교급에 따른 지역사회 기관의 중요도 차이

학교급에 따라 각 기관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교급에 따라 모든 기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학교급	N	M	SD	F	p	scheffe
청소년 수련관	초등학생(a)	520	3.71	.954	20.140	.000	a,b>c
	중학생(b)	373	3.28	1.043			
	고등학생(c)	275	3.77	1.071			
청소년 문화의집	초등학생(a)	517	3.63	.917	28.405	.000	a,b>c
	중학생(b)	372	3.23	.993			
	고등학생(c)	275	3.89	1.065			
청소년 쉼터	초등학생(a)	517	3.75	.946	23.147	.000	a,b>c
	중학생(b)	371	3.38	1.089			
	고등학생(c)	275	4.05	1.036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초등학생(a)	515	3.87	.968	10.349	.000	a,b>c
	중학생(b)	372	3.69	1.094			
	고등학생(c)	274	3.98	1.116			
정신건강증진센터	초등학생(a)	517	3.75	.950	23.185	.000	a>b>c
	중학생(b)	372	3.44	1.038			
	고등학생(c)	275	4.02	1.074			
종합사회복지관	초등학생(a)	519	3.77	1.599	24.208	.000	a>b>c
	중학생(b)	370	3.32	1.044			
	고등학생(c)	276	4.51	.904			
경찰서	초등학생(a)	517	4.16	.905	15.393	.000	a>b a>c
	중학생(b)	372	4.15	.985			
	고등학생(c)	276	4.39	.910			
교육청	초등학생(a)	517	3.96	.978	33.214	.000	a>b>c
	중학생(b)	371	3.73	1.176			
	고등학생(c)	276	4.21	.954			
보호관찰소	초등학생(a)	515	3.84	.971	28.939	.000	a>b>c
	중학생(b)	371	3.60	1.101			
	고등학생(c)	276	3.96	1.092			
자원봉사센터	초등학생(a)	517	3.54	.969	54.794	.000	a>b>c
	중학생(b)	372	3.12	1.037			
	고등학생(c)	274	3.77	1.107			
고용지원센터	초등학생(a)	516	3.45	.975	47.025	.000	a>b>c
	중학생(b)	372	2.99	1.066			
	고등학생(c)	275	3.88	1.117			
재활치료센터	초등학생(a)	513	3.55	.979	44.931	.000	a>b>c
	중학생(b)	371	3.11	1.060			
	고등학생(c)	275	3.81	1.078			
자활지원관	초등학생(a)	516	3.52	.954	41.507	.000	a>b>c
	중학생(b)	372	3.10	1.039			
	고등학생(c)	276	4.00	1.089			
시청·구청 등의 지자체	초등학생(a)	516	3.64	1.005	25.499	.000	a>b>c
	중학생(b)	372	3.40	1.088			
	고등학생(c)	274	3.81	1.118			
Wee센터	초등학생(a)	517	3.79	.978	17.678	.000	a>c b>c
	중학생(b)	372	3.40	1.096			
	고등학생(c)						

\*\*\* p<.001

〈표 IV-11〉 학교급에 따른 차이 검증

라) 거주 지역별 지역사회 기관의 중요도 차이

거주 지역에 따라 각 기관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청·구청 등의 지자체, Wee센터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신건강증진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경찰서, 교육청, 보호관찰소, 자원봉사센터, 고용지원센터, 재활치료센터, 자활지원관의 기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p > .05$ ).

지역	거주지역	N	M	SD	F	p	scheffe
청소년 수련관	서북(a)	317	3.56	1.079	4.740	.003	b>d
	동북(b)	243	3.73	.948			
	서남(e)	359	3.56	.972			
	동남(d)	238	3.38	1.125			
청소년 문화의집	서북(a)	317	3.62	1.020	3.600	.013	a>d
	동북(b)	239	3.59	.893			
	서남(e)	358	3.56	.956			
	동남(d)	239	3.36	1.117			
청소년 쉼터	서북(a)	315	3.63	1.076	3.581	.013	b>d
	동북(b)	240	3.81	.971			
	서남(e)	358	3.71	.970			
	동남(d)	239	3.51	1.137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서북(a)	317	3.91	1.049	2.673	.046	-
	동북(b)	238	3.97	.923			
	서남(e)	358	3.82	1.009			
	동남(d)	238	3.73	1.145			
정신건강증진센터	서북(a)	316	3.66	1.061	1.299	.273	-
	동북(b)	239	3.81	.913			
	서남(e)	358	3.72	1.028			
	동남(d)	239	3.65	1.127			
종합사회복지관	서북(a)	317	3.62	1.101	2.244	.082	-
	동북(b)	240	3.88	2.104			
	서남(e)	358	3.69	1.003			
	동남(d)	238	3.59	1.124			
경찰서	서북(a)	317	4.25	.976	.601	.614	-
	동북(b)	242	4.30	.862			
	서남(e)	357	4.20	.952			
	동남(d)	238	4.26	.950			
교육청	서북(a)	315	3.97	1.107	.624	.600	-

	동북(b)	240	4.05	.969			
	서남(e)	359	4.00	1.003			
	동남(d)	239	3.93	1.163			
	서북(a)	316	3.81	1.091			
보호관찰소	동북(b)	238	3.96	.931	1.064	.363	-
	서남(e)	359	3.85	.970			
	동남(d)	238	3.82	1.130			
	서북(a)	317	3.48	1.165			
자원봉사센터	동북(b)	239	3.60	.960	.995	.394	-
	서남(e)	359	3.51	.994			
	동남(d)	239	3.44	1.132			
	서북(a)	317	3.34	1.149			
고용지원센터	동북(b)	239	3.46	1.015	.583	.626	-
	서남(e)	357	3.38	1.011			
	동남(d)	238	3.35	1.133			
	서북(a)	317	3.44	1.136			
재활치료센터	동북(b)	236	3.58	1.030	.983	.400	-
	서남(e)	358	3.50	.989			
	동남(d)	237	3.44	1.165			
	서북(a)	316	3.41	1.108			
자활지원관	동북(b)	239	3.53	.973	.924	.429	-
	서남(e)	359	3.48	.971			
	동남(d)	238	3.39	1.134			
	서북(a)	316	3.66	1.125			
시청·구청 등의 지자체	동북(b)	240	3.79	.986	2.721	.043	b>d
	서남(e)	359	3.65	1.019			
	동남(d)	238	3.51	1.154			
	서북(a)	315	3.64	1.086			
Wee센터	동북(b)	240	3.92	.945	8.883	.000	a>b b>d c>d
	서남(e)	359	3.70	1.016			
	동남(d)	238	3.43	1.159			

〈표 IV-12〉 거주 지역에 따른 각 기관의 차이 검증

### 3) (학교 안과 밖) 학교폭력의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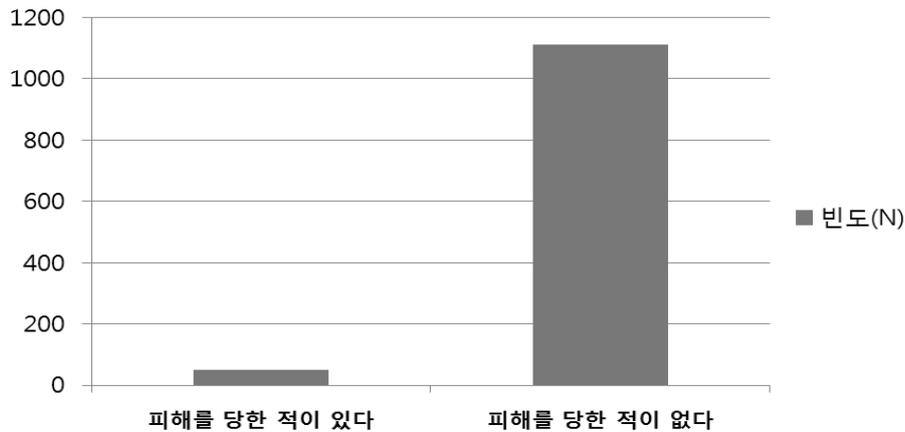
#### 가) 학교폭력 피해경험

최근 1년간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51명(4.4%)로 나타남으로써 2013년도 교육부의 2차 학

교폭력실태조사보다 1.9%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구분	빈도(N)	백분율(%)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	51	4.4
피해를 당한 적이 없다	1111	95.6
합계	1,162	100.0

〈표 IV-13〉 학교폭력 피해경험



【그림 IV-7】 학교폭력 피해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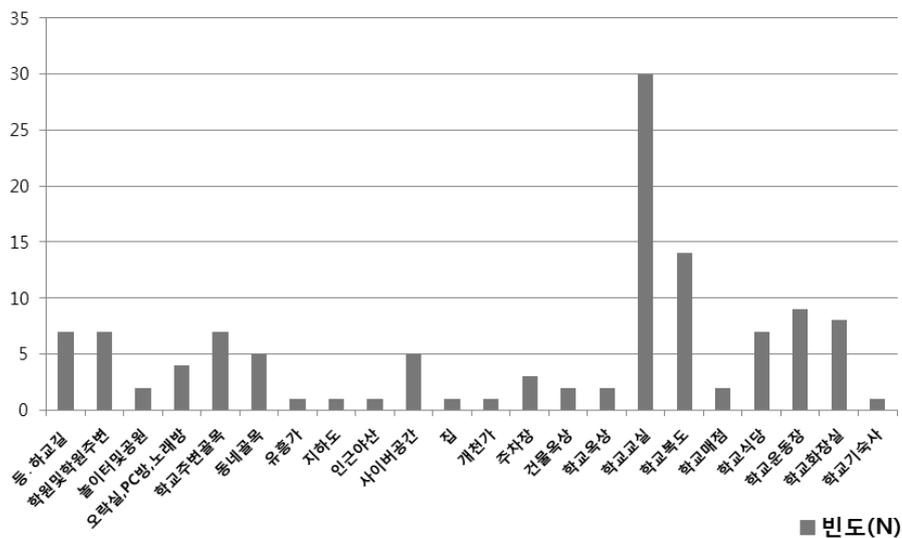
#### 나) 학교폭력 피해 장소(중복응답)

학교 폭력의 피해 장소를 살펴본 결과, 학교 안에서는 주로 교실과 복도에서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 밖에서는 등·하교길, 학원 및 학원주변, 학교 주변 골목, 동네 골목, 사이버공간 등에서 학교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51명의 학생 중, 학교 안의 장소에서 폭력을 당한 경험이 73회, 학교 밖의 장소에서 폭력을 당한 경험이 47회로 나타남으로써 학교 안에서의 폭력 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폭력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학교 안의 기타장소로는 강당, 뒤뜰 등이 나타났고 학교 밖의 기타장소로는 사회복지관이 나타남으로써 지역사회 기관에서의 폭력발생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알 수 있다.

구분		빈도(N)	백분율(%)	
학교 밖	등·하교길 (길거리 및 버스, 지하철, 통학버스 등)	7	5.8	
	학원 및 학원주변	7	5.8	
	놀이터 및 공원	2	1.7	
	오락실, PC방, 노래방	4	3.3	
	학교 주변 골목	7	5.8	
	동네 골목	5	4.2	
	유흥가	1	0.8	
	지하도	1	0.8	
	인근 야산	1	0.8	
	사이버 공간 (인터넷, 이메일, 휴대전화)	5	4.2	
	집	1	0.8	
	개천가	1	0.8	
	주차장	3	2.5	
	건물옥상	2	1.7	
	소계	47	39.2	
	학교 안	학교 옥상	2	1.7
		학교 교실	30	25.0
학교 복도		14	11.7	
학교 매점		2	1.7	
학교 식당		7	5.8	
학교 운동장		9	7.5	
학교 화장실		8	6.7	
학교 기숙사		1	0.8	
소계		73	60.8	
합계	120	100.0		

<표 IV-14> 학교폭력 피해 장소(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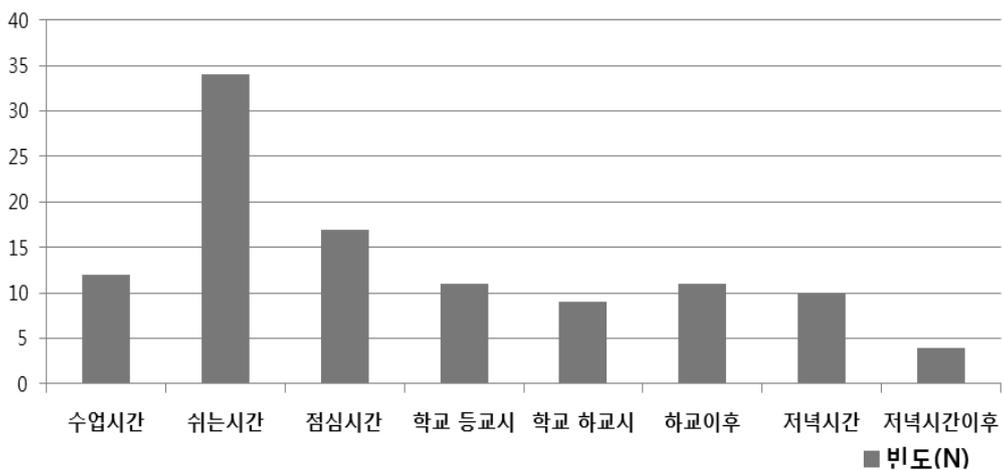
【그림 IV-8】 학교폭력 피해 장소

#### 4) 학교폭력 피해 시간대(중복응답)

학교폭력을 당한 시간대를 살펴본 결과, 학교 안에 있는 시간대에는 ‘쉬는 시간’에 학교폭력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 밖에 있는 시간대에는 ‘등하교시, 저녁시간(6-8시)’에 폭력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다. 저녁시간 이후(8시)에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빈도가 낮게 나타났다.

문항		빈도(N)	백분율(%)
학교 안에 있는 시간대	수업시간	12	11.1
	쉬는시간	34	31.5
	점심시간	17	15.7
계		63	58.3
학교 안에 있지 않은 시간대	학교 등교시	11	10.2
	학교 하교시	9	8.3
	하교 이후(오후 3~6시)	11	10.2
	저녁시간(6~8시)	10	9.3
	저녁시간 이후(8시 이후)	4	3.7
계		45	42.7
합계		108	100.0

〈표 IV-15〉 학교폭력 피해 시간대(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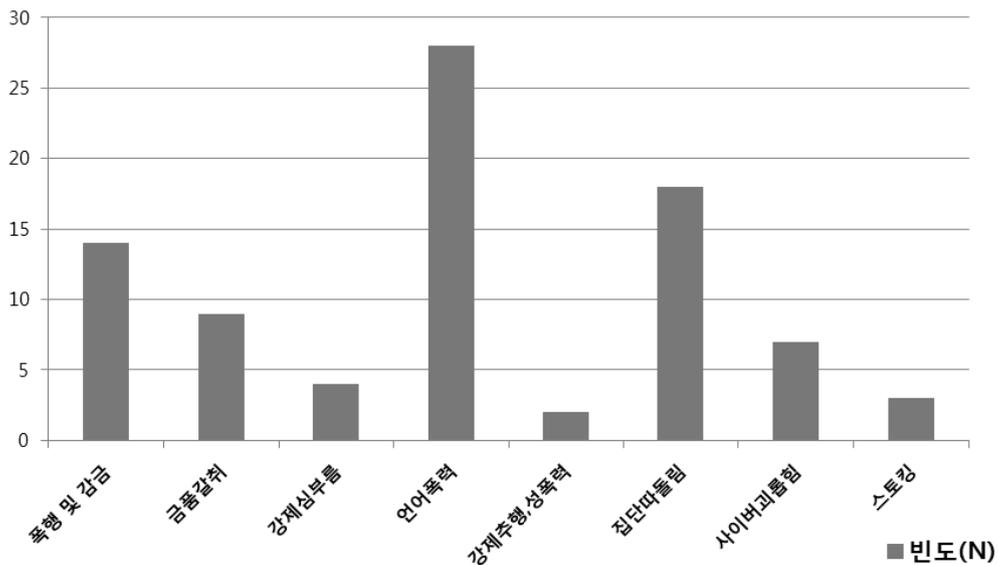
【그림 IV-9】 학교폭력 피해 시간대(중복응답)

### 5) 학교폭력 유형(중복응답)

학교폭력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폭행 및 감금 순으로 많이 발생 하고, 금품갈취와 사이버 폭력이 그 다음 순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빈도(N)	백분율(%)
폭행 및 감금	14	16.5
금품갈취	9	10.6
강제심부름	4	4.7
언어폭력	28	33.0
강제추행, 성폭력	2	2.4
집단따돌림	18	21.1
사이버 괴롭힘	7	8.2
스토킹	3	3.5
계	85	100.0

〈표 IV-16〉 학교폭력의 유형(중복응답)



【그림 IV-10】 학교폭력의 유형(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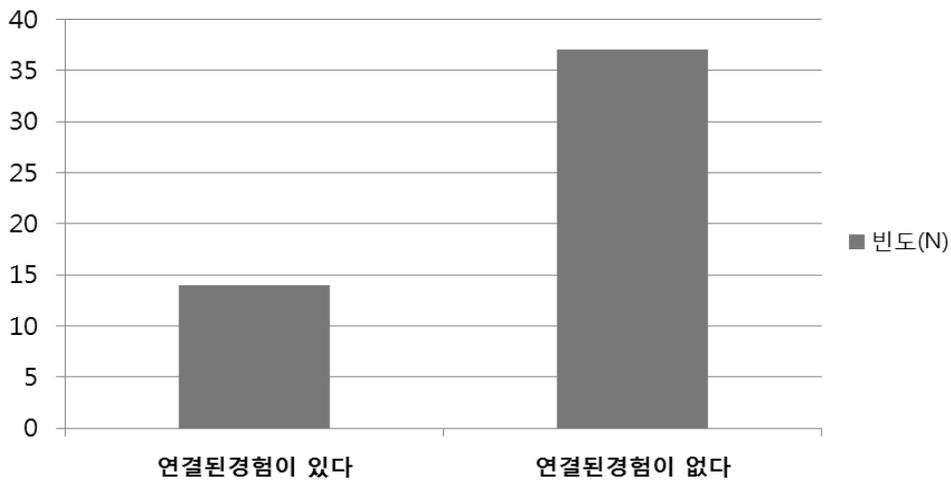
### 6) 학교 안에서 당하던 폭력이 학교 밖으로 연결된 경험

학교 안에서 당하던 폭력이 학교 밖으로 연결된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피해경험이 있는 51명의 학생 중 14명(27.5%)이 학교 안에서 당하던 폭력이 학교 밖

으로 연결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학교 안에서 당하는 폭력과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며, 학교 안에서 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학교폭력에 함께 대처해야 함을 시사한다.

구분	빈도(N)	백분율(%)
연결된 경험이 있다	14	27.5
연결된 경험이 없다	37	72.5
계	51	100.0

〈표 IV-17〉 학교 안 폭력이 학교 밖으로 연결된 경험



【그림 IV-11】 학교 안 폭력이 학교 밖으로 연결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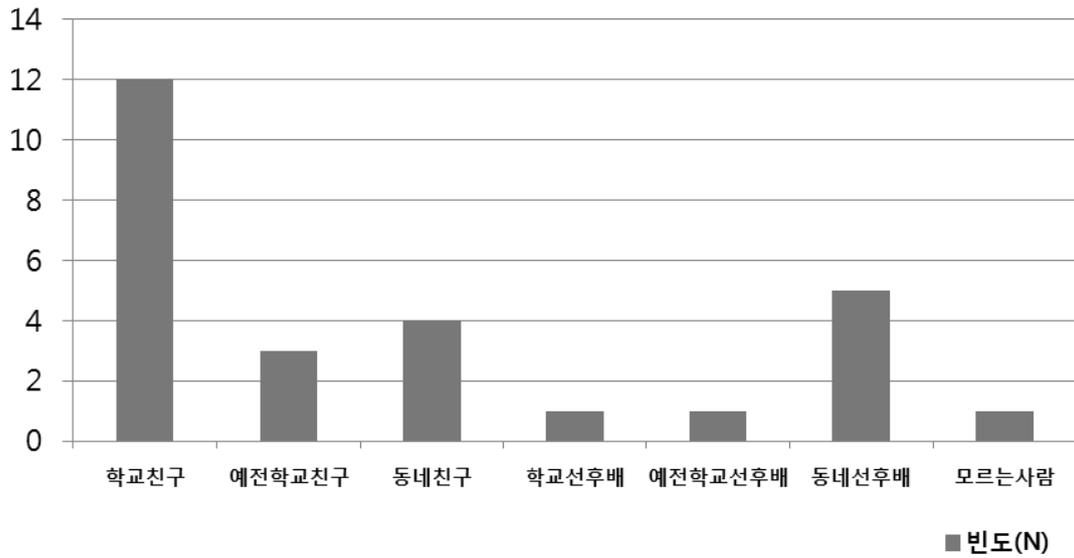
### 7) 학교 밖 폭력의 가해대상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밖에서 주로 괴롭히는 가해대상이 누구인지를 질문한 결과, 학교친구가 12명(44.5%)으로 가장 많았고 동네선후배가 5명(18.5%), 동네 친구가 4명(14.8%)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교 밖에서 학교폭력을 경험하는 학생은 대부분 지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N)	퍼센트(%)
학교친구	12	44.5
예전 학교 친구	3	11.1

동네 친구	4	14.8
학교 선후배	1	3.7
예전 학교 선후배	1	3.7
동네 선후배	5	18.5
모르는 사람	1	3.7
계	27	100

〈표 IV-18〉 학교 밖 폭력의 가해대상



【그림 IV-12】 학교 밖 폭력의 가해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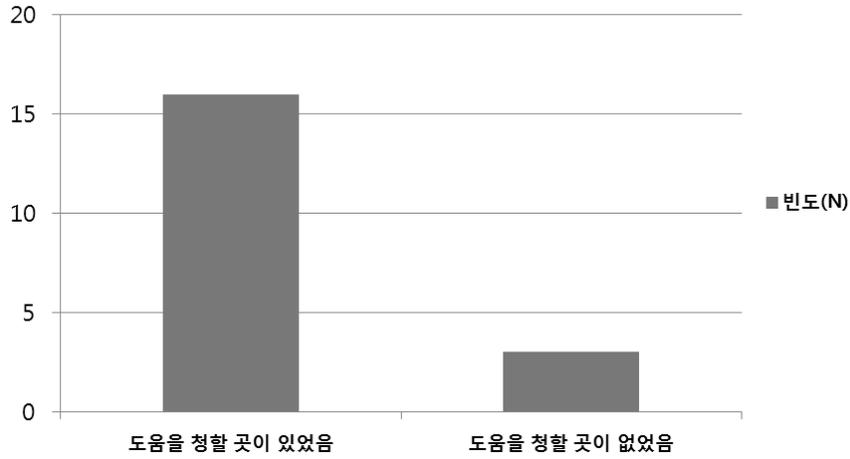
### 8) 학교 밖 폭력에 대한 도움 요청 실태

학교 밖에서 폭력을 당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어떠한 곳에 도움을 청하였는지, 그것이 도움이 되었는지를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문항에 대해서는 피해학생 51명중 일부만이 응답하였는데, 도움을 청할 곳이 있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16명(57.1%)로 나타났고, 도움을 청한 곳은 주로 부모님, 학교 및 학원선생님 등으로 나타났다. 13.6%의 학생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응답함으로써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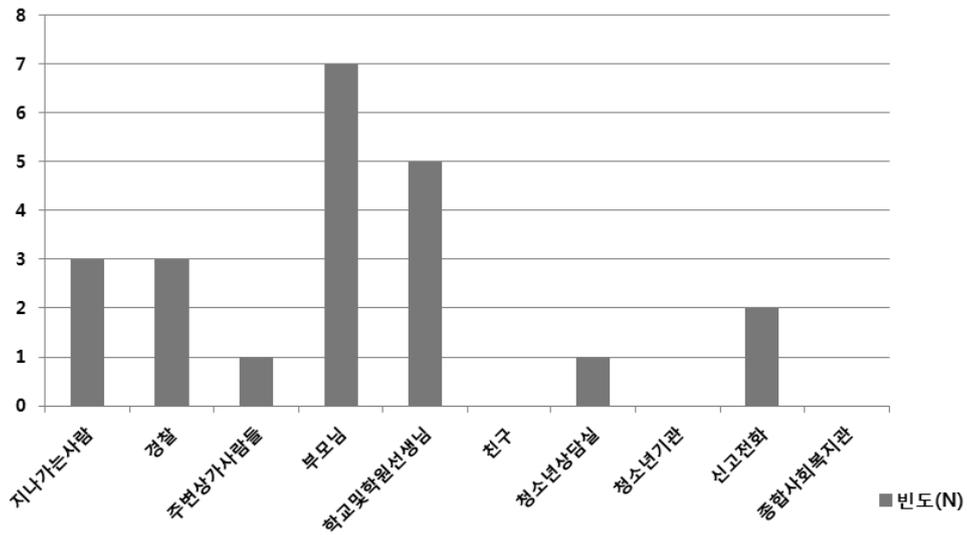
도움을 청한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지를 질문한 결과,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5명(22.7%)에 불과함으로써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인식시키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분		빈도(N)	백분율(%)
도움을 청할 곳의 여부	도움을 청할 곳이 있었음	16	57.1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음	12	42.9
계		28	100.0
도움을 청한 곳	지나가는 사람	3	13.6
	경찰	3	13.6
	주변 상가 사람들	1	4.6
	부모님	7	31.8
	학교 및 학원 선생님	5	22.7
	친구	0	0
	청소년 상담실	1	4.6
	청소년기관	0	0
	신교전화(112, 117, 1388, 다산콜센터 등)	2	9.1
	종합사회복지관	0	0
계		22	100.0
도움이 되었는지의 여부	오히려 더 피해를 보게 되었음	6	27.3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5	22.7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6	27.3
	약간 도움이 되었음	4	18.2
	많은 도움이 되었음	1	4.5
계		2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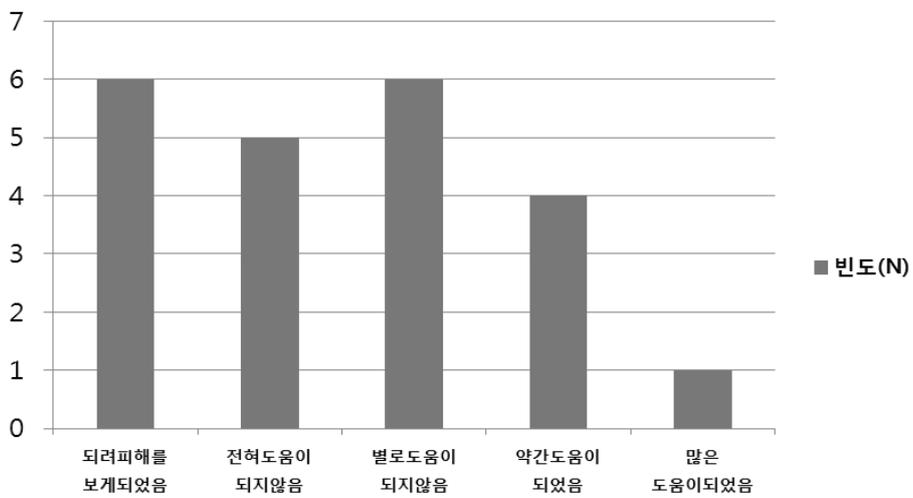
〈표 IV-19〉 학교 밖 폭력에 대한 도움 요청 실태



【그림 IV-13】 학교 밖 폭력 도움요청 가능 여부



【그림 IV-14】 학교 밖 폭력 시 도움을 청한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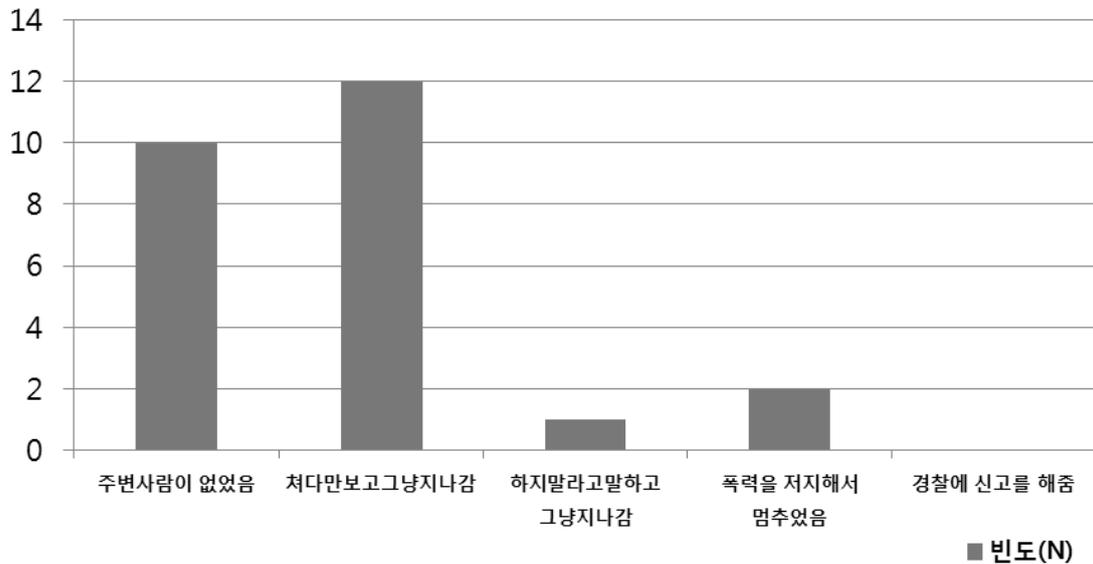
【그림 IV-15】 학교 밖 폭력 시 도움이 되었는지의 여부

### 9) 학교 밖에서 폭력을 당할 때 주변사람들의 태도

학교 밖에서 폭력을 당할 때 주변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가에 대한 질문에 ‘주변 사람들이 쳐다만 보고 그냥 지나갔음’의 응답률이 12명(48.0%)로 가장 높았고 ‘주변에 사람이 없었음’이 10명(40.0%)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N)	백분율(%)
주변에 사람이 없었음	10	40.0
주변사람들이 쳐다만 보고 그냥 지나갔음	12	48.0
주변사람들이 가해학생들에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그냥 지나갔음	1	4.0
주변사람들이 폭력을 제지해서 폭력이 멈추었음	2	8.0
주변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줌	0	0
합계	25	100.0

〈표 IV-20〉 학교 밖에서 폭력을 당할 때 주변사람들의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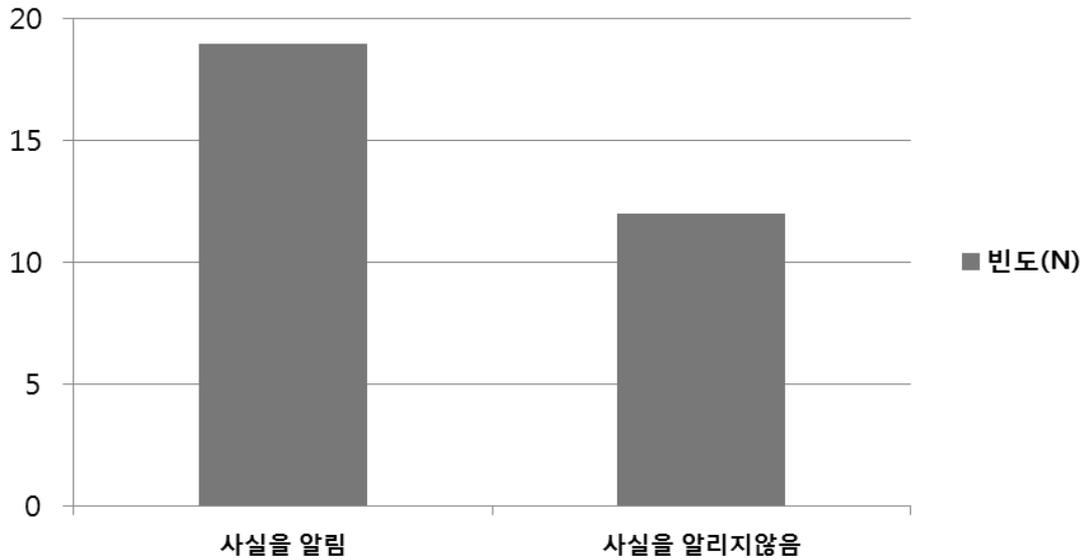
【그림 IV-16】 학교 밖에서 폭력을 당할 때 주변사람들의 태도

### 10) 학교폭력 피해 신고 여부

학교 밖에서 폭력을 당한 후 부모님이나 교사, 경찰 등에게 신고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여전히 7명(27%)의 피해학생이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N)	백분율(%)
학교폭력 사실을 알림	19	73.0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지 않음	7	27.0
합계	26	100.0

〈표 IV-21〉 학교폭력 피해 신고 여부



【그림 IV-17】 학교폭력 피해 신고 여부

#### 10-1) 신고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학교 밖에서 폭력을 당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7명을 대상으로 이유를 질문한 결과 ‘주변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보복이 두려워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빈도(N)	백분율(%)
보복이 두려워서	6	30.0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수치심	2	10.0
자신의 피해를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것	3	15.0

같이서		
주변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7	35.0
상황이 명확하게 바뀔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0	0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충고 또는 개입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	10.0
덜고자로 생각되어져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0	0
합계	2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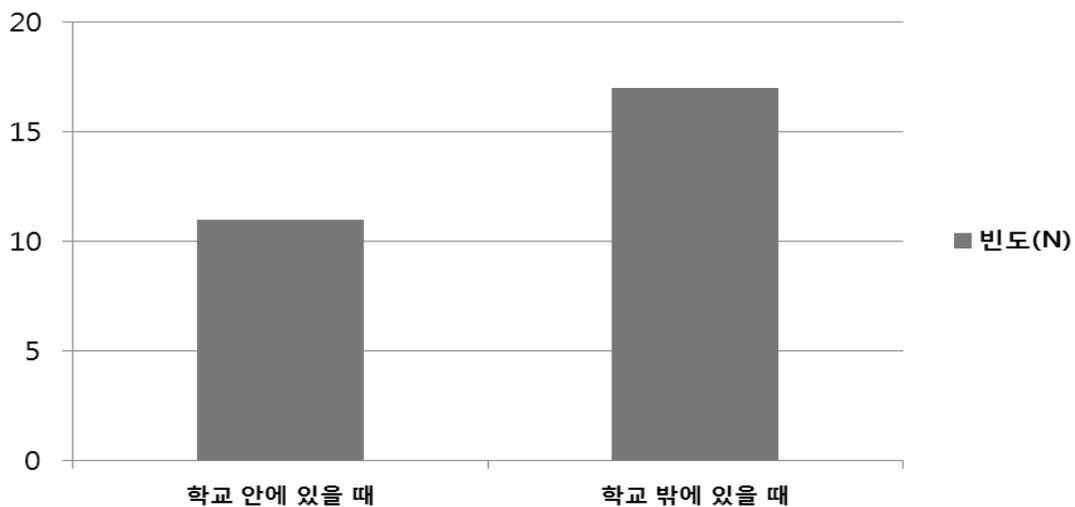
〈표 IV-22〉 신고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 11) 학교 안과 밖의 폭력 피해 비교

학교 안에 있을 때와 밖에 있을 때 중 언제 학교폭력을 더 많이 당하는 편인지를 질문한 결과, 학교 밖에 있을 때가 17명(60.7%)로 더 높게 나타났다.

구분	빈도(N)	백분율(%)
학교 안에 있을 때	11	39.3
학교 밖에 있을 때	17	60.7
계	28	100.0

〈표 IV-23〉 학교 안과 밖의 폭력 피해 비교



【그림 IV-18】 학교 안과 밖의 폭력 피해 비교

## 2. 면담조사 결과분석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15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및 대처 방안’에 대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에는 주제분석(inductive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연구문제를 각 영역별로 개념과 범주로 분류하여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의미한 주제를 발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주로 교육 요구의 평가, 정책형성,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된 평가연구에 많이 쓰이고, 주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주제를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Patton, 1990). 자세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가.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참가자는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령은 주로 18세부터 20세에 해당한다. 연구참가자의 가정 상황을 살펴보면 절반정도가 편부모 가정임을 알 수 있고, 일부는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 별	연 령	비 고
연구참가자1	남	20세	편부모
연구참가자2	여	19세	편부모
연구참가자3	남	18세	편부모
연구참가자4	남	18세	편부모
연구참가자5	남	18세	편부모
연구참가자6	남	18세	편부모
연구참가자7	남	19세	학교밖청소년
연구참가자8	남	18세	편부모, 학교밖청소년
연구참가자9	남	20세	편부모, 학교밖청소년
연구참가자10	여	19세	학교밖청소년
연구참가자11	여	19세	학교밖청소년
연구참가자12	남	19세	학교밖청소년
연구참가자13	여	19세	학교밖청소년
연구참가자14	여	19세	학교밖청소년
연구참가자15	여	19세	학교밖청소년
연구참가자16	남	18세	학교밖청소년

〈표 IV-24〉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면담조사)

## 나. 분석결과

학교폭력의 현황과 대책을 살펴보기 위해 ‘학교폭력, 학교 밖 폭력이 발생하는 이유, 학교 밖 폭력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태도와 개입에 따른 결과, 학교폭력의 대책, 지역 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내용	세부내용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이유	권력관계에서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음
	서로의 차이를 용납할 수 없음
	다툼에서 시작됨
학교 밖 폭력이 발생하는 이유	통제하는 사람이 없음
	폭력을 행사하기에 용이한 장소를 알고 있음
학교 밖 폭력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태도와 개입에 따른 결과	관심이 없음
	관여를 하더라도 폭력을 멈추는데 효과적이지 않음
학교폭력의 대책	CCTV 설치나 순찰을 통한 예방이 필요함
	가해학생들이 낙인감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함
	가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가해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도록 도와야 함
	피해자 경호 시스템이 필요함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음
	유해환경은 많고 유익환경은 부족함
	학교폭력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방법에 대해 알 수 없음

〈표 IV-25〉 면담조사 분석결과

## 1)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이유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폭력 가해학생들로부터 ‘권력관계에서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할 수 없음, 다툼에서 시작됨’이라는 3가지 유형의 답변이 도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권력관계에서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음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은 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강자가 약자를 괴롭힘으로써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발생한다고 응답하였다.

뭐라 설명하지? 그냥 내가 날 무서워하니까. 그러다가 또 한명이 개기면. 그럼 개 후배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000 언니 진짜 무서운데 너 미쳤냐. 고 그런단 말이에요. 000언니한테 맞은 애가 한 둘이 아니라고. 뭐 어찌라고 그러다가, ‘뭐 어찌라고 나 때리면 신고하면 되지.’그래서 저는 신고하려면 신고하라고 하고 때렸거든요. 그런 식이었는데, 매번....어떻게 보면 그거죠, 권력. 학교도 편하게 다니고. 뭐 가지고 오라고 하면 다 가지고 오고. 교과서도 쉬는 시간에 있다가 교실로 딱 들어가면 교과서랑 필기구랑 다 준비가 되어있어요, 제 책상위에....진짜. 우월감을 느끼고 싶고, 권력을 갖고 싶고. 이걸 모든 사춘기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욕망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솔직히 저희가 개네를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위에 설 수 있으니까 때리는 거죠.

(연구참가자 2)

그냥 쉰 애들이 약한 애들 괴롭히고, 애들 앞에서 세보이려고 하고.

(연구참가자 6)

되게 이상하죠? 만약에 힘센 애가 있고 힘이 약한 애가 있어요. 그럼 쉰 애가 약한 애들 툭툭 치고 하는 게 좀 세지면 그렇게.

(연구참가자16)

## ○ 서로의 차이를 용납할 수 없음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보이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피해학생이 자신과 다르다는 점을 용납할 수 없는 마음에서 기인된다고 여겨진다. 가해학생은 자신이 기분이 좋을 때는 피해학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더라도 무시할 수 있지만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는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고 응답하였다.

별로 큰 건 없어요. 내가 기분이 나쁜 데 학교 다니는 애가 눈에 딱 보여요. 그럼 데리고 가서 때리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좋으면 걔 보면 무시하고요. 제가 기분이 안 좋으면 때려요.

(연구참가자 7)

그냥 별로 안 친해가지고 짜증나서 말하다가... 그냥 서로 안 맞아가지고... 별로 안 좋았어요. 제가 되게 안 좋아요. 그때는. 그냥 보는 대로 괴롭혔어요.

(연구참가자 8)

근데 이게 괴롭힐 때요, 이유가 다양해요.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들거나 누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도 그냥 괴롭히고 싶은 거죠. 그런 게 있어요...그냥 마음이 안 든다거나 이게 아마 제일 많이 나왔을 거 같은 데.

(연구참가자 9)

그냥 좀 다르니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 거나 외모 같은 거나 혹은 외적인 거나 내적인 걸로 다르면 그런 거 같아요. 학교 다녀보셨잖아요. 그런데서 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주로 당하는 거 같아요.

(연구참가자12)

그냥 그런 거죠. '재는 좀 마음에 안 든다.'

(연구참가자13)

## ○ 다툼에서 시작됨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학교폭력이 학교폭력 가해자와 학교폭력 피해자 간의 다툼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에는 시비가 붙었어요. 같은 반 아이예요. 친구라기보다는.. 같은 반 애랑 시비가 붙었는데, 밥 먹다가 붙은 거예요. 먼저 줄을 서 있었는데 중딩 때니까 민감하잖아요. 줄을 서있는 데 앞에 와서 지 친구 있다고 서있어서. 그렇게 시작해서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새치기 한 게 기분 나쁘니까. 중딩 때니까. 그냥 괴롭히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사과 계속 안 하기에, 계속 그냥 좀 정도껏? 정도껏 괴롭혔어요.

(연구참가자 1)

## 2) 학교 밖 폭력이 발생하는 이유

가해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로는 '선생님이나 친구들의 시선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 폭력을 행사하기에 용이한 장소를 알고 있음' 등의 의견이 도출되었다. 즉 학교 밖에서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장소에 대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 ○ 통제하는 사람이 없음

안에서는 선생님 눈도 있고 제한적이라 안에서도 좀 괴롭히는데. 밖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제약이. 선생님 눈도 없고 그래서.

(연구참가자 1)

학교 안에서는 보는 눈이 있으니까 밖에서는 보는 눈이 별로 없으니까.

(연구참가자 3)

학교에서는 안 그러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나 친구들 있어가지고 밖에서. 학교에서는 그냥..학교에서 걸리면 제재가 많으니까. 왜냐면 학교에서 걸리면 그런 것도 있고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연구참가자 10)

### ○ 폭력을 행사하기에 용이한 장소를 알고 있음

그냥 그게 더 편하잖아요. 학교 안에는 카메라도 있고, 보는 눈도 많고. 그냥 학교 끝나고 하는 게 편해요. 저희가 아는 장소로 가서 그러는 게.

(연구참가자 2)

### 3) 학교 밖 폭력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태도와 개입에 따른 결과

학교 밖 폭력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태도와 효과를 살펴본 결과, '관심이 없음'과 '관여를 하더라도 폭력을 멈추는데 효과적이지 않음'이라는 응답이 도출되었다.

#### ○ 관심이 없음

가해학생들은 본인들이 학교 밖에서 폭력을 행사할 때 주변에 친구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있었지만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심지어 일부 연구참가자는 공개된 장소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더 수월하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원래 거기에 주민이 잘 안와요. 공원에 양아치가 많아서. 안 좋은 애들이 많아요... 몇 명 있죠. 개네 친구들? 그냥 보고만 있었죠. 말리진 못하고. 어떻게 따지면, 양육강식으로 따지면 저희가 강자였죠.

(연구참가자 1)

노래방 이런데요? 다 저희끼리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학교에서는 솔직히 눈치 좀 까도 웬만하면 안 건드릴걸요. 아파트 놀이터 같은 데서 때리면, 소리 다 나잖아요. 애 울고 하면. 근데 별 관심 없는 것 같던데. 공개된 곳에서 때리는 게 더 신고 안 당하는 거 같아요.

(연구참가자 2)

친구도 있었는데 그냥 집에 가죠. 주민들은 딱히 별로 없었어요. 학교 끝날 시간에 별로 없어요.

(연구참가자 8)

그냥 다들 지나가죠. 솔직히 누가 그런 거 관심 있겠어요? 자기들 알 바 아닌데.

(연구참가자13)

○ 관여를 하더라도 폭력을 멈추는데 효과적이지 않음

일부 연가참가자는 학교 밖에서 폭력을 행사할 때 지역주민들이 제지를 하였지만 그것에 크게 상관하지 않았고 지역주민들이 관여하는 것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언제지? 대학 축제였나? 그럴 거예요. 대학생들이랑 시비가 붙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대학교 입구까지 나온 거예요. 주변 상인들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막 저리 비켜 그러면서 밀치고 그러면서.

(연구참가자 5)

그 자리에서는 멈추죠. 그 후에 또 하죠.

(연구참가자 7)

잠깐도 아니고 앞에 있으니깐 알겠다고 하는 거죠.

(연구참가자 9)

4) 학교폭력의 대책

가해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 CCTV설치나 순찰을 통한 예방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가해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도출되었다. 가해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으로는 '낙인감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가해행위에 대한 처벌강도의 강화, 피해학생들의 입장에 대한 이해,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필요' 등이 제시되었고 이 외에 피해자 경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도출되었다.

○ CCTV 설치나 순찰을 통한 예방이 필요함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CCTV를 설치하거나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구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가해학생들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순찰방법을 제시하였는데, 가해학생들은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할만한 장소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해학생들과 지도교사가 함께 순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좀 한적한 곳에 CCTV가 많이 없어요. 그런 걸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범죄 예방에도 좋고..근데 그걸 설치를 안 해주잖아요.

(연구참가자 1)

CCTV 있으면 못 때려요. CCTV없는 데 찾으러 다니다가 없어서 저희 집에 가서 때리고 그랬거든요? 그랬다가 괜히 같이 때려서 공범 되었거든요?

(연구참가자 2)

골목 진 데 CCTV 달아야겠죠. 요즘 애들은 다 피해서까지 그러니까.

(연구참가자 3)

CCTV? 애들이 CCTV 많이 보거든요. 있으면 다른 데 가자고 하고.

(연구참가자11)

선도부 같은 애들 있잖아요. 방과 후에 시간을 좀 내서 주변 돌아다니고.. 무슨 규칙위반해서 뭐 받는 애들 있잖아요. 흡연해서 걸려서 주변청소하고. 그런 애들이 조용한 곳 잘 알아요. 선생님이랑 주변 교칙 걸린 애들이 다녀도 좋을 것 같아요.제가 원래 다니는 고등학교가 000고등학교예요. 그땐 그렇게 했어요. 학교 끝나면 거기 가서 하루에 수십 명 걸리고. 선도부 선생님이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위치를 다 아니까 피는 애들이 다 걸렸어요. 저희는 그랬어요.

(연구참가자 1)

#### ○ 가해학생들이 낙인감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함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지만 학교 안에서는 낙인감으로 인해 상담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즉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해학생들이 학교 밖 상담실 혹은 학교 시간 이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상담해주는 선생님 같은 분, 00쌤이나 있으면 편할걸요? 아무래도 마음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냥 저희가 맨 처음부터 애들을 때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화장하고 까진 애들. 아직 완전 초기. 그런 애들 상담하면서. 그런 애들은 거의 집에 문제가 있어요. 10명 중에 9명? 그래서 아예 초기부터 올바르게 한다면.

(연구참가자 2)

학교 밖에서도 지원을. 그러니까 상담선생님이라고 해야 하나. 지금도 학교 안에서도 위클래스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애들 말 들어보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위클래스 같은 거나 상담 같은 거를 애들이 알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생각해요. 애가 지속적으로 말할 수 있는 선생님이요. 학교에서 애들 다보는 데 상담 말고 학교 끝나고 하는 거요... 피해자들이 심리적인 게 있는 데 가해자들도 자기네들 문제가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상담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경험에는 없는 거 같은데. 애들 인식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스트레스를 풀 다른 거. 다른 게 없으니까 하는 거니까. 움직일 수 있는 것들. 애들 다 반으로 상담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하면 이상하진 않잖아요.

(연구참가자10)

#### ○ 가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이 외에도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방법은 한 가지죠. 폭력 벌 받는 걸 수위를 높이는 것 밖에 없죠. 요즘엔 그냥 때리고 합의 봐주면 끝이니까. 한두 번 갔다 오면 정신 차려요. 저 3번 갔다 왔거든요? 이제는 애들 싸우면 막 도망가요. '나 진짜 간다, 진짜 간다. 그러면 친구들이 '00 우리 끝나고 전화할게.' 그래요. 왜냐면 전 공범으로도 바로 소년원에 가거든요. 이제는.

(연구참가자 2)

아예 학교폭력을 못하게 모든 애들에게 강한 한 번 걸리면 학교에서 퇴학처리를 한다거나.

(연구참가자 4)

####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학교폭력을 근절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도출되었다.

그냥 학교폭력 하는 애들 똑같이 때려야죠. 그럼 지네도 안 할 거 같은 데. 똑같이 하면 지네도 힘드니까 개네도 생각을 하겠죠. 두 대 때릴 거 한 대 때리

고 그러지 않을까요?

(연구참가자 7)

우선 가해자들이 자기들이 폭력을 하는 것을 당하는 입장이 돼서 생각해보고 ‘아, 애네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구나.’하고 깨달아야 폭력이 끝나지,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끝나지 않을 거 같아요.

(연구참가자16)

### ○ 가해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도록 도와야 함

일부 연구참가자들은 학교폭력 가해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도록 돕는다면 학교폭력이 근절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저는 소년원에 가서 많이 느꼈어요. 저는 소년원에서 수업을 하면서 느꼈는데,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그때 저의 미래를 봤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계속 내가 이런 짓을 해서 자주 들어오게 되면 20살 넘으면 성인이고. 그때는 이제 소년이 아닌, 소년법이 아니잖아요. 아예 성인법으로 형사처벌 되잖아요. 형사처벌 되는 데, 저의 인생이 좀 무너질 것 같다. 나중에 결혼하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애도 낳아야 하는 데. 그 소년원 하나만으로도 저는 안 좋게 생각해요.

(연구참가자 1)

### ○ 피해자 경호 시스템이 필요함

학교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시간대인 등·하교 시간에 피해학생을 보호해줄 수 있는 성인이 동행한다면 학교폭력을 줄이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보호해주는 것? 보호해주는 남자 어른이나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효력이 있었을 거 같아요. 데려다 준다던지 하굣길에. 등굣길에 괴롭히기가 좀. 학원가는 거 봐주는 거 그러한 것. 그런 시간대에 했으니까.

(연구참가자 10)

## 5)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이 지역사회 환경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에게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점, 가해학생들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환경에 대해서 면담조사를 한 결과 지역주민들의 무관심과 적대적인 시선을 느끼고 있었고 학교주변에 유해환경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 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참가자가 대다수였다.

### ○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음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은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주민들끼리는 친했는데, 저희학교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희가 상가 건물에서 담배피고.. 그래서 우리학교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PC방이랑 노래방이 소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더 몰리니까 PC방에서 담배피고, 노래방에서 담배피고. 그럼 주변 주민들도 노래방이나 PC방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주민들이 저희 학교를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학교가 저희밖에 없어요.

(연구참가자 1)

안 말릴 걸요? 한국인들은 불똥 튀는 거 싫어하잖아요.

(연구참가자 5)

그냥 자기 살기 바쁜 거 같아요. 그냥 한 번 보고 지나치는? 그렇게 넘어가는 거 같아요.

(연구참가자11)

솔직히 말해서, 안도와주는 분도 계시고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간단히 도와주실 거 같아요. 너네 그러지 마라, 하지마라정도.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될 거 같아요.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런 생각이 제일 많죠.

(연구참가자16)

○ 유해환경은 많고 유익환경은 부족함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청소년 유해환경은 많고 유익 환경은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일단 학교 주변에 되게 많았어요. 그니까 그 지역이 좁잖아요. 거리마다 술집 이나 이런 게 다 있어요. 그게 안 좋았어요.

(연구참가자 1)

00동(학교근처지역)은 좀 그렇죠. 골목도 많고, 집도 허물어진 데도 많으니까. 밤에 새벽에 다니면 무서워요. 저희 동네는 신도시여가지고 잘 되 있는 데 00동은 좀. 그냥 좀 말하기가.. 00동은 좀 빈곤층이 많고 000동은 좋은 게 많은 데, 00역 뒤쪽으로 가다보면 집이 허물어 진 데가 많아서 딱 봤을 때는.

(연구참가자 3)

그건 아니고, 밤에 환경이 안 좋죠. 주변이 재개발 때문에 외진 곳이 많아요. 이곳, 저곳 다 밀어놔서 철거할 때까지 시간 있으니까. 거기서 술판 벌이고.

(연구참가자 5)

동네에 양아치가 많아서. 진짜 양아치가 너무 많아요. 양아치가 많고 문신한 사람도 많아요. 00동 그 쪽 가면 문신한 사람도 많고 너무 그래요. 형의 주민 등록증이나 아무 주민증 빌려가지고..담배를 아무데서나 살 수 있어요.

(연구참가자 7)

00로테오거리에는 10시 넘으면 검은 정장 입으신 오빠라고 해야 하나? 빠끼 들이 교복 입은 학생들한테 나이트 들어가라고 하고.. 호텔 바 같은 것도 많거든요? 거기 가면 신분증 확인 안하고 담배 같은 것도 교복 입었는데 주고.

(연구참가자10)

유익한 환경이 아예 없는 것 같은데, 골목길이나 주점.. 원래 동네 그런 거 없지 않아요? 청소년들한테 좋은 환경 이런 게, 수련관이나 이런 거는 거의 다 산 속에나 있지, 집 주변에는 없잖아요. 있어도 구청 이런 것만 있고. 도움 되는 게 없는 거 같은데.

(연구참가자11)

좋은 환경은 없죠.

(연구참가자16)

○ 학교폭력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방법

학교폭력 발생 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많은 연구참가자들이 학교폭력 발생 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

거기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로 들었는데. 일단 학교, 경찰서, 아 어떻게 하면 네 군데구나. 부모님도 들 수 있고. 학교폭력위원회인가? 학교폭력 검증…….아 들었는데. 학교폭력에 대해 전화하면 상담할 수 있는 곳.

(연구참가자 1)

잘 모르고 거기서는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도만 알아요. 근데 그것도 잘 안준다고 알고 있는 데, 전화하면 잘 안 받고.

(연구참가자 5)

아니요. 그냥 신고하면 되지 않아요?

(연구참가자 6)

학교폭력 전화해서 하는 거 있지 않아요?

(연구참가자 7)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연구참가자 8)

### 3. 문제점 분석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 1,186명을 대상으로 ‘학교(안, 밖)폭력에 대한 인식과 실태, 대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16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로부터 도출된 문제점과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이 학교 안으로 집중되어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학교 밖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실태조사 응답자의 48.5%가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밖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하였고, 학교 밖에서는 가해학생들을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더 쉽다고 지적함으로써 학교폭력 대처가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학교 밖에서도 함께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면접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학교 안에서는 CCTV, 교사, 친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적이지만 학교 밖에서는 교사나 친구들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친숙한 장소(아지트)를 정해서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가해학생들은 주로 한적한 공원이나 아파트 놀이터 등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변에 지역주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고 제지를 해도 별로 개의치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학교 밖에서도 발생하고 있고, 전혀 모르는 대상을 상대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 안에서 발생했던 문제가 밖으로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은 학교 안과 밖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피·가해학생 상담서비스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는데, 면접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은 가족문제나 그 외의 스트레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하지만 상담교사가 없다는 점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학교 내에 상담교사가 있지만 학교 안에서 상담을 받게 되면 낙인감이 생기기 때문에 위클래스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꺼려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학생상담을 학교가 아닌 지역사회 중심으로 진행한다면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 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40%의 응답자가 학교 밖 시간대에 폭력이 발생하며 학교 밖

에서 폭력을 당할 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경찰서나 교육청 외의 지역기관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대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면접조사에서도 가해학생들은 학교 밖에서 폭력을 행사할 때 자신들을 제지하는 사람도 없고, 제지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 지역주민들의 무관심과 적대적인 시선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지역사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이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본 조사의 응답자들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지역사회 내에 안전망을 구축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 CCTV 설치, 피해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 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하다.

지역사회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교폭력을 단순히 학교의 문제로 바라보는 폐쇄적인 시각이나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서의 지역사회의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즉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있어서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라는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하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도 학교폭력과 관련된 지역기관들의 역할에 대해 알지 못하고 중요성에 대해서도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대한 정책이 학교 중심으로 마련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는 지역사회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거나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알기는 어렵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학교 내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라는 생각을 버리고 이 문제를 지역사회로 끌어내어 지역사회 속에서 이 문제를 새롭게 조명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V.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체계 구성방안 및 제언

### 1. 연구내용 요약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기관의 연계를 통한 학교폭력 대응체계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이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크게 네 가지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것은 학교폭력 대응체계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학교폭력 대응 관련 지역사회 네트워크 현황조사, 실태조사 분석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지역의 학교폭력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구성방안과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학교폭력 대응체계 및 지역네트워크 선행연구

##### 1) 학교폭력 대응관련 정부대책

학교폭력 대응관련 정부대책으로 2012년에 발표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과 2013년에 발표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살펴보았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학교폭력 대응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검토하고 재편하였으며,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은 예방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부대책들이 기존에 제안된 대책들과 별 차이점이 없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 2) 학교폭력 대응관련 지역사회네트워크 국내 사례분석

국내사례로는 방배유스센터에서 실시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델 ‘컴넷’, 청소년기관 중심의 학교폭력지역네트워크 모형, 학교·교육청 중심의 학교폭력 지원모형, Wee 센터, CYS-Net을 분석하였다. 독일의 학교폭력 모델인 ‘컴넷’을 바탕으로 한국의 지역사회에서 학교폭력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학교폭력지역네트워크 모형을 통해 전문상담가·기관의 연계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학교폭력 지원체계 모형은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Wee 센터는 지역사회 지원망을 통해서 위기 청소년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CYS-Net은 지역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 구조, 및 치료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지역사회 내에서 학교폭력 대응에 관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왔지만, 학교폭력 전문담당자의 부재, 청소년관련기관 및 유사기관들과의 연계부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자원의 부재 등으로 그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는 학교폭력 허브기관의 역할, 학교폭력 전문가, 지역에 있는 청소년관련 기관 및 지역 인프라 이용 등이 필요해 보인다.

지역의 학교폭력 네트워크 사례는 노원청소년수련관의 호루라기센터, 담양고등학교의 생활지도 프로그램, 송파구의 학교폭력예방사업,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기숙형 종합지원센터를 실시한 대전광역시 해맑음센터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는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학부모·지역사회 주민들의 인식부재,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내용부실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학교폭력 프로그램의 구성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명확한 역할 제시 등이 필요해 보인다.

학교폭력관련 기관으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피해자를 대상으로 의료·상담·법률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기관들은 담당자들의 과중한 업무부담, 학교폭력 피해자의 상담회피 등과 같은 문제점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 대상별 프로그램의 확대와 학교폭력업무 담당자들의 처우 개선 등이 시급해 보인다.

### 3) 학교폭력 대응관련 지역사회네트워크 국외 사례분석

국외의 학교폭력 네트워크 사례는 일본, 미국, 노르웨이, 독일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본은 학교폭력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대책으로 학교, PTA, 교육위원회 및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학교폭력 탈학습 계획, 비폭력 지역사회 운동, 학교안전계획안, 보스턴의 종합 커뮤니티 프로그램, Flint의 청소년폭력예방센터를 살펴보았다. 노르웨이는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매니페스토와 올베우스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 독일은 지역사회 폭력예방과 학교에서 학교폭력 발생 비상대책방안을 살펴보았다. 국외 사례의 경우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구성의 한계,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어려움 등이 문제로 야기되었다. 따라서 학교폭력 유형 및 대상별 프로그램 제공, 지역사회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 등이 필요해 보인다.

### 4) 학교폭력 대응관련 서울특별시 조례분석

서울특별시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지만 서울특별시의 17개 구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17개 구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는 공통적으로 조례의 목적, 학교폭력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학교폭력대책협의회의 설치·구성·기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차이점으로는 일부 구에서는 위원의 임기, 위원

의 해축, 기본계획수립, 구민의 책무와 실태조사, 학교폭력예방센터 등의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 나. 학교폭력 대응관련 지역네트워크 현황조사

본 조사연구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포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들을 조사하였다. 각 기관들의 학교폭력 대응관련 사업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2014년 5월 23일~6월 20일까지 대상 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학교폭력 대응관련 사업현황 및 전문가 의견조사

###### 가) 청소년기관의 학교폭력 관련 사업 현황

- 청소년수련관은 관련프로그램이 없었고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캠페인 및 예방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학교폭력 예방차원에서 학급단위의 학교폭력예방 또는 사회성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모든 기관에서 전담 인력은 없었으나,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청소년기관들은 대체적으로 학교 및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청소년기관들은 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하여 예방적 측면의 사회성 함양 및 학급내 문화 조성 등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나) 관련기관들의 학교폭력 관련 사업 현황

- Wee센터 및 경찰서를 제외하고 학교폭력 대응에 대한 구체적 지원 사업은 없었고 지원 가능한 서비스는 있었으나 프로그램화 되어 있지 않음
- 연계적 측면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각각의 기관이 서로 필요한 부분에 연계를 형성하여 각 기관의 업무 내용을 교류하고 있음
-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청소년의 학교폭력 상담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를 업무 과정에서 발견할 경우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보호관찰소의 경우 상담이수 명령자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계하여

지역사회 내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Wee센터의 경우 경찰서 및 교육청, 학교와 연계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 다)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

- 지역사회 내 학교폭력 예방 및 조치를 총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대응 등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이 필요함
- 청소년 상담과정과 학교폭력 대응은 상이한 측면이 있으므로 학교폭력 처리에 대한 전문 인력이 필요함
- 학교폭력 관련 청소년의 가정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측면의 지원이 필요함
- 관련 학생들에게 진로 찾기 및 힐링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가해 및 피해 대상 적용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효과성 검증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인력 및 예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학교폭력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이상의 결과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하여 지역사회가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각 기관별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측면에 대하여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사건 발생 시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현재의 시스템을 탈피하고 체계적인 예방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2) 학교폭력 대응관련 지역사회네트워크 현황 및 사례

- 청소년지원연합회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청소년 및 관련 기관의 실무자들과의 공동사업추진, 정보교환 및 업무교류를 통해 다각적인 청소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형성된 네트워크임
- 각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원봉사, 징계·선도, 가출·학대피해, 진로·자립, 문화·여가, 가족·상담, 방과 후 학습, 빈곤층지원으로 나누어 청소년에게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영역화 함
- 실질적인 학교폭력 대응체계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업무 교류를 통하여 학교폭력 관련 사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각 기관의 업무로 인하여 회의 참석에 다소 소홀한 기관이 있었으며, 일부 연합회 구성에 변화가 발생하는 등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

- 향후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체계로서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측면에 대하여 운영 지원 및 업무 조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다. 실태조사 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폭력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1,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그 중 1,186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은 SPSS 18.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t-test 및 일원배치분산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면담조사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16명을 대상으로 ‘학교 밖 폭력이 발생하는 이유, 학교 밖 폭력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태도와 개입에 따른 결과, 학교폭력의 대책,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고 주제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 결과,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에서는 178명(15.0%)이 학교 밖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다고 응답하였고 발생 원인으로서는 학교 안에서 발생한 문제가 학교 밖으로 연결되는 것임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575명(48.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는 ‘학교 및 학원 주변에 CCTV 설치 운영’이 524명(44.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역사회 내 기관들로부터 학교폭력 대처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지를 질문한 결과, 경찰서가 1,009명(8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교폭력 실태를 살펴보면, 최근 1년간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한 학생은 51명(4.4%)으로 나타났고 피해 장소는 학교 안의 장소에서 폭력을 당한 경험이 73회, 학교 밖의 장소에서 폭력을 당한 경험이 47회로 나타남으로써 학교 안에서의 폭력 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폭력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경험이 있는 51명의 학생 중 14명(27.5%)이 학교 안에서 당하던 폭력이 학교 밖으로 연결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학교 안에서 당하는 폭력과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면담조사의 결과는 크게 5개의 영역으로 주제가 분류되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면담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는 권력관계에서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음, 서로의 차이를 용납할 수 없음, 다툼에서 시작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는 통제하는 사람이 없음, 폭력을 행사하기에 용이한 장소를 알고 있음이었다. 학교 밖 폭력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태도와 개입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음, 관여를 하더라도 폭력을 멈추는데 효과적이지 않음이라는 응답을 하였다. 한편, 학교폭력의 대책으로는 CCTV 설치나 순찰을 통한 예방이 필요함, 가

해학생들이 낙인감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함, 가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가해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도록 도와야 함, 피해자 경호 시스템이 필요함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음, 유해환경은 많고 유익환경은 부족함, 학교폭력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방법에 대해 알 수 없음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로부터 도출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이 학교 안으로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학교 밖에서도 발생하고 있고,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밖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학교폭력의 예방이나 근절 대책은 지나치게 학교 안의 정책으로만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40%의 응답자가 학교 밖 시간대에 폭력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에서 폭력을 당할 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가해학생과의 면담조사에 따르면 학교 밖에서 폭력을 행사할 때 자신들을 제지하는 사람도 없고, 제지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 지역주민들의 무관심과 적대적인 시선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현재 지역사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이 부족한 편이다.

셋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로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학교폭력과 같은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있어서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 2.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체계 구성방안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체계 구성방안과 관련하여 단기과제와 장기과제로 구분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체계 구성방안의 경우, 단기간에 시행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해당 기관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학교폭력이 심각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연구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사회에서 학교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 가. 단기 과제: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

#### 1) 코디네이터의 양성 및 배치

현존하는 지역의 네트워크들을 보면, 구성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어떤 네트워크들은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네트워크 구성이 잘 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네트워크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트워크 활성화의 일환으로 인적 자원의 제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존의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관리하는 전문가가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네트워크를 운영하였다. 네트워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각 기관과 허브기관의 인적 자원은 각각 그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독립적으로 일을 할 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서로 협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를 중재하는 전문가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의 네트워크에서는 이러한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각 네트워크에 이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코디네이터라는 전문가가 배치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네트워크 사례를 보면, 유스어드바이저라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스어드바이저를 벤치마킹하고, 우리 지역의 현실을 감안한 코디네이터가 네트워크 활성화에 필요하다.

코디네이터들이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관에 1-2명이 배치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들이 일을 하는 별도의 기관이 필요한데, 그 형태는 진로직업체험센터와 같은 전담기구가 효율적이다. 진로직업체험센터는 4명 정도의 인력이 적은 예산을 사용하면서 많은 실적을 내고 있다. 이것은 학교와 지역의 자원을 잘 네트워킹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을 위하여 우선 전담기구를 마련하고 코디네이터를 배치한다면 기존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한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전담기구는 여러 형태로 설립이 가능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이

것은 진로직업체험센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기관에 소속될 수도 있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 노원청소년수련관 호루라기센터의 형태를 띄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네트워크 코디네이터들은 기존의 전문가와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트워크 코디네이터들의 기본적인 소양은 청소년에 대한 이해,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 기술 등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네트워크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통해 전담기구에 배치된다. 이 과정에는 주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사 등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 2) 지역사회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본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스트레스가 높아지거나 고민이 생겼을 때 학교 안보다는 학교 밖에서 교육이나 상담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주된 이유는 학교 안에서 교육이나 상담을 받을 때 갖게 되는 낙인감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나 치유프로그램은 대부분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그 간의 노력들이 주로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로 인해 지역사회는 학교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거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수단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이 더 이상 학교 안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 학교 밖에서도 발생하며 더욱이 학교 안에서 발생한 문제가 학교 밖으로까지 연결, 확대되는 상황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이 학교 안으로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학교폭력을 근절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숲체험’과 같은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수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학교폭력은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분노, 우울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연친화적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것은 학교폭력을 근절하는데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숲체험 프로그램은 활동성이 강한 체험형 프로그램이므로 청소년들의 신체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발산하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전인적 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이킹 프로그램’도 고려할만하다. 기관 전문가 면접에서 한 청소년수련관의 ‘제주도 하이킹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들의 경험 사례가 조사되었다. 참가한 청소년들은 그 프로그램을 통하여 ‘나도 해냈구나’라는 성취감을 느끼게 되면서 그동안 위축되어 있거나 모든 것에 귀찮아하는 성향을 나타내는 참가자들이 변화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내부적 변화는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교 중심보다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는데 개별 학교나 청소년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 중 학교폭력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연루된 학생들을 지정된 허브기관으로 모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수련시설 내에 ‘허브센터’를 설치하고 이 센터에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정신보건사, 숲해설사 등이 상주하게 하고 지역 내의 다른 청소년기관이나 학교와 연계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학교 중심형 프로그램보다 더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3) 네트워크를 활용한 학교폭력 관련 공동사업 추진 및 지원

학교폭력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은 선행연구 및 조사 분석의 결과에 제시된 바이다. 그러나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의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은 기관에 따라 제한적이며,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하여야 한다는 시각 또한 부족하였다. 학교폭력 문제를 지역사회 내의 문제로 인식하고 공동의 노력으로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네트워크에 포함된 기관이 함께 하는 공동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네트워크의 경우 공동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각 기관에서 일부씩 분담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기관의 경우 대체로 예방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관련 기관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미진한 상태였다. 사회의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고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에 대해 각 기관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은 협의만으로는 어렵고, 실제로 학교폭력 대응 관련 공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명확해 질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에서 발견되는 학교폭력 사례에 대하여 관련 기관의 연락처만을 알려주기 보다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 학교폭력 관련 공동의 사업 추진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 사업의 추진 과정을 통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내 전문가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각 기관들의 적정한 조치방법을 교류한다면 사례 발견 시 적극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4) 분쟁조정제도의 개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면 학교

폭력 분쟁조정은 분쟁당사자들의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당사자들에게 주는 2차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학교의 선생님들이 참여하여 분쟁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분쟁조정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합리성을 담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인하여 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학교폭력 관련 분쟁조정기능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분쟁조정기관이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피해학생 혹은 가해학생과 관련이 없는 제3의 기관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독립된 기구의 설치가 어렵다면, 지역에 있는 청소년관련 기관 및 단체나 지역교육청 등과 같은 기관을 활용하여 학교폭력관련 분쟁조정 기능을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나. 장기 과제: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체계 구성방안

### 1) 지역사회 학교폭력 네트워크 구성

#### 가)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 구성의 방향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에는 고려해야 할 조건들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히로이(2009)가 제시한 학교폭력을 포함한 위기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자립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의 조건에 기초하여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한다. 히로이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네트워크의 경우,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했다.

첫째, 네트워크는 중층이어야 한다.

이것은 네트워크가 종단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네트워크에는 학부모, 단체, 기업, 행정기관과 같이 다양한 행위자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차원이 다른 행위자가 네트워크에 다양하게 포함되어야 높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는 청소년,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과 같은 개인적 차원, 기관이나 단체와 같은 중간차원, 행정기관과 같은 다양한 행위자를 포함하는 종단적 네트워크이다.

둘째, 네트워크는 복합적이어야 한다.

네트워크가 복합적이라는 것은 네트워크에 포함된 행위자의 영역이 다양해야 한다는 것, 즉 횡단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폭력 피해청소년의 상담지원에만 관심을 가지는 단체로만 구성된 네트워크라든지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만으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아니라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 영역, 즉 의료, 교육, 복지, 법률, 고용 및 취업지원 등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한 행위자로 구성된 네트워크여야 한다. 대부분의 네트워크에서는 특정 문제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이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횡단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네트워크는 청소년기관, 의료기관, 기업, 학교, 경찰서, 법률 자문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한다.

셋째, 네트워크는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네트워크에서는 각 네트워크에 포함된 행위자들이 협력하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해당 네트워크는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네트워크로 발전하게 된다. 예를 들어, 외국의 경우 병원에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팀이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사례가 된다. 본 연구의 네트워크에서는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팀을 구성하여 네트워크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도록 하였다.

넷째, 네트워크는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

네트워크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구, 군 동) 단위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학교폭력 피해청소년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기관을 지역별로 설치하는 것도 방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25개 구별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 여러 구 중에서 마포구를 선정하여 “마포구 학교폭력 대응체계”를 구성하였다. 네트워크의 허브 기관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네트워크는 청소년중심이어야 한다.

이것은 네트워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인하여 궁극적으로는 청소년들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의 네트워크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역량이 강화되어 학교폭력이 감소하거나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네트워크의 조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
1. 종단적 네트워크	-1차 안전망: 청소년,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2차 안전망: 청소년기관, 학교, 의료기관 등 -3차 안전망: 서울특별시, 서울시교육청
2. 횡단적 네트워크	-허브기관 인력: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 -청소년기관, 학교, 의료기관, 경찰서, 법률 자문기관 등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
3. 시너지효과	-허브기관 인력: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 -허브기관은 원스톱 서비스 제공
4. 지역사회	-서울시의 25개 구별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 구축 -마포구의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 제시
5. 청소년중심	-예방과 역량 강화에 초점

〈표 V-2〉 히로이가 제시한 네트워크 조건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의 관계

## 나)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 모형

히로이가 제시한 학교폭력을 포함한 위기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자립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의 조건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 네트워크 모형은 허브기관과 1,2,3차 안전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네트워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게 될 허브기관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고,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발견, 예방, 치유의 기능을 하게 된다. 네트워크 허브기관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찾아오거나 의뢰한 청소년,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에게 일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원스톱서비스의 의미는 학교폭력 발생 이후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학교폭력을 발견, 예방, 치유의 측면에서 모두 다룬다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학교폭력의 발견, 예방, 치유를 모두 담당하지만 특히 예방에 초점을 맞춘 역할을 하고자 한다. 적극적인 예방을 통하여 학교폭력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 과정에서 청소년의 역량개발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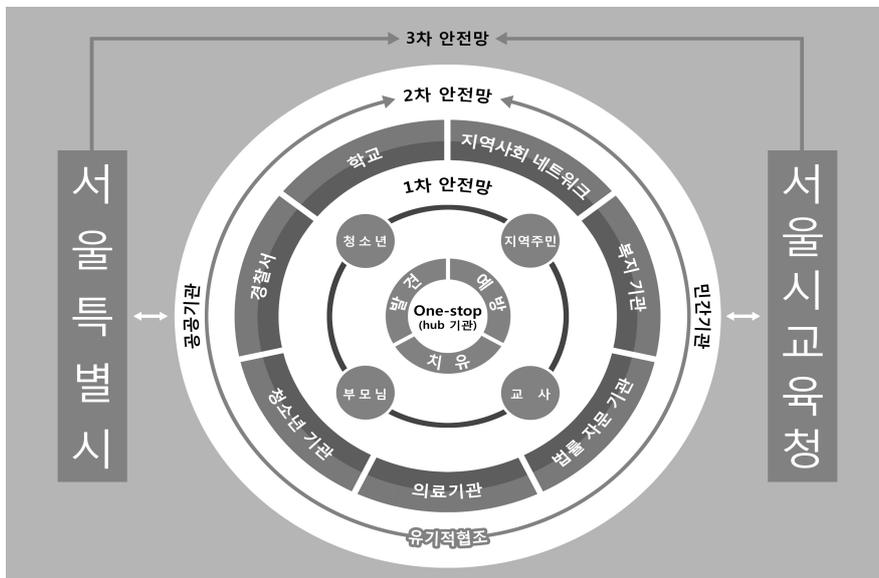
또한 이 허브기관에서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을 직접 다룰 수 있고, 현재 학교에서 운영되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이곳에서 할 수도 있다고 본다. 청소년학교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에서도 분쟁조정해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에 학교나 청예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능을 새로 제안하는 네트워크의 허브기관에서 또 다시 제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담당함으로써 교장, 교감, 교사의 업무가 증가하여 과도하게 되고 이는 학교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간과할 수 있다. 둘째,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을 객관적으로 직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즉,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있어서 독립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교폭력 관련 학부모들의 불만과 불신으로도 알 수 있다. 셋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문성 문제이다. 학교폭력 예방법에 의하면 다양한 전문가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이것 또한 학교폭력 관련 학부모들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불신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넷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사소한 학교폭력까지 다루고 있는데, 이와 같이 경미한 사건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에서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청예단에서 분쟁조정해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의가 없으나 청예단의 분쟁조정해결기관이 지역사회마다 있어야 한다고 본다. 다른 청소년문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학교폭력은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청예단에서 담당하는 기능이 적어도 구 단위마다 있어야 한다.

1차 안전망은 지역의 개인 차원으로 여기에는 청소년,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이 포함된다. 이들은 허브기관과 일차적으로 소통하면서 학교폭력에 대응한다. 1차 안

전망에 속하는 개인은 학교폭력에 관한 인식, 대응방안 등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브기관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실시한다. 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실시될 것이지만 학교폭력이 지역사회에서 발견되었을 때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알도록 한다. 본 연구의 네트워크에서 1차 안전망의 구성원이 개인으로 구성된 것은 히로이의 제안을 따른 것으로 기존의 다른 네트워크에서는 이 부분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히로이의 네트워크 구축의 조건이 아니더라도 지역사회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개인이 네트워크의 1차 안전망이 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2차 안전망은 청소년기관, 학교, 의료기관, 경찰서, 법률 자문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차 안전망은 기존의 다른 네트워크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네트워크의 2차 안전망의 역할은 기존의 네트워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차이점은 네트워크 안에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을 포함시켰다거나 청소년기관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3차 안전망에는 서울특별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있다. 대부분의 네트워크에서 가장 상위집단이 행정기관인 것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3차 안전망에서도 행정기관이 자리 잡고 있다. 단지 본 연구는 서울시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중앙행정부처와의 연계는 불필요하므로 제시하지 않았다. 3차 안전망에서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긴밀한 협조하에 지역사회의 허브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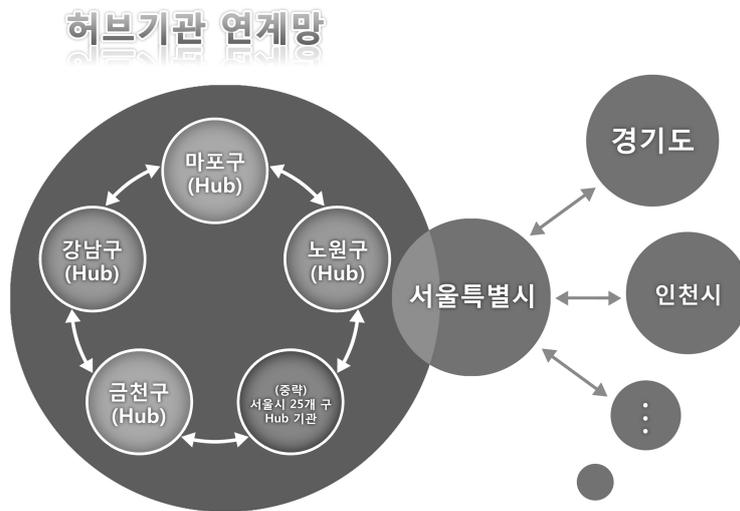


【그림 V-1】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 모형

서울시의 또 다른 역할은 필요한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서울시 각 구의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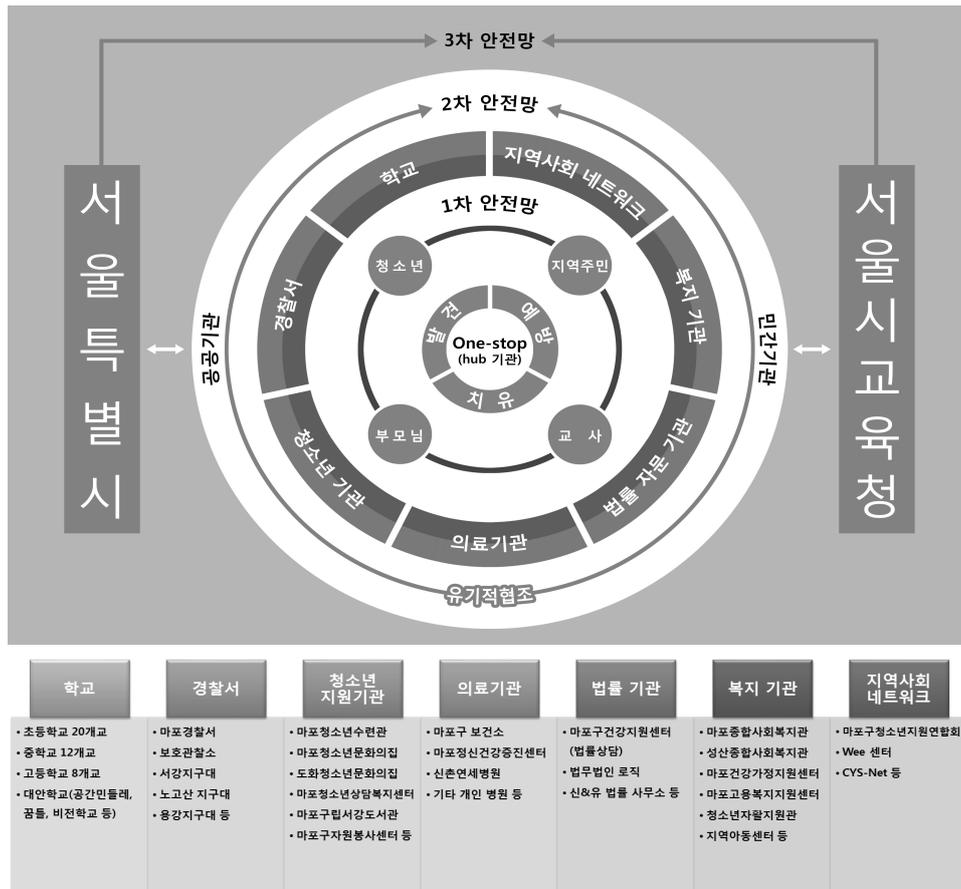
폭력 대응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의 청소년과 경기도나 인천시와 같이 인근 지역의 청소년이 학교폭력에 연루되었을 때, 현재의 네트워크 시스템은 각 지역사회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 때 경기도, 인천시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의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지원해준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각 구에서도 각 구의 허브기관 간의 연계를 통하여 같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사회와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가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 마포구의 청소년과 경기도 일산의 청소년 사이에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가 업무협약을 맺음으로써 이러한 사례도 마포구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가 구 중심으로 구축되기 때문에 각기 다른 구의 청소년이 포함된 학교폭력의 대응의 경우, 다른 구의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노원구와 금천구의 청소년이 연루된 학교폭력의 경우, 노원구와 금천구의 네트워크가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의 <그림 V-2>와 같다.



【그림 V-2】 각 구의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 서울시, 경기도 등 인접지역 간의 연계

한편,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의 모형을 마포구를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V-3>과 같다. 마포구의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는 <그림 V-1>의 모형을 근거로 해서 네트워크가 가능한 마포구의 학교, 경찰서, 청소년지원기관, 의료기관, 법률기관, 네트워크와 같이 2차 안전망을 중심으로 제시했다.



【그림 V-3】 마포구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

마포구의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는 1, 2, 3차 안전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 안전망은 마포구의 청소년,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주민이다. 이들은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의 원스톱서비스 허브기관과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마포지역의 학교폭력 발견, 예방, 치유에서 1차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2차 안전망은 이 네트워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주로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의 원스톱서비스 허브기관의 네트워크 코디네이팅팀과 협력을 통하여 마포구의 학교폭력에 대응하게 된다. 즉, 2차 안전망에 포함된 다양한 기관은 원스톱서비스 허브기관의 네트워크 코디네이팅팀과의 연계를 통하여 사례를 의뢰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사례를 의뢰할 수도 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2차 안전망에 포함된 기관 간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원스톱서비스 허브기관의 네트워크 코디네이팅팀이 중간에서 연계역할을 하도록 한다.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에서 기관 간의 연계는 중간에 이들을 이어주는 기관없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역할을 하는 곳이 반드시 필요하다. 3차 안전망은 이 네트워크의 운영에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서울특별시와 서울시교육청이다. 이 두 기관은 원스톱서비스 허브기관 및 2차 안전망에 포함된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기여한다. 또한 서울특

별시와 서울시교육청 간의 연계도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에서 중요하다.

## 2)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의 원스톱서비스 허브기관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가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원스톱서비스 허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것은 기존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도 모형상으로는 우수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원스톱서비스 허브기관은 이 기관의 역할을 고려하여 조직을 구성하였다.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의 원스톱서비스 허브기관은 센터장 이하 총 7개 팀으로 편성된다. 7개 팀은 사례나 사업에 따라 협업을 하고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한다. 센터장 이외에는 직책이 없는데 그 이유는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가 모여 수평적인 관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조직에서처럼 팀장과 팀원의 구분은 없는 것이 직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안에 따라 리더가 필요한 경우 센터장이 그 역할을 하거나 그 팀의 구성원 중 한 사람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센터장은 7개 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파악하고 자신이 실질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전문가여야 한다.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의 원스톱서비스 허브기관의 기능은 학교폭력의 발견, 예방, 치유이다. 센터의 7개 팀은 대부분 이 중에서 하나 이상의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코디네이팅팀은 발견, 예방, 치유의 기능을 모두 담당할 수 있다. 네트워크 기관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자나 가해자를 의뢰받는 경우, 이것은 학교폭력 발견이 될 수 있다. 네트워크 기관을 통해 예방교육을 할 수도 있고 치유의 기능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기획팀과 같이 조직의 행정을 담당하는 팀도 있다.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의 원스톱서비스 허브기관의 7개 팀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기획팀은 대부분의 조직에 존재하는 행정과 경영을 담당하는 곳이다. 사업개발팀은 이 센터가 직접적인 사업보다는 허브기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교폭력 발견, 예방, 치유와 관련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것을 담당하는 곳이다. 이 팀을 통해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새로운 사업을 소개하기도 하고 기존의 사업을 수정 및 보완을 하기도 한다. 아웃리치팀은 주로 학교폭력 발견과 예방에 중점을 둔 팀이다.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를 돌아보고 네트워크 기관을 찾아간다.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을 만나 학교폭력 발생 시 신고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고, 학교폭력 인식과 대처방안에 대해 설명도 한다. 인테이크팀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센터를 방문한 개인을 처음 맞이하는 곳이다. 상담에서 하는 인테이크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인테이크팀에서는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전문가,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회의를 통해 각 사례를 분석하고 진단하여 각각에 필요한 것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징검다리팀으로 의뢰하거나 네트워크 코디네이팅팀과

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것을 지원받도록 한다.

징검다리팀은 각 사례를 진단한 결과, 전문적인 도움보다 심리정서적 안정 등이 필요한 경우 즉각적으로 개입한다. 혹은 경미한 사안인 경우 징검다리팀에서 다양한 개입을 통해 사례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네트워크 코디네이팅팀은 이 조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지역사회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일을 주로 한다. 아웃리치팀과 협업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발견, 예방, 치유사업을 하기도 한다.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의 원스톱서비스 허브기관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느냐의 여부는 네트워크 코디네이팅팀이 얼마나 네트워크 운영을 잘 하느냐에 달려있다. 분쟁조정팀은 기존에 학교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나 청예단의 분쟁조정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것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관련 학부모의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중립적인 기구에서 담당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보다 객관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서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와 서울시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학교폭력관련 업무도 담당하도록 하면 학교폭력 감소에 효과적일 것이다. 분쟁조정팀에서는 학교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와 유사한 일을 담당하므로 팀안에 이와 같은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의료계, 법조계, 학계, 청소년, 학부모, 교사, 허브기관의 분쟁조정팀원 등으로 구성하되, 네트워크에 속한 기관 종사자들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도록 한다.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의 원스톱서비스 허브기관의 조직체계는 다음의 <그림 V-4>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V-4】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의 허브기관의 조직체계

### 3)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의 프로그램

학교폭력관련 프로그램은 이제까지 많이 개발되었고 시행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어울림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작년부터 시범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에서는 기존의 프로그램과 차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부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첫째, 기존 학교폭력관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해야 한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다양한 학교폭력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연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이전에 기존의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기반위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증명된 프로그램은 널리 보급하고 부족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여기에서는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가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학교폭력 예방이나 치유에 효과적인지를 연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둘째, 현재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에서는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것을 지양하기 때문에 차별화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학교를 포함한 지역의 각 기관에 보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의 예방이나 치유와 관련하여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이들의 효과성 검증을 토대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지만, 청소년들에게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보급되어서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새로운 문화예술체육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은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에서 기존의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사회에 보급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셋째, 학교폭력 프로그램의 진행방식은 과거 강의중심에서 활동중심으로 많이 바뀐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활동은 직접 청소년들이 만들기, 그리기, 게임하기 등에 참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법이 전달적인 측면에서 강의보다는 효과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 체험활동 중심으로 학교폭력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을 잘 기억하고 잘 배운다. 특히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의 경우, 체험활동의 학습효과는 클 것이다. 학교폭력이 중학교 때 가장 심각하지만, 학교폭력의 징후는 초등학교 때부터 나타

나고, 예방은 어릴수록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초등학생들을 위한 체험활동을 활용한 학교폭력 프로그램은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것은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시 체험활동의 방법을 반드시 포함시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이외에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4)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의 인력구성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의 인력구성에 대해서는 이 네트워크의 허브기관의 인력구성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운영되는지의 여부는 인적자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질적으로 기존에 여러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CYS-Net은 흠잡을 곳이 없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학교폭력을 포함한 청소년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주장하는 것은 기존의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중 하나가 인적자원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적 자원과 구성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허브기관에는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코디네이터가 있어야 한다. 네트워크가 수평적으로만 구성되면 이 네트워크를 이끌 리더가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 운영이 어렵다. 누군가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이끌어 가야 한다. 일본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학교폭력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청소년지원모델에서는 유스어드바이저(YA, Youth Advisor)라는 일종의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마포구의 마포청소년지원연합회의 경우, 연합회의 회장기관이 매년 바뀌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운영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책임감이 덜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 안정적으로 존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기관에는 코디네이터가 있어야 한다.

둘째, 허브기관에는 상담, 복지, 활동의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즉, 허브기관에는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구성해서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들이 제대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양한 전문성이 투입되지 않아서라고 할 수 있다. 히로이(2009)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만 구성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CYS-Net이나 Wee센터와 같이 우수한 네트워크도 대부분의 인력이 상담전공자이다 보니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은 장점이나 다른 영역의 업무는 효과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상담은 전문적인 분야이면서 단시간의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학교폭력의 경우 장시간이 요하는 상담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보완할 수 있다.

셋째, 허브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은 다른 일반적인 상담과 달라서 기존의 학교폭력 상담자들도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허브기관에서 일하는 인력은 학교폭력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에서 허브기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내용도 알고 있어야 한다. 이제까지 청소년 분야에서는 각각의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허브기관에서는 팀으로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은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들이 기존에 했던 역할과 다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위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5)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체계 구성을 위한 조례 제정

학교폭력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현재 전국의 광역시, 도, 자치구 및 교육청 중에서 94개 지역이 학교폭력 예방과 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청소년을 위한 선도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아직까지 학교폭력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의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체계 구성을 위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서울특별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에서도 학교폭력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 서울특별시 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조례가 없는 실정이다. 물론 서울특별시의 구차원에서는 16개 구에서 학교폭력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이는 구차원의 조례이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의 구 조례 사이의 단계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연속성이 결여되어 있다. 한편, 인천, 대구, 부산 등에서는 시차원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다. 서울특별시가 대한민국에서 학교폭력관련 정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조직, 인력, 예산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례 제정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과 관련된 보편적인 내용을 포함한 조례라도 제정이 될 필요가 있다.

### 3. 제언

가.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단점 중 하나는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허브기관이나 다른 연계기관에서 의뢰를 받았을 경우, 각 기관의 고유업무와 동등한 비중으로 의뢰된 사례를 다룰 수 있다. 이것은 학교에서 지역사회의 기관으로 학교폭력 관련 연계를 하기 어려워하는 이유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해서 지역사회 학교폭력 네트워크 운영 가이드 혹은 매뉴얼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네트워크 모형을 시범운영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도 CYS-Net을 포함하여 우수한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많이 있다. 문제는 네트워크 모형이 아니라 이 네트워크가 얼마나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잘 작동하느냐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네트워크를 시범운영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여 제시된 네트워크 모형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다.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고 해도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모두 힘을 합하여만 학교폭력을 제대로 예방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학교 중심의 정책과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학교폭력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조례 제정과 지역사회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네트워크 모형의 가장 안쪽에는 1차 안전망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을 근절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라고 볼 수 있다. 현재 1차 안전망에 속한 주체들은 대부분 학교폭력 근절에 있어서 큰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네트워크 모형이 지역사회 속에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1차 안전망에 속한 주체들의 참여

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이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 현재로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와 관련하여 주로 학교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학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청소년관련 기관들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이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 인근에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CYS-Net, Will 센터 등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들이 많다. 이런 지역시설들과의 연계를 형성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청소년관련 기관들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든지, 청소년지도사들이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다른 기관과 함께 담당한다든지, 지역주민들과의 연계를 지원한다든지 등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 〈 참고 문헌 〉

### ■ 단행본

- 문용린 외 공저 (2006).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학지사.  
문용린 외 공저 (2008). **학교폭력 위기 개입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이병환·엄재춘(2014).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서울:교육과학사.

### ■ 국내 연구논문

- 공숙자 (2010). Wee 프로젝트 개요 및 실제. **相談과 指導**, 45, 489-499.  
교육부 (2012). **제2회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모음집**.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edpolicy.kedi.re.kr>(2014. 6.14).  
관계부처합동 (2012).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합동 (2013).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  
권오걸(20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문제점. **법학논고**, 43, 79-102.  
금명자·오혜영·조은경·백현주·신주연 (200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연계체제 구축 방안**.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김상곤·배진형·한정숙·김희영 (2013). 영국, 미국, 노르웨이, 독일의 학교폭력 예방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처방안 분석연구. **학교사회복지**, 25, 333-376.  
김영광 (2013). **학교폭력 대응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노성덕·김태성·채중민 (2010).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3판)**.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노원신문. <http://nowon.newsk.com>(2014. 6.20).  
문부과학성(文部科學省)(2011), 兒童生徒の問題行動等生徒指導上の諸問題に關する調査.  
박상식(2013). **소년범죄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회복적 사법의 도입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1(2), 211-241.  
박주형·정제영 (2012). 한국과 미국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관련 법령 및 정책 비교 연구. **초등교육연구**, 25(4), 105-124.  
박효정·정미경·박종효·한세리 (2006).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방안**

-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효정·정미경·박종호 (2007).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원체제 모형 타당화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효정·정미경·박종호 (2008).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원체제의 제도화 및 확산 방안. **한국교육**, 35(3), 243-262.
- 법무부 (2012).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규개청**.
-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www.safe182.go.kr](http://www.safe182.go.kr)(2014.6.14.).
- 이민희·이명숙·이춘화·정희욱 (1998). **청소년폭력대책 모델 개발: 청소년폭력예방 지역 사회 네트워크 개발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민희·임영식·이진숙 (2003).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청소년폭력 대책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민희·이장현·오해섭·신순갑·김혜정 (2006).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실천적 운영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바라키현교육위원회(茨城縣教育委員會)(2011), **明るく安心して學べる學校づくりのために**.
- 이승현 (2013). 학교폭력 대책의 변화흐름과 방향. **형사정책연구소** 128, 30-35
- 이유진 (2011).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 개선방안**. NYPI YOUTH REPORT, 16, 1-16.
- 이춘화·윤옥경·진혜진·황의갑(2010).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개편 및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서울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2013). **서울시청소년폭력예방센터 호루라기센터 종합 결과보고서**.
- 전경숙·박종호 (2009).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대책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전라남도교육청 (2012). **학교폭력 대처 및 사안처리 우수사례**.
- 전인식·김주애·김지영·장은선 (2011). **Wee 프로젝트 매뉴얼**.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정현주·최수미·김하나 (2012).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연계기능 강화연구: CYS-Net·학교·Wee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조종태 (2013).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 대처 방안. **저스티스**, 134(3), 141~160.
- 최상근·금명자·정진 (2011). **Wee프로젝트 운영 모델 개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최창욱·강영배·김혁진·김형주·황진구(2012), **청소년지도사 연수과정 발전방안연구**,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청소년보호위원회 (2002). **학교폭력예방자료: 폭력 없는 우리 학교를 위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5). **청예단 10주년기념 사업보고서**. 서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www.jikim.net](http://www.jikim.net)(2014.6.14)
- 해맑음센터. [www.uri-i.kr](http://www.uri-i.kr)(2014.6.14)

황순길·전연진·이상균·김태성·허미경·김남희·김보람 (2013). **CYS-Net 중추기관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모형 개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 국외 연구논문

히로이 요시노리(廣井良典)(2009). **コミュニティを問いなおす-つながり都市日本社會の未來**. つくま新書.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2013). **Indicators of School Crime and Safety: 2012**. U. S. Department Of Education, U. 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Guender, R. (2012). **독일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12년 청예단 독일초청세미나 자료집. 1-39.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Cambridge, MA: Blackwell Publishers, Inc.

Schulamt fuer die Stadt Muenster (2008). **Schulsozialarbeit in Muenster**. Muenster.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4). **Key Components in State Anti-Bullying Laws**. Retrieved June 20, 2014 from Web Site: <http://www.stopbullying.gov/laws/key-components/index.html>.

## 청소년기관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응체계 구성방안 연구

---

---

발행일 : 2014년 08월

발행인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 한문철

발행처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

담당자 : 입법조사관 김우영

홈페이지 : <http://www.smc.seoul.kr>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태평로1가 60-1)  
전화) 02. 3702-1556, FAX) 02. 3702-1560

연구기관 : (사)한국청소년재단

책임연구 : 명지대학교 교수 조아미

연락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전화) 02. 300-0623

---

---

발간등록번호 : 51-6110100-000035-01

- ※ 본 학술연구용역보고서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의회에 있으며,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입법담당관실에는 중요조례안 관련 공청회 예산과 전문가활용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의원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위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